LS Networks

Walk & Talk | Autumn 2012 | vol. 006

보보담

LS Networks

Walk & Talk

Autumn 2012
vol. 006

보보담

보보담 步步潭 은 아웃도어 walk 와 문화 talk 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꿈꿉니다. 보보담 步步潭 은 LS 네트웍스에서 만드는
VIP 매거진으로 연 4회 발행됩니다.

길은 바람이다. 허공이다. 자유다.
사람은 그 길을 만들며 날아가는 새다.
새는 단 한 번도 옛길을 가지 않는다.
늘 새로운 빗금을 치며 훨훨 날아간다.

–김화성, 본지 「나의 본적은 숲이요, 개똥 구르는 길바닥이다」에서

© 김도영

Contents

Intro

01 Outdoor Aphorism

03 Editor's Choice 01
«韓國의 古建築»이라는 사건

05 Editor's Choice 02
제13회 카셀 도큐멘타

06 Contributors

Section 1 <Walk>

08 Outdoor Drama 자연의 길, 마음의 길
동강 4박 5일 트레킹, 정선에서 영월까지
글 박명욱 | 사진 전재호

21 Wheel Universe 바퀴가 그리는 세상
유배와 은둔의 섬, 흑산도 자전거 여행
글 김경 | 사진 노순택

28 Bicycle Gallery 자전거에 탐닉하다
박물 가치를 획득한 두 바퀴 이동 수단
글 반이정 | 사진 김도형

34 Finding Artists 진옥섭의 풍류기행
통영과 고성에서 만난
두 명의 전통 예인, 정영만 · 이윤석
글 김뉘연 | 사진 이한구 | 길잡이 진옥섭

42 Wayfarer Stories 과객열전過客列傳
이세구의 가을 여행, 젊은 나그네의 느리게 걷기
글 안대회

Section 2 <Talk>

Special Theme:
Walk & Think

<Power Talk >
영화가 많이 말하다 | 책임 편집 정성일

62 Interview & Innerview 영화감독 임권택을 만나다
나는 오늘도 길을 나서고 싶다
글 정성일 | 사진 박정훈

70 Review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 대하여
당신에게는 함께 떠날 친구가 있습니까?
글 우혜경

74 Road Movies of the World 세계의 로드 무비들
모든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글 정성일

84 Just One Scene 이 한 장면
<서편제> Scene 41
슬픔을 웃으며 아픔을 삭이며 가는, 삶이라는 길
글 정성일

«韓國의 古建築»이라는 사건

36년 만에 되살아난

우리 옛 건축의 아름다움

1976년 서른세 살의 혈기왕성한 건축가가 건축연구소를 열었다. 좋은 책으로 건축을 알리겠다며 출판사 등록까지 마친 그는 호기롭게 «한국의 고건축» 50권 시리즈를 기획한다. 그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우리 고건축이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그것을 일반에 알려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여겼다. 당대 최고 사진가인 고故 임응식 선생과 작업해 1권 『비원』을 시작으로 경복궁, 종묘, 소쇄원 등을 흑백사진집에 담았다. 사진가 강운구와 주명덕도 합세했다. 하지만 세 권만 내고 나면 문제 없으리라 여겼던 출판사 재정은 금세 바닥났고 빚더미에 앉은 그는 7권 『수원성』을 끝으로 뜻을 접어야 했다. 책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36년이 흘러 이제 고희를 바라보는 건축가가 그때 사진집을 복간했다. 김원 도서출판 광장 대표는 "50권을 다 못 낸 마음의 빚을 죽기 전에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일곱 권을 그대로 복간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진집을 다시 세상에 내놓았다. 그것은 사진가 고 임응식에 대한 오마주이자 건축가의 '지나간 세월, 힘겹고, 벅차지만, 부단한, 그리고 올해 나이 고희를 맞으면서도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한 미진한 노력들에 대한 연민의 오마주'이기도 하다.

«한국의 고건축»은 36년 전으로선 획기적인 문화 상품으로, 권마다 실린 스물다섯 컷에서 서른다섯 컷에 이르는 흑백사진들이 고졸한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그의 열정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나온 그 일곱 아름다움의 이름은 『비원』『경복궁』『종묘』『칠궁』『내설악 너와집』『소쇄원』『수원성』이다.

© 박건주

48 Directions 맨 앞에서 말하다
함께 걸었던, 함께 가야 할
글 정진홍

52 Talk 01 건축이 말하다
길을 걷다, 집을 짓다
글 문훈

57 Talk 02 문학이 말하다
시는 걷는다, 네 종류의 리듬으로
글 신형철

85 Talk 03 미술이 말하다
그럼에도 걸어가라, 그것이 인생이다
글 박영택

90 Talk 04 음악이 말하다
솔롱고스의 새벽 산책길에
사운드트랙은 흐르고
글 김갑수 | 사진 박건주

96 Soul Place 짧은 길, 긴 생각
소설가 함정임의 문탠로드
사람 이상, 사랑 이상, 꿈 이상의 그곳
글 함정임

Section 3 <After Walk & Talk>

100 Travel & Think 무릎으로 생각하다
마르파에는 프라다가 없다
글 · 사진 박상미

106 Into the Place Name 지명地名의 속내
동강, 아름다운 지명들의 꿰미
글 이하석

110 Outdoor Spirit 김화성 기자의 소요유逍遙遊
나의 본적은 숲이요,
개똥 구르는 길바닥이다
글 김화성

114 Korean Tastes 한국의 맛
공동체의 음식, 떡
글 황교익 | 사진 박건주

122 Korean Liquors 가양주家釀酒 견문록
안동 정재종택의 송화주를 찾아서
글 최성우 | 사진 이동춘

129 Life & Brand 아웃도어 라이프 스토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성윤 부장의
아웃도어 웰라이프
글 김미연 | 사진 김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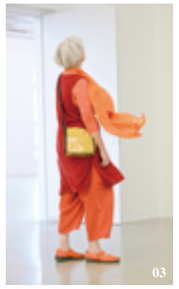
148 편집실에서

제13회 카셀 도큐멘타
2012/06/19-09/16

예술은 기록이다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가 올해로 열세 번째 행사를 치렀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와의 차이점은, 개최 주기가 5년이라는 점 외에도, 나치 시대 독일 국민이 접할 수 없었던 현대미술의 기록(도큐멘테이션)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로 '도큐멘타'라는 행사명을 쓰는 점이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기조로 삼는 것이다. 이번 13회 도큐멘타에서는 본 전시장 프리데리치아눔 앞 잔디밭으로 비공식 시위대가 들어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2011년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에 고무되어 조직된 미술관 점령 시위Occupy Museum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방점을 둔 카셀 도큐멘타여서인지, 총감독 캐롤린 크리스토프-바카기예프Carolyn Christov-Bakargiev는 시위대의 본 전시장 앞 점거를 허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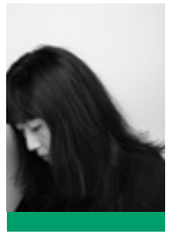
이번 도큐멘타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도 미술에 대한 야유를 담은 작품이다. 본 전시장 1층은 모두 텅 빈 채로 방치되었는데, 이건 영국작가 라이언 갠더Ryan Gander의 출품작 <나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필요로 한다>이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텅 빈 전시장을 관객들이 서성대다가 나오는 것이 작품의 콘셉트다. 마치 작품과 칸막이로 빼곡히 들어찬 전시실의 전형성을 전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영화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을 출연시킨 문경원과 전준호의 공동 작업 <세상의 저편>과 양혜규의 설치물을 만날 수 있다. 도큐멘타의 전시는 전시장뿐 아니라 광장과 정원과 숲 속, 기차역과 호텔 등 카셀 시내 서른두 곳에 작품을 분산시켰다. 현대미술의 전시와 관람의 공식이 미술관 밖을 지향한 지 꽤 오래되었다. 리포팅 | 반이정(미술평론가)



01 양혜규 <진입: 탈-과거시제의 공학적 안무> © Nils Klinger **02** 본 전시장 앞 잔디밭에서 펼쳐진 미술관 점령시위 © 반이정 **03** 라이언 갠더 <나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필요로 한다> © Nils Klinger **04** 문경원, 전준호 <세상의 저편> © Anders Sune Berg

도움을 주신 분들 | Contributors

글 | 편집부



윤희영(<현대문학> 편집장)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내내 평생 책 읽는 직업이 뭘까를 고민하다 문예지 편집자가 되어 한눈팔지 않고 15년째 문예지를 만들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두 메이저 문예지 <문학사상>을 편집했고, <현대문학>을 편집하고 있는 운 좋은 편집자이기도 하다. 같이 일하는 작가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집자로 꼽히고 싶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력은 단순하다. "15년째 문예지를 만들고 있다." 이 단순성 안에 그의 힘이 있다. 우리 문학판에 그가 모르는 작가는 없다. 좋은 필자들을 소개해주고 아이템 자문에도 기꺼이 생각을 나누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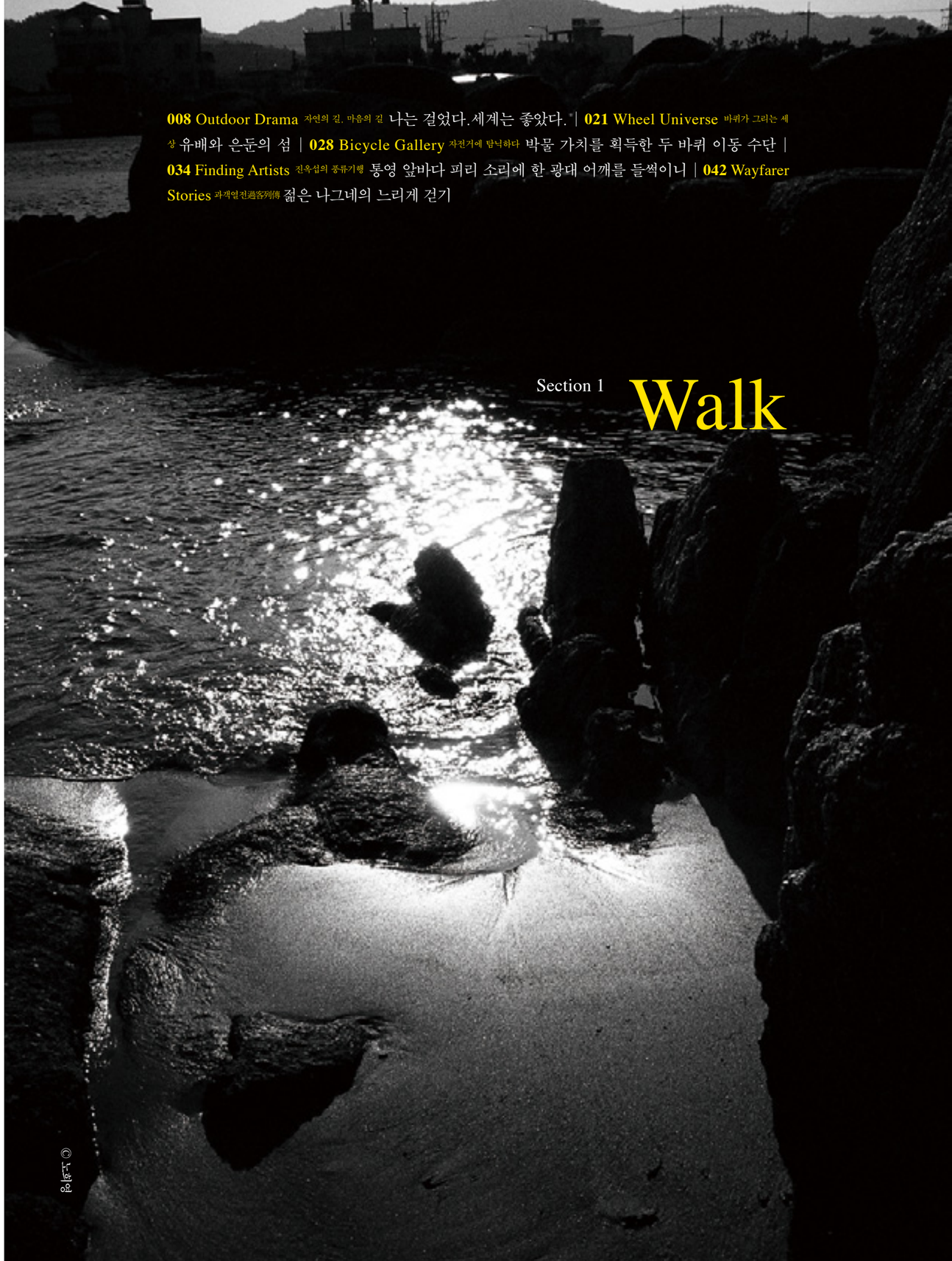
김신(대림미술관 부관장) 월간 <디자인>에서 17년간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모두 199회의 잡지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다. 다양한 생각과 재능을 가진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고 그들을 잡지에 기록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과 사진,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고마워, 디자인』을 집필했고, 현재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며 20세기 디자인 전반에 대한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보보담> 리뉴얼 과정에서 기획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디자인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보보담>에서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박상미(번역가, 작가) 성인기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번역하고, 책을 썼다. 번역한 책으로 『빈방의 빛』『우연한 걸작』『그저 좋은 사람』『어젯밤』 등이 있으며, 쓴 책으로는 『뉴요커』와 『취향』이 있다. 2010년 잠정 귀국해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의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난 2년 간 일하였다. 'Life & Brand'의 주인공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성윤 부장 섭외는 그의 주선 덕이다. 'Travel & Think' 꼭지의 필자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에 큰 수술을 받고 '죽다 살아'났지만, 밀린 일들을 썩썩 해치우고 있다. 최근에 본 가장 굳센 사람이다.

김영록(도보여행전문가) 오래전 아내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공통 취미를 찾다가 '문화유산 답사'로 마음을 정한 후 이 땅 구석구석 답사를 다녔다. 걷기여행에 눈을 뜬 후 나라 안을 열심히 걷고 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걷기여행』(전국편)을 썼고, 『지금 이 길의 아름다움』 등에 공동 필자로 참여했다. 국악방송, 교육방송, SBS 등을 거쳐 지금은 교통방송에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고 있다. 편의점 노천 의자에 앉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려 가며 열정적으로 동강 트레킹 코스를 설명해주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옛적 고구려 사람들이 개척했던 위대한 '초원의 길'을 복원하여 걷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변은숙(번역가, 프리랜스 편집자) 초등학생 때 『혼자 노는 아이』라는 동화를 읽고 작가가 되고 싶었다. 도쿄 일본외국어전문학교 한일통역과를 졸업한 후, 편집자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스기우라 고헤이 디자인』『화가의 아내』『아시아의 책, 문자, 디자인』(공역) 『소설 공부의 신』(공역) 등이 있다. 다섯 살 된 딸아이를 얼른 키워서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게 꿈이다. 그는 편집자로서 걷기 관련 서적들의 붐에 일조한 바 있다. 급히 필요한 외서 구입, 급히 필요한 사진 자료의 수급, 트레킹 대원 섭외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흔쾌히 잡아주었다.

정귀원(<건축리포트 와이드WIDE> 편집장) <공간> 기자로 일하면서 건축의 '건'자를 알게 되었다. 내친 김에 '축'자도 알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6년간 김종성 선생의 서울건축에서 진득하게 건축 설계 실무를 익혔다. 그 후 척박하기 그지없는 건축 저널 현장에 복귀, <포아Poar>의 편집장을 거쳐 현재 격월간 건축 전문지 <건축리포트 와이드WIDE>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중들이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건축 칼럼 기획에 지속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재미있는 기획을 펼쳐줄 것이다. 그와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든든하다.



008 Outdoor Drama 자연의 길, 마음의 길 나는 걸었다.세계는 좋았다. | **021** Wheel Universe 바퀴가 그리는 세상 유배와 은둔의 섬 | **028** Bicycle Gallery 자전거에 탑닉하다 박물 가치를 획득한 두 바퀴 이동 수단 | **034** Finding Artists 전옥섭의 풍류기행 통영 앞바다 피리 소리에 한 광대 어깨를 들썩이니 | **042** Wayfarer Stories 과객열전過客列傳 젊은 나그네의 느리게 걷기

Section 1

Walk

© 노형석

동강 4박 5일 트레킹
정선에서 영월까지

나는 걸었다. 세계는 좋았다.

I have walked around.
Splendid the world it was.

글 | 박명욱 사진 | 전재호 일러스트 | 노희진

동강은 조양강이 동남천과 만나는 가수리에서 시작해 영월읍으로 이어지는 작지만 빼어나게 아름다운 강이다. 정선버스터미널에서 영월버스터미널까지 4박 5일 동안 동강변을 따라 걸었다. 때로는 강을 따라 걸었고, 때로는 산을 타고 넘었다. 지도 위에 있는 길을 걷기도 했고, 지도에는 없는 마음의 길을 걷기도 했다. 이 글은 그 몸의 여정과 마음의 행로에 대한 기록이다.

걸어서 가보아야 할 땅,
사람의 이름으로 가보아야 할 마을
-박세현, 「정선 가는 길」에서

* 동강 강변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철저히 금지된다. 본 트레킹 중 캠프 사이트로 이틀은 민박집 마당과 밭 기슭을 이용했고, 하루는 초등학교 교정, 하루는 오토캠핑장을 이용했다. 모두 정식으로 허가를 득했음을 밝힌다.

18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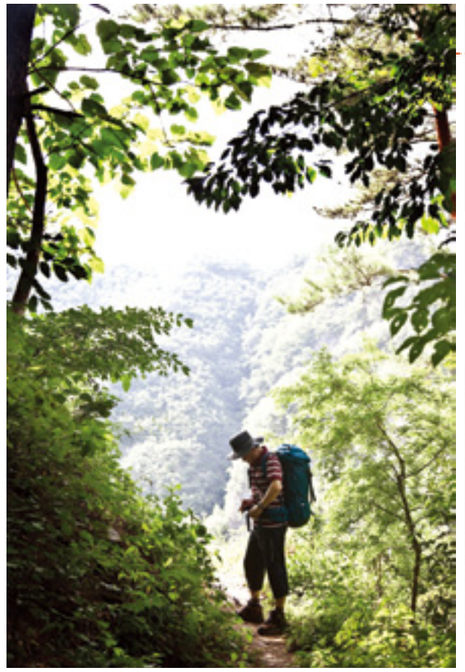
▲ 걸어가는 사람들 | 김대장, 히말라야 13좌를 무산소로 등정한 산악인. 이선생, 대학에서 불문학을 가르치는 학자. 전작가, 20여 년간 사진 작업을 해온 사진가. 박편집장, 자유기고가이자 잡지 에디터. ▲ 몇 개의 원칙 | 정선 버스터미널에서 영월 버스터미널까지 동강을 따라 완주하되, 단 한 발짝도 탈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매일 야영하고 직접 취사한다. 배낭은 풀패킹한다. 이 원칙들은 더러 휘었으나, 탈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매일 야영의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다. 더위와 피로에 지친 저녁, 민박집 메뉴는 뿌리치기 어려웠다. 아침과 점심은 직접 지었다. ▲ 핸디캡 | 모두들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김대장은 비 오는 날 바위를 타다가 양쪽 발뒤꿈치가 모두 벗겨졌고, 이선생은 새끼발가락에 부상이 있고, 박편집장은 과한 마라톤 연습으로 엄지발가락에 물이 찼다. 그리고 전작가는 전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마카오 오성급 호텔 스위트룸의 달콤한 기억을 안고 왔다. '극과 극'. 그는 오늘 길 위에서 잘 것이다. ▲ 오르막길 | 시작이 너무 나빴다. 몸이 걷기에 적응하기도 전에 한낮의 땡볕 아래 병방치로 올라가는 길은 출발의 낭만을 금세 지웠는데, 특히 이선생이 힘들어했다. 그는 땀을 비 오듯 흘렸고, 풀린 눈동자에는 회의와 불안이 스쳤다. 서른여섯 굽이 뱅뱅이재를 내려올 때도, 잊을 만하면 차가 한 대씩 지나가던 찻길을 걸을 때도 그는 내내 뒤처졌다. ▲ 땅벌집 | 가수리 못 미쳐 가드레일을 넘어가 쉬었다. 이선생이 레일을 넘다가 레일 기둥에 있던 땅벌집을 손으로 건드렸다. 휴식 덕인지, 벌침 효험인지, 그 후 그는 기운을 회복했고 기분도 한결 나아 보였다. 어쩌면, 그는 남은 길을 살아낼 것 같다. ▲ 한뎃잠 | 가수리에서 찻길을 버리고 다리를 건너, 산을 넘어 하매로 가는 옛길을 택했다. 잠시 소나기가 흩뿌렸다. 어렵게 길을 찾아 넘어가 예정했던 민박집 마당에 행장을 풀었다. 서둘러 저녁을 지어 먹고 텐트 속에 누웠다. 한뎃잠일망정, 혼곤했다.

Trecking Leader

김창호
산악인, 몽벨 자문위원
43세

양 떼를 이끄는 사자

김대장은 히말라야 13좌를 무산소로 등정한 철인 중의 철인이다. 내년 초 예정의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을 마치면,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전부 무산소로 등정한 산악인이 된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넘치는 리더다. 그에게는 오합지졸(?)에 다름 아닐 허약한 무리를 이끌고 한달음에 걸어도 시원치 않을 길을 잘게 나누어 5일 동안 걷는 지루한(?) 일정을,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즐겁게 걸었다. 그는 겸손했고 진중했으며, 리더로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표나지 않게 움직였다. 그의 판단과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 그의 대원이 되어 그와 함께 걸은 것은 무쌍無雙의 영광이었다.



하매생태길

Daily Adventure 01

옛길이 우리에게 준 것

하매생태길은 가수리에서 북대로 건너가 산 하나를 넘어서 하매에 이르는 옛길이다. 길은 호젓하고 좋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희미했고, 이내 흔적이 지워졌다. 버젓한 찻길을 두고 누가 이 길을 넘어 다니겠는가.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종잡을 수 없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여차하면 되돌아가 다시 찻길을 따라 빙 돌아가야 할 터였다. 노련한 '산꾼' 김대장이 없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산길에 밝은 그는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아냈다. 하지만 온통 가시풀로 뒤덮인 '길 없는 길'을 가느라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모두의 종아리에는 붉고 가는 회초리 자국들이 남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극荊棘의 길'을 헤쳐가야 했다.

하매마을-나래소-바세-연포마을-가정나루터(15km)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 다섯 시 | 정해 놓은 기상 시간은 다섯 시다. 날이 더우니 일찍 움직이고 일찍 접자는 뜻이다. 장비를 정리하거나 배낭을 패킹하거나 음식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모든 일이 손에 설어, 길을 나설 무렵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 폴 발레리 | 오전 중에는 바람이 좋았다. 바람이 좋아서 따가운 볕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즐거웠다. 이 선생도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그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 폴 발레리의 시구를 말하고는 덧붙여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되었다. 이제 그에 대한 걱정은 지워도 될 것이다. ▲ 물굽이 | 오늘 걸을 구간은 동강에서도 가장 물굽이가 많은 곳이다. 동강이 서너 번 연이어 크게 휘돌아 나가는 그 안쪽에 제장, 바세, 소사, 연포 같은 아름다운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나리재에서 찻길을 벗어나 산을 타고 올라가면, 동강 최고의 절경 조망처가 나온다. 물이 깊어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나래소 위쪽, 아찔한 절벽 위 소나무 그늘에 앉아 오래 동강의 물굽이를 내려다보았다. ▲ 목사와 뱀 | 연포 가기 전 소사에서 만난 중년의 목사는 차가운 얼음물로 우리의 갈증을 가시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돌봐온 대문 위 새끼새들의 둥지를 보여주었는데, 마침 뱀 한 마리가 마지막 새끼를 삼킨 후였다. 그는 우리 보는 앞에서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뱀을 처리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공히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편파적이었고, 그래서 인간적이었다. ▲ 이별 | 전작가의 지인으로 이틀 동안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던 사진가 양선생이 급한 일정이 생겨 밤늦게 귀경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왜 안 그렇겠는가. 길 위에서 만나 하룻밤을 함께 했고 몇 끼를 나누었거늘. ▲ 강변노숙 | 지척에 동강이 흐르는 밭 기슭에 숙영지를 정했다. 늘 새로운, 영원한 신생의 강이 밤새 철썩이며 흘렀다.

Daily Talking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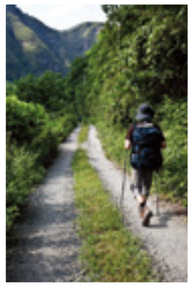
이찬규
불문학자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술원 교수
46세

몸을 통해서 풍경으로 건너가다

동강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름다운 만큼 무심한 동강변을 나는 혼자 걸어갔다. 언제나 뒤처져서 혼자였고, 두 발로 걷는 것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라 혼자였다. 자갈밭을 걷다 도강渡江하고 다시 길 없는 산을 치고 올라가느라 내 가느다란 중년의 두 발목들이 징징거렸다. 대개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찌개 하나를 끓이고 준비해 온 밑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트레킹으로 우리는 서로 처음 만났지만 누군가 매일 아침 그 아침 밥상을 꽃으로 장식하였다. 어느 아침에는 보랏빛 칡꽃이 놓여 있었고, 어느 아침에는 꽁치찌개 옆에 메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입가심으로 그 꽃들을 한두 개씩 씹어 먹으며 일어섰다. 등산화 끈을 바싹 조이고 어제 묻은 바닥의 흙을 털었다. 몸을 통해서, 풍경으로 건너갈 준비가 이제 된 것이다.

나래소, 신병산

Daily Adventur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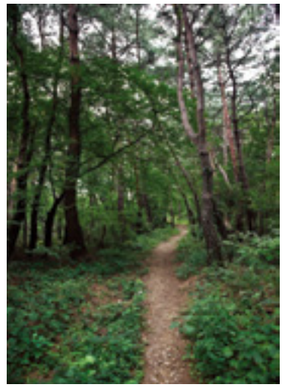
길 만들기, 또는 길 찾기

나래소 전망처에서 되돌아나와 찻길을 따라 예정했던 길로 가지 않고, 갈 방향을 가늠해 풀숲을 헤치며 산을 치고 내려왔다. 김대장의 '탁월한 영도력' 덕에 '없는 길'이 만들어졌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오늘은 길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찾기도 했다. 동강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리를 실감하게 된다. 제장에서 바세로 넘어가는 산길은 강변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데, 신병산 자락이 동강에 부딪쳐 물을 건너지 못하고 머문 곳이다. 사전 답사 때는 찾지 못했던 길로, 찾으려던 것을 찾아서 흐뭇했고, 길이 예뻐서 흐뭇했다.

가정나루터-칠족령-문희마을-진탄나루터-뻥창마을(18km)

강물도 흐르고, 길도 흐르고, 우리도 흘렀다

▲ 꽃상 | 양선생의 빈자리를 전작가가 대신했다. 그도 요리에 익숙했다. 텐트 등 장비들을 정리하고 와보니 소박한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는 하얀 으아리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저는 보라색 토끼풀 꽃대 위에 놓여 있었다. 마음이 환해졌다. ▲ 노모 | 우리에게 밭 한 귀퉁이를 숙영지로 내준 민박집은 30대의 젊고 부지런한 주인장과 나이든 노모가 운영하고 있었다. 노모는 혹여 산목숨 해하는 일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토종닭 잡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의 닭백숙은 사랑하는 이의 불행을 대신 짐 지려는 어떤 사랑의 자세가 만들었던 것이다. ▲ 칠족령 | 연포마을에서 칠족령을 넘어 문희마을로 가는 길은 이번 트레킹 코스의 백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강의 물굽이를 물리도록 볼 수 있으며, 조망이 좋아서 눈이 시원했다. ▲ 화농 | 가시풀에 쓸린 전작가의 정강이가 벌겋게 부어오른 것이 심상치 않다. 김대장은 피부가 손상되어 피질층 아래가 세균에 감염된 초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말하자면 피부 아래가 곪고 있는 것이다. 심해지면 '봉와직염'이 되어 위험하다고 했다. 첫 날 하매생태길의 가시풀들에 긁힌 것이 화근이었다. 다행히 김대장의 응급 처치로 저녁 무렵부터 호전되었다. ▲ 냉면 | 오늘 준비한 점심은 인스턴트 냉면이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냉면이 아니라 온면을 먹을 판이다. 칠족령을 넘고 백룡동굴 근처까지 갔다 오느라 모두들 허기진데, 그늘 찾기도 힘든 뙤약볕 아래 국도변에서 무슨 수로 '냉면'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난데없이 그늘도 있고 차가운 물도 콸콸 쏟아지는 포스트가 나타났다. 그늘에 앉아 흘러가는 동강을 굽어보며 먹는 냉면은, 달았다. ▲ 드러난 길 | 사전 답사 왔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막혔던 강변길이, 한동안의 가뭄 탓으로 열렸다. 즉석에서 코스를 변경했다. 지천을 건너 강변을 따라 걸었다. 파스칼은 "강은 움직이며 흘러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 강을 따라, 그 흘러가는 길을 따라, 한동안 우리도 흘렀다.



Daily Talking 02

박명욱

에디터
편집회사 <여름> 주간
48세

나는 걸었고, 세계는 좋았다

오래 내 안에 갇혀 지냈다. 그 안에서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전 생애를 복기했다. 즐겁고 기쁜 날들도 있었으나, 거개가 을씨년스럽고 스산했다. 안으로 향해진 거울 속에는 오로지 나만 비쳤다. 끝없이 반복되는 나.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그러나 문은 단단했고,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내가 밀었는지 밖에서 당겼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날 스르르 문이 열렸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나가고 싶은 내가 안에서 밀기도 했을 것이고, 날 염려하는 이들이 밖에서 당기기도 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유폐했던 마음의 방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걸어 나와, 낯선 사람들과 먼 길을 걸었다. 강을 따라 걷다가, 길이 끊기면 산을 타고 넘었다. 거울이 밖으로 향하자, 거기 풍요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비쳤다. 나는 걸었고, 세계는 충분히 좋았다. * "나는 걸었고, 세계는 좋았다"라는 제목은 후지와라 신야의 『인도방랑』에서 인용했다.

진탄나루터에서
뻥창마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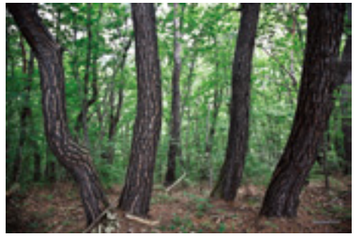
Daily Adventure 03

강변길, 그리고 줄배

원래는 기화천을 건너고 재치산 자락을 타고 넘어가 문산교를 건너 뻥창마을로 입성할 예정이었으나, 가물어 드러난 강변길을 보자 숙의 끝에 강변길을 택했다. 명색이 동강 트레킹인데 번번이 길이 막혀 제대로 강을 따라 걷지 못했거니와, 또 한 차례 산을 타려니 꾀가 나기도 했던 것 같다. 중간에 절벽으로 길이 막혀 난감하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매어 놓은 밧줄이 요긴하게 쓰였다. 길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돌밭과 풀숲이 번갈아 이어졌고, 더러 머리 높이까지 자란 갈대들을 헤치고 길을 더듬기도 했다. 약간의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던 이 날의 작은 모험은 사라져가는 동강의 전통 중의 하나인 줄배를 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역시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뼝창마을-장성산-잣봉-어라연-동강오토캠핑장(16km)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패착 | 장성산으로 올라 잣봉을 지나 강변을 타고 어라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다. 워낙 유명한 곳인데다 영월군에서 신경 써서 관리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과연,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으나, 멀었다. 가볍게 산을 넘어 강변으로 내려설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이 낳은 준비 소홀이 패착이었다. 날은 변함없이 푹푹 찌고, 길은 가파르고, 갈 길은 먼데, 준비해 온 물은 이미 바닥이었다. ▲목마름 | 목이 말랐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고,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더 목이 말랐다. ▲풋사과 | 장성산과 잣봉 갈림길에서 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코스에서 벗어나 농가를 찾아 한참을 내려갔으나 농가도 식수도 찾지 못했다. 전작가가 멀리서 용케 사과나무를 알아보고 풋사과를 한 보따리 따왔다. 요기도 되고 갈증도 어느 정도 가시게 해주었지만, 물에 대한 갈망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결단 | 이선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물을 찾아 내려갔다 온 것이 그를 탈진시켰다. 그는 농사용 관개수를 끓여 어렵게 만든 점심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어라연 입구로 질러 내려가는 길을 택하고, 어라연 강변을 따라 도는 코스는 우리만 하기로 했다. ▲엇갈림 | 어라연 전망대 갈림길에서 앞서 간 김대장과 전작가를 놓쳤다.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혼자 가는 먼 길 | 일행은 어라연전망대에서 날 기다렸고, 난 일행이 서둘러 간 것으로 판단했다.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으나 일행은 뒤에 있었으니 점점 더 멀어졌고, 천상 어라연 입구인 삼옥안내소까지 혼자 걸어야 했다. 며칠 동안 함께 걷다가 혼자 걸으려니 허전했고, 길도 더 멀고 힘들게 느껴졌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었다. ▲팥빙수 |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다들 팀워크의 미세한 균열을 느꼈던 것 같다. 동강오토캠핑장으로 가는 길가 가게에서 함께 팥빙수를 사먹었다. 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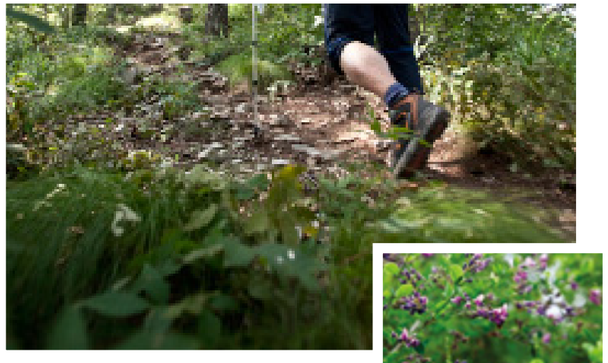
길에서 만난 사람들 01

양우성 사진가, 38세 전작가의 후배 사진가로, 예정에 없이 이틀 동안 동행하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었다. 첫날 저녁의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둘째 날 아침의 카레 요리는 우리만 맛보기 아까운 것이었다. 동행의 이유를 묻자 그는 왠지 자신이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어서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나름의 요리 철학을 설파하고는 이틀째 밤에 홀연히 떠나갔다.

이상균 동강환경지킴이, 42세 친절은 사람이 피워낼 수 있는 꽃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 꽃을 보여주었다. 사전 답사를 가서 첫날 숙영지로 예정했던 가수리 초등학교 교정 섭외가 불발되어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옆에서 그 사정을 지켜보던 그는 선뜻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 마당을 내주겠다고 제안했고, '하매생태길'이라는 현지인만 아는 옛길도 일러주었다. 그의 집 마당에서 편안한 하룻밤을 보내지 못했다면 첫날의 여독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장성산, 잣봉 갈림길

Daily Adventure 04



물 구하기

거리 계산을 허술히 하고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오늘 고난의 원인이자 일행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장성산과 잣봉 갈림길에 이르자 물이 거의 바닥나서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했다. 점심 준비할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부족했다. 논의 끝에 물을 찾기로 하고, 코스에서 이탈해 한참을 내려가 간신히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관개용 수로에서 쏟아지는 농수였다. 달리 방법이 없어 그 물을 끓여서 점심을 준비하고, 다시 그 물을 끓여 식혀서 수통에 담았다. 충분하지 않았고 물맛도 찝찝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 지루한 갈증은 강변을 걷다가 뜻하지 않은 용천수를 만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동강오토캠핑장-영월대교-영월버스터미널(7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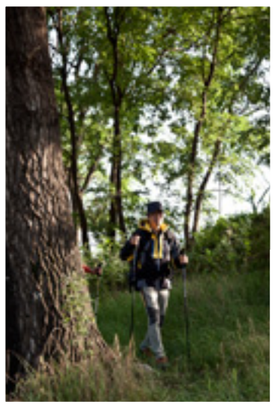
지나온 길이 한 바탕 꿈 같더라

▲캡틴, 오! 마이 캡틴 | 동강오토캠핑장에서 마지막 날 아침을 맞았다. 변함없이 김대장이 캠프 사이트 정리를 지휘했다. 그가 없었다면 이 트레킹은 여러 차례의 고비를 만났을 것이고, 훨씬 어렵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의 지휘법은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행동 속에는 고요한 설득력이 있어 저절로 수긍하고 따르게 된다. 그는 이 트레킹이 끝나도 모두에게 '김대장'으로 남을 것이다. ▲언덕 | 비스킷과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끝이 보이자 얼른 그 끝을 앞당기고 싶었던 것이다. 영월 시내가 보이는 언덕에 이르자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다들 멈춰 섰다. 대단한 일정은 아니었다 해도,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파장 | 마지막 날의 일정은 오토캠핑장을 출발한 지 두 시간 만에 싱겁게 끝이 났다. 영월버스터미널에서 트레킹 종료를 선언했다. 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각자 소회들이 있을 터인데 중년의 사내들이라 다들 내색하지 않았다. ▲터미널 | 터미널은 길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의 여정은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시작해,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끝이 났다. 이것은 끝인가 시작인가. ▲뒤풀이 | 차 시간이 많이 남아 터미널 근처 시장통에서 간소한 뒤풀이를 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메밀전병에 탁주를 기울였다. 지나온 길을 되짚기도 하고 서로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백주 대낮의 술자리는 진진했다. 전작가는 볼 일이 있어 남기로 했다. ▲얼음과자 | 버스가 떠나기 바로 직전, 전작가가 황급히 차 안으로 뛰어 올라와 각자의 손에 얼음과자 하나씩을 쥐어주고는 뛰어 내려갔다. 이것으로 작은 이별의 의식은 완성되었다. ▲또 하나의 터미널 | 영월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지 두 시간이 조금 지나 동서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어쩐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여전히 한낮이었고, 지난 며칠이 마치 한 바탕의 꿈 같았다. 김대장과 이선생이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두 사람을 까닭 없이 불러 세우고 싶었으나, 까닭이 없었으므로 멈칫했고, 종내 부르지 못했다.

이태식 목사, 47세 그는 폭염 속을 지나다 그늘을 찾아 잠시 처마 밑에 들어온 우리를 보고는 말없이 차디찬 얼음물을 내다 주었다. 얼핏 농가 주택으로 보였던 것이 실은 교회였다. 복음은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막 산을 하나 넘어 내려온 그때의 우리에게 찬물은 복음과 진배없었다. 그는 일부러 교회가 없는 궁벽진 곳으로 들어와서 7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건네준 물만큼이나 그의 삶도 청량했다.

정용회 농부, 35세 연포마을 끝자락 거북이 민박집의 주인장이다. 그는 중식 요리사 출신으로, 도시에서 몸이 망가져, 노모가 살고 있는 세상 끝 같은 외진 곳으로 귀향했다. 1년 반 동안 매일 주변 산을 오르내려 몸을 성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찔레꽃차, 보리수꽃차, 단풍나무꽃차 등 많은 꽃차를 생산하고 있다. 농사와 민박도 겸하고 있다. 집 앞 동강에 면한 너른 고추밭에 야생화를 키우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면 그의 집은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다.

김영걸 뻥창마을 실장, 44세 '뻥창'은 벼랑을 일컫는 강원도 사투리로, 이 말을 넣어 마을 이름을 지은 것도 그다. 이른바 '마을 브랜드' 사업이다. 그는 대단히 열성적인 마을 일꾼으로, 초등학교 교정을 숙영지로 쓸 수 있도록 섭외해 주었고, 건너편 강변길에서 바로 마을로 건너올 수 있도록 줄배를 주선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열렬한 이타적 신념 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그것 같은 순수한 열기가 느껴졌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친환경 트레킹 캠페인

Leave No Trace

등산과 비박 산행, 트레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의 산과 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특히 당일 정규 등산로 이외의 산행을 하는 백패커들이라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그 중에 국제적인 환경단체 LNT가 제시한 '흔적 남기지 않기 Leave No Trace' 원칙이 있는데, 총 7가지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 Plan Ahead and Prepare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방문할 지역과 관계된 규칙과 특이 사항을 파악한다. ▲극심한 기후, 위험 및 응급 상황을 준비한다. ▲방문지까지 가는 여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다. ▲가능한 한 적은 수의 구성원으로 방문하고, 많으면 나누어라.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음식을 다시 꾸린다. ▲색칠하기, 돌무더기 표시하기, 깃발 설치하기를 하지 않도록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한다.

2. Travel and Camp on Durable Surfaces 지정된 구역에서 탐방하고 야영하기 ▲ 지정된 구역(내구력 있는 표면)이란 확실한 탐방로, 야영지, 바위, 자갈, 마른 풀 또는 눈을 포함한다. ▲ 호수와 계곡으로부터 약 200피트(약 61m, 성인 걸음으로 70보) 이내의 야영을 피한다. ▲ 좋은 야영지를 만들지 말고, 찾아라. 야영지를 개조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탐방로가 젖어 있거나 진창이더라도 가운데를 일렬종대로 걸으라. ▲야영지가 최소가 되도록 하라. 식물 생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라. ▲충격(자연 훼손)이 시작되고 있는 장소를 피하라.

3. Dispose of Waste Properly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온다. 야영지의 모든 쓰레기, 남겨진 음식물, 잡동사니를 배낭에 가지고 나온다. ▲ 인간 배설물은 식수, 야영지, 탐방로에서 약 200피트 떨어진 곳에 6~8인치(약 15~20cm)의 구덩이 안에 묻는다. ▲몸이나 그릇을 씻으려면 개울이나 호수에서 200피트 떨어진 곳으로 물을 가져가서 생물 분해성 비누의 작은 양을 사용한다.

4. Leave What You Find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두기 ▲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라. 문화적 또는 역사적 구조물과 인공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 바위, 식물 그리고 다른 자연의 물건들은 당신이 본 그대로 둔다. ▲구조물, 비품 만들기 또는 도랑 파기를 하지 않는다.

5. Minimize Campfire Impacts 모닥불 최소화하기 ▲ 모닥불은 오지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다. 요리를 위해서는 경량의 난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을 사용하라. ▲불 사용이 허락된 곳에서 준비된 파이어 링, 파이어 팬, 또는 토판 난로를 사용한다. ▲불은 작은 상태를 유지하라. 오로지 손으로 꺾을 수 있는 지표면의 나무토막을 사용한다. ▲ 땔나무와 숯은 모두 재가 되도록 하고, 모닥불은 완벽하게 정리하며, 식은 재들은 흩뜨린다.

6. Respect Wildlife 야생동물을 존중하기 ▲야생동물과의 거리를 지켜라.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야생동물에게 음식물을 주지 마라. ▲ 애완동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거나, 또는 집에 두어라. ▲교미, 둥지 짓기, 새끼 키우기, 또는 겨울나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야생동물을 피한다.

7. Be Considerate of Other Visitors 다른 방문자들을 고려하기 ▲ 다른 방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준다. ▲예의를 지켜라. 탐방로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양보하라. ▲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만나는 탐방로에서는 내리막길 편에 선다. ▲ 휴식과 야영은 탐방로와 다른 방문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한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두어라. 되도록이면 큰 목소리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흑산도 자전거 여행

유배와 은둔의 섬

Heuksando,The Bluish-black Gem hidden away in the Waves of Exile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서울에서 목포까지 차로 4시간, 다시 목포에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이다. 푸르다 못해 검푸른 섬, 이 섬은 유배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정약전丁若銓, 1758~1816년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외로운 유배 생활을 이어나간 곳. 이 섬에 배어 있는 그들의 흔적을 좇아 자전거에 몸을 싣는다.

글 | 김경 칼럼니스트. 10년 넘게 패션지 <바자 Bazaar>에서 피처 에디터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 『셰익스피어 배케이션』 『뷰티풀 몬스터』 등이 있다.

사진 |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가. 한국전쟁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탐구 중이다. 2012년 '제11회 동강사진상'을 수상했다.

세상과 아주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고 있다. 목포항에서 뱃길로 92.7킬로미터 떨어진 유배의 땅. 아무리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감도는 산과 바다가 있다 하여 흑산도라지만 어딘지 좀 무서운 이름이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동생 정약용丁若鏞, 1762~1836년도,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형 정약전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이름이 무섭다고 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쾌속선에 싣고 흑산도로 향하는 내 마음은 아주 기껍고도 환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미천한 삶의 의무들, 불가능해져버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때문에 휴대폰을 귀에 대고 목청을 높여야만 했다. 배를 탄 지 얼마나 됐을까? 1시간 30분쯤? 내 의지와 달리 소란스럽게 살아온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다. 휴대폰의 수신 안테나도 이제 거의 체념한 듯 조용하다. 멍하니 파도 소리를 듣는다. 새삼 섬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는 사실이 설렌다. 그렇다. 나에게 이곳은 더 이상 유배의 섬이 아니다. 제 발로 단절과 고립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도착한 흑산도에서 난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조용히, 그러나 신나게 돌아다닐 거다. 그러다 지치면 해가 기울고, 별이 솟고, 달이 오르고, 구름이 뭉개지는 시간을 고요히 바라보고 싶다.

상라리 심이고갯길. 상라산에서 읍동마을로 이어지는 열두굽이길은 흑산도 일주도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고갯길 꼭대기에는 이미자의 애절한 음색으로 유명한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조성되어 있다. 상라산 봉화대나 건너편 흑산도 전망대에서 보면 각기 다른 굽이들과 풍경을 볼 수 있다.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참담하기보다 찬란한 유배의 땅

그런데 이 남자 재밌다. 배가 예리항에 도착한 후 인근 민박집에서 만난 다산문화유산 해설자 김기백 씨. 그가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에 대해서 어찌나 신명나게 얘기하던지 그 참담함이 싫어서 이번 여행에서 유배 코드를 배제시키고자 했던 내 마음을 돌려놓을 정도였다.

"정약전 선생이 훌륭한 게 자기는 입에 맞지 않아서 물고기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국가와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 사전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썼다는 겁니다. 그 생김새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라 그 효능까지도. 홍어 한 점에도 실학정신을 담아서! 게다가 흑산도에 유배 온 선비들이 섬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톱 클래스 과외 선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삼각이 아니라 십각, 백각 관계로 얽혀서. 우이도 사람들이 야밤에 흑산도 사람들 몰래 정약전 선생을 데려가면 흑산도 사람들이 다음날 급히 추격대를 조직해 다시 선생을 모셔올 정도였습니다. 유배 오신 선비들로부터 생긴 그 교육열 때문에 신안에서 훗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요. 하의도의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줄줄이. 그러니까 유배가 본인들한테 괴로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섬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문화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찬란한 유배의 땅을 먼저 자전거로 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흑산도는 해안선 길이가 41.8킬로미터에 이르는 제법 큰 섬이지만 2010년 완공된 24킬로미터 길이의 일주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주요 유배지와 마을, 그 사이사이 흑산도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경치를 둘러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넉넉한 휴식과 감상을 원한다면 적어도 5시간은 필요할 터였다.

배가 닿는 예리항을 기점으로 상라산 전망대로 오르는 그 유명한 열두 굽이 길을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섬을 일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길도 처음부터 만만하지가 않다. 100미터 남짓한 고개 두 개를 넘어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서 바람같이 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서니 해변 깊숙이 파고든 마을 천촌리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여티미라고 불렸던 곳으로 정약전과 함께 흑산도를 대표하는 큰 인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년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는 곳이다. 면암의 친필로 "기봉강산箕封江山 홍무일월洪武日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보니 웃음이 난다. 김기백 씨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로 우리 일행을 한참 웃겼던 일이 생각나서다. "면암이 와서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흑산도에 많이 유배를 왔는데 아쉽게도 이렇다 할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바위에 '기봉강산 홍무일월'이라고 '적'어 자취를 남기고 석동들에게 얼른 새기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바로 '적자! 생존'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웃는 것도 잠시. 폭 50미터의 아담한 해수욕장 '샛게'에서 잠시 쉬었다가 정약전 선생의 유배지가 있는 사리마을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꽤 길고 높은 고갯길이 시작된 거다. "굴리자, 생존! 영차! 영차!"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함께 자전거를 질질 끌며 올라간다. 그 와중에도 온갖 볼 만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이윽고 우리는 사리마을에 도착했다.

유배된 지식인의 삶이란

정약전은 이곳 모래미(사리의 옛 이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남서해안에 서식하는 155종의 물고기와 해산물을 채집해 어류학 총서 『자산어보』(최근엔 '현산어보玆山魚譜'라고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를 집필하였다. 나지막한 돌담과 작은 골목길에 둘러싸인 예쁜 마을을 둘러보며 흑산도에 갇힌 정약전의 마음이 오래도록 그렇게 참담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섬을 여행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책 장 그르니에Jean Grenier의 『섬Les Îles』에서 마침 이런 문구를 발견하며 그 확신은 더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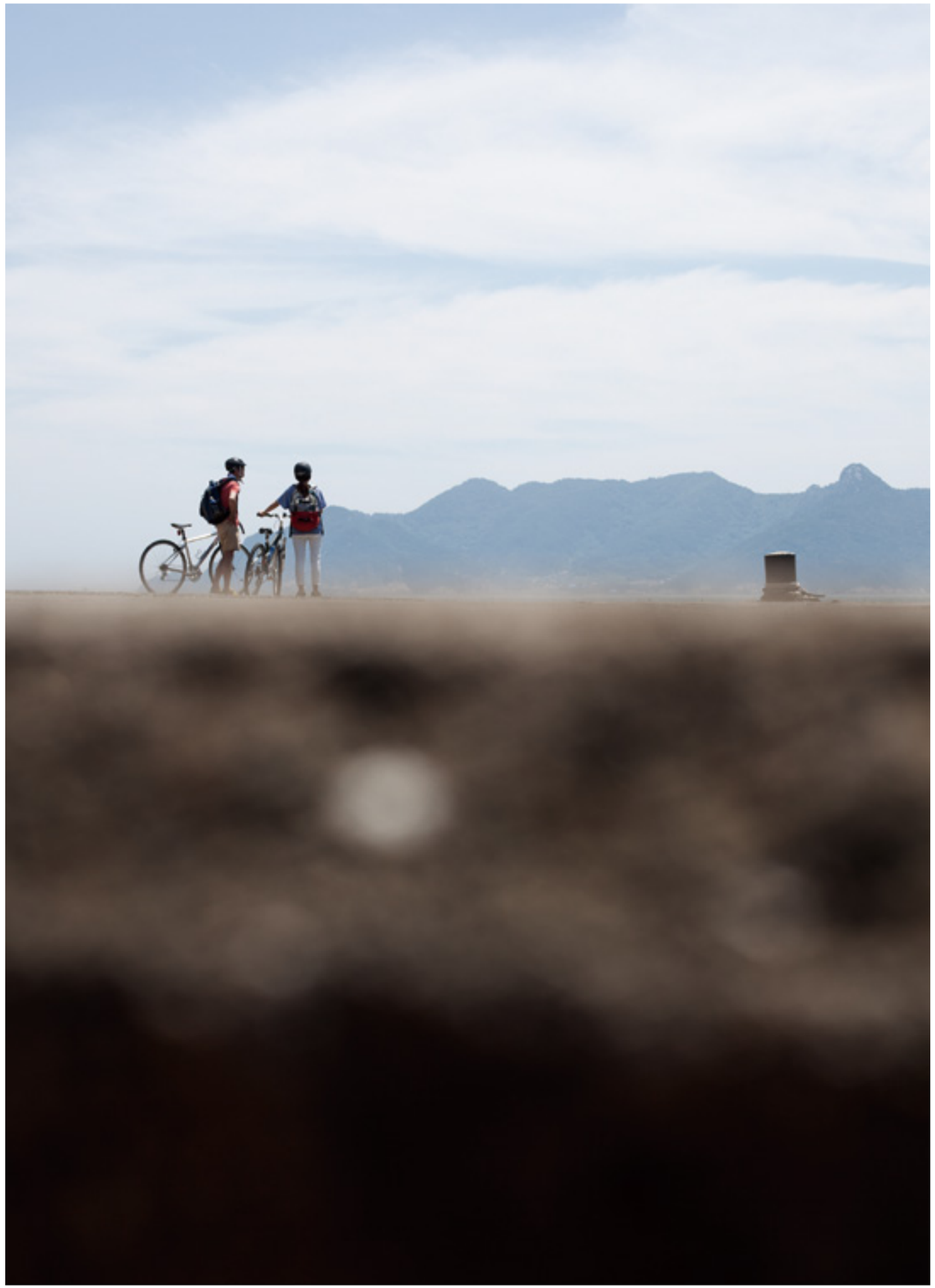
"인간의 삶이란 한갓 광기요, 세계는 알맹이가 없는 한갓 수증기라고 여겨질 때, '경박한'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내 맘에 드는 일은 없었다. 그것은 살아가는 데,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하루 잊지 않고 찾아오는 날들을 견뎌내기 위해서도 무엇이라도 좋으니 단 한 가지의 대상을 정하여 그것에 여러 시간씩 골똘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어쩌면 홀로 오래 있다 보니 더 깊어진 섬, 이 흑산도에 갇히게 되면서 비로소 온갖 인습과 차별로 닫혀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한계를 인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 정약용은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형님은) 상스러운 어부들이나 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귀한 신분으로서 교만 같은 것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섬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자기 집에만 있어 주기를 원했다." 기쁘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아이들과는 함께 서당에서 글을 읽으며 지체 높은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은 정약전이라는 지식인을 알게 되어. 더불어 "명예냐 불명예냐, 부유하냐 가난하냐와 같이 대체로 인간들을 구별 지어주는 관습적 차별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코미디다."라는 진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내친 김에 우리는 마을에 조성된 유배 공원도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봤다. 이 땅에 유배된 인물들의 죄명과 간략한 인물 소개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데 어떤 이의 죄명은 '해괴한 짓'이어서 그게 무엇일지 추측하며 우리 일행은 함께 웃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을까? 순전히 공간의 구속 외엔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자유로웠다 해도 그 치욕과 내면화된 분노에서 헤어나긴 어려웠을 것 같다. 이해가 간다. 전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느는 건 주량뿐! 정약전 선생이 술을 좋아해서 동생이 항상 걱정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하튼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했고 했을 것이다. 시나 소설 아니면 수필이라도. 하지만 흑산도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건 『자산어보』외엔 없다.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아닌 한 일본인 덕분에 그렇게 됐다. 나머진 잊히고 버려지고 망각되어 영원한 침묵 속에 잠겼겠지.

01 최익현 유허비. 면암 최익현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진리마을에 일신당日新堂이라는 서당을 세워 젊은 이들을 가르쳤다. 1924년 제자들이 그의 업적을 기려 천촌마을 입구에 '유허비'를 건립했다. '유허비遺墟碑'는 옛 자취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세우는 비를 뜻한다. **02** 사촌서당沙村書堂.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시절 사리마을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서당이다. 현재의 서당은 1998년 신안군에서 복원한 것이다.

*검을 현玄을 두 개 겹쳐 쓴 '玆' 자는 '자'와 '현' 두 음으로 읽히는데, '검다'는 뜻으로 쓸 때는 '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우성, 임형택 같은 한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산'은 '흑산'이라는 이름이 '듣기만 해도 으스스하여'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에 당연히 '현산'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자산어보'로 읽어 온 관행을 뒤집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리에서 심리로 넘어가는 한다령 고갯길은 일주도로 중 최고의 고비였다. 오르막이 길지 않지만 대신 엄청나게 '빡'세다. 거기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기록적인 더위. 시원한 바람까진 기대도 안 한다. 하지만 그늘도 거의 없으니 일분 일초가 아주 죽을 맛이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동자는 번들거리며 뼈와 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우리를 따라오던 촬영팀이 '이러다 일 나겠다' 싶었는지 트럭에 자전거를 싣고 상라산 전망대까지만 가자고 한다.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되는 제안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심리에서부터 '하늘도로'라 불리는 벽화 그려 놓은 구간을 지나 상라산 전망대까지 트럭을 타고 갔다. 섬을 자전거로 일주한다는 애초 계획에서는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 잡는 더위에 고집 부릴 일이 따로 있지.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있는 상라산 전망대에 올라 예리항과 주변 일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경치를 감상하며 한참을 쉬었다. 시원한 조망과 쭉 뻗은 지평선. 아기자기 절묘한 해안선들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야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전성기 시절의 이미자가 부르는 '흑산도 아가씨'와 '동백 아가씨'도 듣기 좋고.

그렇게 놀멍쉬멍 한참을 놀다가 예리로 내려가는 열두 굽이 길을 바라봤다. 내리막길이라고 얕잡아볼 경사가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길만큼은 꼭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고 싶다. 천천히 살살 온몸을 잔뜩 긴장하며 살벌하기 그지없는 고갯길을 내려간다. 괜히 어쭙잖게 기분을 냈다간 땅바닥에 얼굴이 그냥 처박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내달려 저 깊고 푸른 바다 속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살살 다스리며.

그날 밤 우리 일행은 찹쌀떡처럼 입에 착 달라붙는 싱싱한 홍어회에 막걸리를 마시며 이 흑산도에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은둔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누가 일부러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섬에서의 삶을 원할까? 그래, 연인들. 예컨대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택한 여자 <아이 엠 러브I am Love>의 엠마와 그의 젊은 요리사 애인이 이런 섬에 숨어들어 산다고 생각하면 더없이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거다. 흑산도와 우이도를 오가며 유배지에서 16년을 살았던 정약전에게도 첩과 두 아이들이 있었던 걸로 안다. 다행이었다 싶다. <은밀한 생Vie secrète>의 파스칼 키냐르Pascal Quignard가 그랬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품위를 손상시키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묻는다. 지금 사랑하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연인이 있냐고.

자전거 여행의 시작, 바이클로 biclo

장거리든 단거리든, 자전거로 길을 나서려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타이어에 바람은 안 빠졌는지, 체인은 문제가 없는지, 기어나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는지 등등. 자전거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고민의 가짓수는 훨씬 늘어난다. 자전거 편집 매장 '바이클로'는 이럴 때 찾기 좋은 곳이다. 전문가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느긋하게 내게 맞는 자전거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정찰제로 운영되는 정비 서비스도 믿음직하다.

특히 LS네트웍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바이클로 아카데미'는 일반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 교육, 라이딩 강습뿐 아니라, 실전 정비 교육, 매장 운영 노하우 등을 담은 전문가 양성 과정도 갖추고 있어, 자전거 마니아들은 물론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

수강 문의 02-3482-2882

www.biclo.co.kr.

동양인 체형을 고려한 루이가르노Louis Garneau 의 투어링용 자전거, LGS-GMT.

자전거, 현대미술에 소환되다

박물 가치를 획득한 두 바퀴 이동 수단

Two-wheeled Vehicle and its Acquired Value of Reference

미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미술이 되는 시대, 자전거라는 이동 수단은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시각예술로 자리 잡았다. 사람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기계의 속성 탓에 자전거는 특히 마니아들로부터 그 미학적 면모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 마니아인 미술평론가 반이정이 자전거의 감상 가치, 나아가 자전거의 박물博物 가치를 논한다.

글 | **반이정** 미술평론가. 원래는 배우를 꿈꿨다. <중앙일보> <한겨레21> <시사IN> <씨네21>에 미술비평을, <한겨레> <경향신문>에 시평을 연재한다. 자전거 7대를 타고 다니는 자전거 마니아다.

사진 | **김도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다. 스튜디오 에이 파트Studio A Part의 실장으로 다양한 매체의 패션 화보와 사진집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미술사는 자전거를 끊임없이 출연시킨 기록을 갖고 있다. 미적 실험의 매개로 자전거가 지속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외관의 원형인 세이프티 자전거Safety Bicycle의 등장 시기가 1880년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용 탈것으로 고안된 자전거로부터 감상 가치를 제일 일찍 추출한 예술가와 작품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자전거 바퀴Bicycle Wheel>일 것이다. 이 작품은 기성품 자전거의 바퀴 하나를 떼어내 의자 위로 거꾸로 꽂은 설치물이다. 이 자전거는 1913년 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상용화되기 이전이다. 아마 뒤샹은 철제 프레임 앞뒤로 달린 단 두 개의 바퀴만으로 기대 이상의 속력을 내는 이 기계에 탄성을 내지른 동시대인들 중 하나였을 테고, 자전거의 진행을 가시화하는 바퀴에서 탐미적 가치를 발견한 것 같다. (자전거)바퀴는 기능적 용도로 고안된 부품이지만, 자전거의 수행 능력은 예술품의 감동에 버금갈 만큼 우월했다. 뒤샹은 산업혁명을 거쳐 기계시대로 진입한 당대의 풍경을 자전거 바퀴 하나가 상징적으로 표상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913년(1951년 재제작)

자전거가 전하는 미적 감동

일상적 도구들을 용도별로 분류해서 전시해 놓는 건 디자인 박물관들이 흔히 쓰는 전시 공학이다. 무언가를 쥐는 용도별, 무엇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용도별, 무언가를 자르는 용도별로 사물을 분류하고 전시하는데, 예술품도 아닌 일상 사물 집합체가 주는 감동은 미묘하고 강하다. 그것은 사물의 기능을 최대치로 올린 합리적 설계를 향한 보편적 찬사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뒤샹의 <자전거 바퀴>의 감동 원리를 가장 쉽게 납득할 이는 강단 미술사가나 비평가가 아니라 자전거 마니아 그룹일 것 같다. 이들은 자전거 각 부품들의 공학과 미학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이해하는 주체가 아닌가. 필시 개인 운송 수단으로 제작되었지만 자전거와 일심동체가 된 탑승자라면 프레임, 바퀴, 핸들 따위의 자전거 부품들로부터 미적인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뒤샹의 작품이 그러하듯, 관람 대상으로 진열장 안에 세워둔 자전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 본질인 기동성이 박탈된 것이다. 그럼에도 자전거는 감상 대상이 될 만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자전거의 맹아 격인 드라이지네Draisine가 발명된 1817년부터 하이휠High Wheel의 시대를 거쳐 체인 구동을 채택한 현대적 자전거의 골격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의 역사는 꾸준한 세부적 변화를 동반하며 전진했지만, 자전거의 기본 구조만큼은 불변했다. 프레임과 두 개의 바퀴를 기본 구조로 하는 자전거의 미학은 단순성에서 온다.

드라이지네 Draisine
독일의 칼 폰 드라이스Karl Freiherr von Drais가 '말 없이도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개인용 이동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해 창안한 두 바퀴에 조향이 가능한 자전거. 1817년 6월 드라이스 자신이 14킬로미터의 주행을 시연했다. 아래는 1980년 독일에서 제작한 복제품.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라이트 로드스타 Light Roadstar
하이 휠 자전거의 일종으로 1888년 독일에서 제작한 제품이다. 크로스 스포크 Corss Spokes 패턴과 할로우 림Hollow Rims이 특징이다. 그 덕분에 차체가 경량화되었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자전거 역사의 원형, 빈티지 자전거

자전거의 최초 원형으로 곧잘 오인되는 하이 휠은 뒷바퀴에 비해 앞바퀴의 지름이 비대칭적으로 큰 골동품 자전거를 칭하는데, 높은 안장 위치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두 개의 원형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단순성을 가시적으로 웅변하는 상징물처럼 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도로 사정에선 주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소량 생산은 계속된다. 이는 하이 휠만의 고유한 미관을 향한 향수 어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200년에 가까운 자전거 진화 여정의 원점을 향한 숭배와 경외가 하이 휠에 투영된 현상일 것이다.
하이 휠이 두 발을 공중에 붕 띄우는 높은 안장 덕에 잦은 사고 위험과 직면했어도 설계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계급의 문제 때문이었다. 자전거 라이더라면 금세 이해할 것이다. 자전거에 올라타 주행할 때 보행자보다 살짝 높은 시선을 보장받는 쾌락을. 높은 시선은 형언하기 힘든 우월감을 안긴다. 일반 자전거도 그런데 하물며 하이 휠은 오죽하랴. 라이더의 위치가 낮은 것을 품위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 하이 휠의 시대정신이었다. 실제로 하이 휠

은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19세기 후반 중상류층의 계급 과시용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자전거처럼 저렴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관람 가치가 높은 사치재였던 셈이다. 그러나 자전거의 진화는 대중의 보편적 수요에 맞춰 전개되게 마련이다. 낮은 차체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의 자전거처럼 체인으로 구동하는 세이프티 자전거가 하이 휠의 귀족시대를 몰아내고 1890년대를 평정한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세이프티 자전거의 기본 프레임은 남성용에 맞춰 제작된 것이다. 이후 양성 평등에 대한 배려가 세이프티 자전거의 기본 설계에도 반영된다.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잇는 톱 튜브는 치마를 기본 복장으로 채택했던 당시 여성에겐 승차를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이런 난점은 두 가지 상징적인 변화로 해결된다. 하나는 자전거 프레임의 변화, 다른 하나는 여성 의복의 변화. 둘 모두 결과적으로 여성권을 신장하는 결정이었다. 먼저 의복 변화부터 보자. 빅토리아풍 드레스를 대신하여 터키풍 바지나 블루머로 난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여성을 옥죈 보수적 의복사에 일대 개혁을 가져온 공로가 자전거에게 돌아가는 순간이다. 치마를 입고도 불편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톱 튜브를 앞바퀴의 굴곡에 맞춰 유선형으로 구부린 로우스텝 프레임Low-step Frame도 고안되었다. 치마를 입고도 라이딩에 큰 무리가 없도록 배려한 설계다. 이처럼 고전미 넘치는 검정 도색의 U자형 프레임을 채택한 유럽형 자전거를 통칭하여 슈타츠피츠Stadsfiets나 오마피츠Omafiets라 부르며, 오늘날도 여전히 인기리에 생산되는 모형이다.

예술과 등가의 사물

"물건은 그 본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전방위 예술가 라슬로 모호이너지Laszlo Moholy-Nagy의 경구를 따를 때, 자전거의 본질은 마차馬車를 저렴하게 대용하는 인간 동력에의 욕망에서 출발한 발명품이다. 오죽하면 자전거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1817년 발명품 드라이지네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빠른 발'을 뜻하는 라틴어 벨로시페드Velocipede이겠는가. 한편 운송에 주안을 둔 칭호와는 달리 시각예술이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재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감상 가치 나아가 박물 가치를 이 두 바퀴 탈것이 지닌다는 의미이다. 인체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기계의 속성 탓에 감정이입도 쉽게 이뤄진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자전거를 미학적 감성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전거 마니아일 공산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감정이 침투한 일상 오브제는 예술로 변한다.

빅토리아 Victoria
슈타츠피츠 자전거의 일종으로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럭셔리 자전거다. 광폭 타이어와 가죽 안장을 사용했고, 크롬 도금이 되어 있으며, 카바이트 램프가 장착되어 있다. 1930년 독일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인들의 치맛자락이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뒷바퀴 위에 천을 씌워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두바쿠 Bicycle Gallery

이 지면에 소개된 자전거들은 LS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두바쿠 Bicycle Galle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용산타워 2층 로비에 마련된 이 갤러리는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전거 유물들을 20대씩 교체 전시하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관람 문의 : 02-799-7169

통영과 고성에서 만난
두 명의 전통 예인, 정영만 · 이윤석

통영 앞바다 피리 소리에 한 광대 어깨를 들썩이니

A Dancer Tuning in to the Sound of *Piri*, at the Seaside of Tongyeong

통영 앞바다를 마주한 바다 굿의 마지막 제사장이 하염없이 넋을 부른다. 고성오광대를 이끄는 한 농사꾼이 호젓한 숲에서 춤사위를 펼친다. 춤과 소리를 좇아 오랜 세월 전국을 누비며 도처의 예인들을 찾아내 무대 위에 올려온 전통공연 연출가 진옥섭. 그가 신산스런 삶 속에서도 탁월한 기예를 이루고 지켜온 예인藝人들의 삶과 예술로 우리를 인도한다.

글 | 김뉘연 <마담 휘가로Madame Figaro><마리 끌레르Marie Claire>등의 잡지에서 피처 에디터로 글을 썼고, 열린책들과 문예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현재 독립잡지 <버수스Versus>를 만들고 있다.

사진 | 이한구 다큐멘터리 사진가. 텐산산맥의 칸텡그리,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을 등반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서촌에서 사진 위주 갤러리 류가헌을 운영 중이며, 그곳에서 사진전 <소소풍경小小風景>을 열었다.

길잡이 |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한국문화의집(KOUS) 예술감독. 2006년 <풍물명무전>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북치고 장구치고』『명인에게 길을 묻다』『노름마치』 등이 있다.

“이제는 피리도 못 불고…. 마 생긴 건 더럽게 생겼어도 주둥이는 살아 있습니더(웃음).”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그 보유자인 대사산이(악사를 가리키는 ‘산이’들 중 ‘큰 자’를 일컫는 통영식 표현) 정영만은 통영 전통문화의 핵심이자 원형인 바다 굿의 마지막 제사장이다. 그러나 위엄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형님은 인간문화재가 아니라, 인간문제!” 진옥섭이 거든다. 1993년 대전엑스포 때 진옥섭은 놀이마당 연출을 맡았는데, 우연히 정영만의 어린 제자의 공연을 보고 반해, 예정에 없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었다. 정영만은 그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예인이었기 때문에, 진옥섭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 서류에 스승의 이름을 기입하면서 정영만 대신 다른 유명한 예인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했다. 그러자 이 일을 안 정영만이 대뜸 전화를 넣어 “죽인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고는 진짜로 찾아왔다. 신문지에 회칼을 싸서 품은 채. 그 일이 진옥섭의 너스레 덕에 한 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형님 동생이 된 지 한 세월이다. “늙은 놈은 하작하고(하자고 하고) 젊은 놈은 말작하고(말자고 하고)…. 이제는 굿을 하는 이도, 듣는 이도 없으니. 무용 반주나 하는 신세입니더.”

01 정영만은 본가에 들러 오래 소장해온 선조들의 무복을 보여주었다. 저고리 뒤의 화려한 흉배는 200년 정도 된 것으로, 궁중에 출입했다는 증거다. 이 중 한 벌은 통영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02** 올림굿을 시연하는 무녀의 뒤로 명멸해간 정씨 무가의 조상들과 예인들의 영정이 보인다.

통영 세습무의 마지막 대사산이, 남해안별신굿 보유자
정영만

통영 망일봉. 조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장군 동상이 우뚝 선 항구 끝, 남해안별신굿 전수회관. 정영만은 이곳에서 가업을 잇고 있다. 11대째다. 1956년생인 정영만은 통영 풍화리 출신이다. 세 살 때 통영 신청神廳(무당 교습소)에 보내졌고, 여덟 살에 굿판에 섰다. 피리를 유독 잘 불어 명인들의 총애를 받았건만 또래에게는 한낱 ‘무당 새끼’일 뿐이었다. 어린 마음에 남쪽의 유일한 세습무 집안이라는 자부심은 스며들 틈이 없었다. 어머니마저 “무당 밥은 이가 아파 못 씹는다.” 했다. 그예 별짓 다 하다 택시를 몰며 ‘아무 생각 안 하는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정영만은 결국 다시 피리를 불게 됐다. 남해안별신굿 최고 무녀, 왕고모 정모련의 설득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으로 다가왔다. 1987년 7월 1일,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날 우연히도 남해안별신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후 보유자들이 줄줄이 세상을 떴다. 1996년 5월 1일, 정영만은 남해안별신굿 보유자가 됐다.

전수회관의 큰 방에 들어섰다. 무대 뒤 벽장을 여니 사진이 즐비하다. “이분은 초대 보유자, 그 옆은 큰외삼촌과 작은외삼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리고 명기名妓 고영숙, 이분께 소리와 춤을 배웠는데….” 남해안별신굿은 신 내린 강신무降神巫가 아닌, 대대로 무당 신분을 물려받은 세습무世襲巫가 주관한다. 1년을 여는 정월에 시작해 3월까지 이어졌던 마을 굿이 오롯이 전수되는 집안은 현재 정씨 무가가 유일하다. 그리하여 자식 삼남매도 한 길을 간다. “거부하면 호래자식이지….”

정영만은 이날 본가에 들러 벽장 속 귀한 물건들을 풀어놓았다. 무복巫服이다. 정조正祖 때부터 물려 내려온 것들을 상할세라 고이 싸두었다. 또한 증조할머니가 쓰시던 댕기 머리와 고려시대 푸른 구슬이 달린 큰머리, 두드려 편 방짜 신칼 두 벌(거꾸로 들어 잡신을 물리친다.)과 깨진 놋쇠방울(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망개나무 열매를 상징

하며,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 공명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학, 신선, 나비, 꽃밭 등 극락세계가 그려진 부채(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로 바람을 일으킨다. 남해안별신굿에서는 '상돈'을 부채 위에 받는다. 무녀 몸 구석구석 돈을 찔러주며 은근슬쩍 손대는 추태를 금한다는 의미다.), 숟가락 모양의 비녀…. "이렇게 직접 무가의 증거물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집안은 형님 댁밖에는 없지요." 진옥섭이 말을 보탠다.
정영만을 스승으로 모시며 수련을 받는 이가 짤막한 올림굿을 시연해 보였다. 요즘이야 제대로 굿판을 벌여도 서너 시간이면 너끈하지만, 옛날 굿은 복잡했다. 작은 굿 한 번에 장단이 열 번은 족히 변했다. 일종의 축제였다고 할까. 또한 당시 무당은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이었다. 그리하여 온 동네가 정신없이 몰려 구경했던 그 자리는, 공식적으로는 귀신을 먹이되 실은 곳간 문 활짝 열고 너와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판이었다. "굿이란 세상의 흥망성쇠와 진배없지요. 잘하는 이가 있으면 자연히 흥하게 되는 것이니." 무녀의 올림굿을 보며 한판 걸게 노는 무당들이 등장해 고수들조차 입 벌린 채 쓰러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염원을 품어 본다.

무가巫歌의 반주를 시나위라 한다. 여기에는 악보랄 것이 없다. 정영만이 무용 반주로 구음口音(악기의 음을 입으로 흉내 내 읽는 소리)을 할 때마다 애써 채록해봐야 소용없다. 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전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된다. 그러니 악보란 음악의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살아 있는, 야생의 음악.
정영만은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1995년 3월 1일 독도에서 열렸던 위령제를 꼽는다. "내가 어떻게 구음했는지, 어떻게 피리를 불었는지, 나중에 녹음을 들어보고야 알았습니더." 독도 앞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 못다 핀 청춘들. 넋을 부르는 자리. 이날의 구음 또한 '넋풀이'였다. "넋이로다…. 가다오다 죽은 영혼들이 있거들랑…." 종일 들뜨고 왁자했던 마음자리가 숙연해진다.

"음이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하는 법이니"

그러나 아는 이는 다 아는 그의 장기는 피리다. 못 다루는 타악기가 없고 대금과 가야금 연주도 일품이지만 그 중 피리는 고단수다. 잘 부는 것뿐 아니라 잘 만든다. "형님이 지게에 징을 걸고 왼손으로 치며 오른손으로는 피리를 부는 것을 보고 깨달았죠. 여기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요즘은 피리를 통 불지 못하세요. 그놈의 병(근무력증) 때문에."
굿판에서 피리, 해금, 대금 중 가장 많이 불려 다니는 악기가 바로 피리다. 아니, 실은 우리나라 모든 악기를 피리가 조종한다. 정악과 무악(굿) 모두에서 피리 가락이 주선율을 이룬다. 정영만은 피리만큼은 왠지 항상 자신이 있었다. 평생 칭찬에 인색했던 스승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한 마디를 남기셨다. "니 잘한다." 그래서일까. 관객 앞에서 평생 떨어본 적이 없다. "탁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연주에 애먼 감정 싣는 거, 난 싫습니더. 연주가 별로라면 박수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중간에 미쳐 날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구음이란 잔잔한 음악입니더. 그 가운데 마음의, 내면의 흥분이 있는 겁니더."

01 정영만이 무녀의 무구를 설명해주고 있다. 놋쇠방울은 자손의 번창과 부귀공명을 기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02 이윤석은 부지런한 농부이자, 견실한 예인이다. 난봉과 방탕으로 평판이 나빴던 고성오광대패를 바로잡았다.

고성 농사꾼의 덧배기춤 한마당, 고성오광대놀이 보유자 이윤석

03 취재진이 방문한 그날, 구 전수관 옆에 새로 지어진 고성 오광대놀이 전수관에서는 학생 전수생들이 연수를 마치고 최종 공연을 선보였다. 멀리 독일, 벨기에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설익었으나 흥겨운 한판이었다.

통영 앞바다의 소리를 등지고 향한 곳은 고성 농사꾼의 춤판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놀이 보유자인 이윤석은 실한 농군이다. 훌쩍 큰 키에 신수가 훤해 언뜻 선비의 풍모를 풍기는 그는 이제 막 토마토 농사를 끝내고 고구마 농사를 시작했단다. "저분이 고성 농사꾼들의 선지자(?)예요. 저분이 수박을 지으면 그 해는 토마토가 잘됩니다. 토마토에 손을 대면 수박이 잘되고, 동시에 일구면? 안개꽃이 더 비싸(웃음). 그러니 고성에서는 저분 가는 길만 피하면 부를 볼 수 있다고들 하죠." 전국 예인들을 쫓던 '그지' 시절 고성에서 오래 묵었다는 진옥섭이 설을 푼다. 선지자의 뒤꽁무니를 따라나섰다.
경상남도 고성의 장산 숲. 아담한 크기에 호수까지 겸해 아취를 즐길 만한 명당이다. 흰 모시 저고리에 바지를 갖춰 입은 이윤석이 멀찍이 서서, 두 팔을 든다. 몸을 기울였다 편다. 몸통과 팔다리로 큼직한 밑그림을 그리더니 손끝, 발끝을 우아하고 세심하게 까닥인다. 덧배기춤. 덧배기란 원래는 경상도식 자진모리장단을 일컫는 말로, '사내들이 마당에서 추는 춤'으로 통한다. 특별한 격식 없이 추는 허튼춤. 이윤석의 덧배기춤은 고성오광대놀이의 주요 춤사위를 즉흥적으로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탈춤'이란 원래 황해도에서 쓰던 말이다. '탈을 쓰고 춤춘다, 논다.'는 뜻이다. 중부지역에서는 이를 '산대놀음'이라 불렀다. 산대山臺란 큰길가나 빈터에 마련한 임시 무대를 가리킨다. 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후 경복궁으로 돌아갈 때의 오락거리를 위해, 현재의 광화문 교보문고 자리에 어마어마한 무대가 불야성을 이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사신들이 의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길이 있다. 그런데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서울 가는 길은 눈썹도 무겁다.' 했다. 그리하여 이 고단한

길을 사신들이 내려오다 쉴 때, 그들을 위해 놀이를 벌인다. 또 다른 산대놀음이다. 그러다 산대들이 사라지고, 광대들이 남았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를 둘로 나누고 각기 좌도(동쪽)와 우도(서쪽)라 했다. 경상 좌도 쪽에서는 탈춤을 '야유野遊', 즉 '들놀이'라 불렀다. 우도 쪽에서는 '오광대'라 했다. '오방심장(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상징하는 광대 다섯 명이 추는 춤이기에 그렇기도 했고, 전체가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그렇기도 했다. 그리하여 남쪽에서는 통영 · 고성 · 가산 오광대놀이가 유명하며, 그 외 북청사자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강릉단오제 관노놀음 정도가 남아 있다.

고성오광대놀이는 쌍벽으로 유명하다. 조용배趙鏞培와 허종복許宗福. 두 사람의 행적을 알고 나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윤석의 두 스승이다. '조 한량' 조용배는 이윤석 회장 부인의 사촌오빠다. 한편 조용배와 대척점에 선 허종복 또한 그와 처남 매부 지간이었다.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 대조를 이루는 이들의 일화는 파란만장하다.
탈춤은 유별난 선수가 나타나면 발전하고 특별한 후예가 없으면 사그라진다. 조용배는 유별났다. 서화에 능했고 단소를 잘 불었다. 탈춤까지 멋들어지게 추었으니 삼박자를 꿴 셈이다. 전국을 떠돌다 술 진탕 먹고 자리가 파할 때쯤, 춤을 춘다. 그러고는 커튼을 뜯어 사군자 하나를 그려주면, 주인이 술값도 안 받는다. 그저 다시 오라고만 신신당부한다. 왜? 사군자 세트를 맞춰야 하므로. 허종복은 농사꾼임에도 종일 읍내 권번에 가서 춤만 췄다. 그러니 논이 피, 즉 잡초로 무성할 밖에. 온 동네가 수군대자 허종복은 달밤에 피를 뽑으러 다녔다. 알고 보면 안팎을 갈고닦는 성실한 고수였다.

나를 버린 채 춤을 추다

01~02 이윤석은 멀리서 찾아온 객들을 위해 고성 장산숲에서 덧배기춤 한 자락을 보여주었다. 악사 대신 진옥섭이 입으로 장단을 맞춰주었다. 한동안 그의 몸과 진옥섭의 입이 어울려 놀았는데, 보기도 좋았고 듣기도 좋았다.

03 진옥섭이 이윤석의 옆에서 입으로 몸으로 장단을 맞춰주고 흥을 돋궈주고 있다. 우리 전통 예술계에 그가 없었다면 기생, 무당, 광대 출신의 많은 뛰어난 예인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소리 없이 스러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극과 극의 스승 둘을 두루 모신 이윤석은 허종복의 뒤를 이어 고성오광대 보존회를 이끌며 버젓한 단체로 거듭나기까지 솔선수범해왔다. "오광대라는 놀이 자체는 재미나고 좋지만 구성원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참….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결심했지요." 처음엔 이윤석의 부인 또한 결사반대했다. 스무 살 때 중매로 만나 아이들 잘 낳고 집밖에 모르던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후 어느 날 오광대를 한다고 나섰으니. 그러나 이윤석은 춤 외에 다른 것에는 일절 한눈을 팔지 않았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나한테 말 한 마디 못 붙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대뜸 안녕하든 안 하든 내 상관이지, 니가 무슨 상관이가, 쏘아붙였으니까. 아예 근접을 못 하도록."
타고난 '선비'에게 방금 춘 덧배기춤에 대해 묻자, 일갈한다. "춤에는 좋은 춤이 있고 나쁜 춤이 있는데, 좋은 춤(경상도 사투리로 '침'을 의미)은 꿀떡 삼키고 나쁜 춤은 뱉는 것이라니." 농담인 듯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내는 춤을 전공한 사람도 아이고, 스승들 뒷바라지하면서 배우다 이제 안 계시니 하는 것이지. 춤이란 자신도 모르게 추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뒤풀이 자리에 가보라. 다들 스스로 미쳐 가지고 추는데, 못 추는 사람이 없다. 지 신명에 지가 겨워 추어지는 몸짓들이 자연스럽거든. 그게 제일이다."
탈춤이란 태생이 서글픈 춤이다. 탈바가지를 뒤집어쓴 순간 남녀노소를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나를 버린 채 추는 춤을 평생 추어온 고수의 대답답다. 평생 농사꾼의 삶을 지켜온 춤꾼의 대답답다. 그렇게 고성오광대의 춤은 이어져간다.

이세구의 가을 여행

젊은 나그네의 느리게 걷기

The Young Wanderer's Slow Landscape

정선鄭敾 <소년행락少年行樂>, 지본수묵, 18.8×29.8cm, 18세기, 간송미술관 소장.
젊은 날의 즐거움을 노래한 이백李白의 「소년행少年行」을 화제로 그린 것이다.

진정한 여행은 지나간 과거에나 존재했던 것 아닐까. 사람들은 대개 걸어서 먼 길을 오갔고, 관료와 부자만이 말과 나귀를 타거나 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운송수단조차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느렸다. 달팽이처럼 천천히 낯선 곳의 자연과 사람과 풍물을 체험하는 느린 여행이야말로 여행의 본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과객過客, 혹은 나그네라 불린 여행객들이 전국 곳곳을 쏘다녔다.

조선 후기의 문신 김상정金相定, 1727~1788년은 말을 타고 500리 길을 떠나는 느낌을 「나그네客子」란 시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닭이 울어 길 떠나는 나그네의 客子聞鷄發
말 머리로 북풍은 몰아치는데 馬首北風起
문을 나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出門何所之
찬 날씨 오백 리 길 앞에 뻗었네 寒天伍百里

강 건너니 모래는 얼굴 때리고 渡江沙撲面
들 건너니 빗줄기는 옷깃을 치네 涉野雨打衣
기나긴 길 하나같이 이러할 테니 長路正如此
나그네는 어느 때나 돌아올 텐가 旅遊幾時歸

수풀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林藪忽冥冥
물 저편 주막집은 외롭게 있네 隔水野店孤
안장 내려 사립문을 두드릴 때에 下鞍叩柴扉
초승달은 산모퉁이에 벌써 떠 있네 初月已山隅

먼 옛날 여행길의 풍경과 과객의 행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과객이라면 겪었을 평범한 풍경이요 체험이다.

글 |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 후기 한문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벽광나치오』 『선비답게 산다는 것』 『정조의 비밀편지』 등의 저서가 있다.

『석당유고石堂遺稿』. 조선 후기의 문신 김상정의 시문집. 총 6권으로 55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객자」는 권4의 첫 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아버지의 부임 행차를 따라가다

그리 유난스럽지 않은 한 과객이 있다. 양와養窩 이세구李世龜, 1646~1700년란 선비다. 그는 20대를 막 넘겨 충청도 부여군 일대를 여행했다. 평생의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여행이었다. 양와가 누군가? 이항복李恒福, 1556~1618년의 증손이자 영조英祖, 재위 1725~1776년 때 영의정으로서 소론少論의 영수였던 이광좌李光佐, 1674~1740년의 아버지다. 이 명문가 청년이 스물한 살 되던 1666년 가을에 아버지 이시현李時顯, 1622~1678년을 따라 길을 나섰다. 아버지가 부여 옆에 있는 홍산의 현감으로 부임하자 책방冊房 도령 신분으로 따라나선 것이다. 당시로서는 낯선 곳을 여행할 절호의 기회였다.

지금은 반나절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며칠이나 걸렸다. 남산 밑 회현동에 있는 집을 나서 한강을 건너고 양재역에서 잠을 잤다. 양재역을 새벽에 출발하여 오산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청했다. 그리고 성환과 공주를 거쳐 홍산으로 들어갔다. 당시 공주로 가기 위해서는 천안 광덕산 밑을 거쳐 차령산맥을 넘어야 했다.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현재의 국도는 옛날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궁원을 넘어 공주로 들어가는 고개에서는 비를 맞으며 고생하기도 했다. 서울 샌님인 그에게 홍산으로 가는 길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긴 여행이었다. 원님의 부임 행차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힘들 것도 없으련만 "먼 길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다."며 먼 길 가는 고생됨을 토로했다. 물론 여행의 흥분도 없지 않았다. 그런 기분은 그가 쓴 십여 편의 시에 보인다. 이때 쓴 시가 평생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다.

가을에 홍산에 도착했으니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무량사부터 찾았다. 지금도 부여에 온 관광객이라면 꼭 찾아가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년의

얼이 서린 절이다. 이상하게도 그는 절이라고 하지 않고 김시습의 서원書院을 배알했다고 했다. 김시습의 영정은 옛것과 그걸 새로 모사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름 젖은 표정의 옛 영정에 절을 했다. "비분강개하여 마음은 늘 격정에 휩싸였고, 발광했어도 기상은 절로 웅장하였던(慷慨心常激 猖狂氣自雄)" 매월당의 내면에 서린 우수를 그는 그림 속에서 읽어냈다.

"한평생 여행 가운데 제일이니"

홍산은 부여의 왼편에 바짝 붙어 있는 고을이다. 지금은 부여군에 하나의 면으로 편입되어 있다. 양와는 도착하자마자 백제의 옛 유적을 마음껏 볼 기회를 만들었다. 친척들과 함께 백마강을 따라 며칠 동안 배를 타고 대왕포와 조룡대 등을 구경하고 공주로 가서 낙화암과 고란사에 올랐다. 가는 곳마다 시를 남겼다. 지금은 하루 이틀 관광하면 충분하지만 당시에는 서울에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잡아야 구경할 수 있는 코스였다. 그래서 이곳을 관광하고자 찾아오는 나그네는 매우 드물었다. 한창 가을에 옛 역사의 정취가 서린 곳을 돌면서 그는 "한평생 여행 가운데 제일이니 신선계도 아름다움을 독점하진 못하리라(平生遊最冠 仙界美難專)."라며 그 일대의 풍광을 찬미했다. 더 많은 명승지를 보지 못한 시절에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인상적인 풍광을 갖추고 있었나보다.

여행의 백미는 보령 바닷가에 있는 충청 수영을 찾아간 일이었다. 그는 친척들과 함께 남포를 거쳐 대천해수욕장에서 가까운 수영을 방문했다. 서해안 일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난 곳이다. 내륙 깊숙이 광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마치 큰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듯한 풍광을 연출한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풍경도 건축물도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바닷가 모서리 절벽에 자리한 수영은 강과 바다와 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관을 뽐냈고, 특히 그 일부인 영보정永保亭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 중 하나로 이름이 높았다. 지금도 그 유적 중의 일부가 남아 있다.

가까운 곳에 명승을 두고 구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촌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수영에 도착한 양와를 맞이한 이는 신여철申汝哲, 1634~1701년 장군이었다. 조선 후기의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인 그는 수군절도사로 막 부임해 있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서른세 살에 불과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명장 신립申砬, 1546~1592년의 증손이었고, 양와는 전란을 극복한 일등공신 이항복의 증손이었으니 둘의 만남은 감개무량한 것이었다.

강세황姜世晃,<영통동구도靈通洞口圖>,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에 수록, 종이에 수묵담채, 32.8×53.4cm, 1757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인 강세황의 작품으로 『송도기행첩』의 일곱 번째 그림이다. 지금의 개성 부근에 있는 오관산 영통동으로 향하는 길목 풍경을 그린 것으로, 한 과객과 그의 시동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입구를 꽉 채우고 있다.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기에 신여철은 특별한 연회를 베풀었다. 이른바 화희火戲였다. 지금 화희라면 불꽃놀이를 말하지만 이 화희는 현재도 진주 남강에서 축제의 주축을 이루는 유등油燈놀이에 가깝다. 양와는 신여철이 베풀어준 놀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풀짚 방석 수백 개를 만들고 그 위에 모두 관솔불 한 자루씩 묶어서 배에 실었다. 상류까지 올라가 차례로 물에 띄우자 큰 포구를 가로질러 내려오니 그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유등의 본래 모습이 그러했을 것이다. 호수에 어리비친 유등과 더불어 술과 군사들의 호쾌한 검무가 이어졌다. 기분이 도도해진 양와는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냈다.

『양와집養窩集』. 이세구가 지은 시문집으로 총 13권으로 되어 있다. 유등 놀이를 보고 지은 양와의 시는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함윤덕咸允德, <기려도騎驢圖>, 『화원별집畵苑別集』에 수록, 비단에 수묵담채, 15.6×19.2cm, 1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전기의 문인화가 함윤덕의 그림으로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점이 이채롭다. 등 위의 무게를 못 이겨 간신히 버티고 있는 듯한 나귀와 무심하게 상념에 골몰해 있는 듯한 선비의 모습이 익살스럽다.

장군이 밤에 바다를 내려보니 將軍夜臨海
성 위에는 불에 비쳐 깃발이 붉다 城上火旛紅
북소리는 하늘 밖에 둥둥 울리고 鼓角殷天外
누대는 거울 같은 물에 어른거린다 樓臺落鏡中
술동이 열어 손님에게 가득 내오고 開尊供宴賞
검을 치며 호걸임을 사뭇 뽐내네 擊劍詑豪雄
서생이 기운 없다 비웃지 마오 莫笑書生拙
술 석 잔에 무지개처럼 기운이 솟네 三杯氣似虹

양와가 본 풍경은 상상만 해도 멋지다. 그는 다음날 이순신李舜臣, 1545~1598년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도 한 척 구경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표시하고 배를 타고 지금의 대천 앞바다 일대를 두루 구경하고 돌아갔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가을이 무르익던 무렵 한 과객의 특별한 여행길이다.

048 Directions 변 앞에서 말하다 함께 걸었던, 함께 가야 할 | **052** Talk 01 건축이 말하다 길을 걷다, 집을 짓다 | **057** Talk 02 문학이 말하다 시는 걷는다, 네 종류의 리듬으로 | **085** Talk 03 미술이 말하다 그럼에도 걸어가라, 그것이 인생이다 | **090** Talk 04 음악이 말하다 솔롱고스의 새벽 산책길에 사운드트랙은 흐르고 | **096** Soul Place 좋은 것, 그 생각 사람 이상, 사랑 이상, 꿈 이상 의 그곳

Power Talk 영화가 많이 말하다 **062** Interview & Innerview 영화감독 임권택을 만나다 | **070** Review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 대하여 | **074** Road Movies of the World 세계의 로드 무비들 | **084** Just One Scene 한 장면 <서편제> Scene 41.

Section 2

Talk

Special Theme :
Walk & Think

© 그레이

어느 길에 대한 추억

함께 걸었던, 함께 가야 할

Sharing the Trail of Reminiscence

한 사내아이가 한 계집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계집아이가 한 사내아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학교에 가려면 사내아이는 언덕 위에서 내려와야 했고, 계집아이는 언덕길을 올라와야 했습니다. 두 길이 만나는 데서 오른쪽으로 꺾어 서른 걸음쯤 가면 거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파란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철제 교문이 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글 | 정진홍 종교학자.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울산대 석좌교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로 있다. 『종교학개론』『종교문화의 이해』『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등의 책을 펴냈다.

정동에 '밀크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넷이서 매주 수요일에 거기 모였습니다. 여학생 둘, 그리고 남학생 둘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네 명은 읽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 학생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남학생은 마포에 있는 집으로, 한 여학생은 서대문에 있는 자취집으로, 그리고 또 다른 여학생은 돈암동에 있는 집으로, 또 다른 남학생은 신설동에 있는 가정교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차비를 아끼려고 그 남학생은 늘 신설동까지 걸어갔습니다. 돈암동에 사는 여학생이 같이 걸어주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둘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신설동에서 돈암동 가는 길로 들어서는 어귀에 이르면 둘은 헤어졌습니다. 여학생은 거기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군에 입대하던 날, 남학생은 여학생으로부터 헤세Hesse의 『싯다르타Siddhartha』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뜻밖에 타고르Tagore의 「기탄잘리Gitanjali」 중 한 구절이 씌어 있었습니다.

저를 조금만 제게 남겨주십시오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e
그것으로 당신을 제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whereby I may name thee my all.

우리 같이 가자!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학 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어? 나도 네가 전학을 오기 전 학기에 전학을 왔거든."
"난 홍성에서 살았어. 넌?"
"홍성이 어디야?"
남자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울을 그리고, 천안을 그리고, 대전을 그리고, 태안반도를 그리고, 여기쯤이 홍성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나는 선산에서 살았어. 선산이 어딘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가 그린 그림에 이어 부산을 그리고, 대구를 그리고, 포항을 그리고, 영천을 그리고, 구미를 그리고, 선산을 그렸습니다.
둘은 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를, 전쟁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다녔는지를. 종이 위에는 두 개의 줄이 어지러이 여기저기 그려졌습니다. 둘은 만날 듯 가까이 있다가 사뭇 멀리 떨어지기도 했고,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서른 해 가까이 걸어오다 지금은 한데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 멀고, 게다가 언덕길이었는데…."
그러자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나야 늘 신났지! 집에서 학교까지 쉬지 않고 언덕길을 달려 내려갔으니까. 그때 나는 바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너는?"
"그래도 집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을 거 아냐?"
"그거야 그렇지만 다시 뛰어 내려갈 것을 생각하면…."
"나는 늘 행복했어! 들꽃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새소리도 듣고…. 가끔 뱀이 지나가는 것도 보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자.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신설동 가는 길 걷듯이!"

길을 잃는다는 것

늙은 사나이가 차를 몰았습니다. 자라던 마을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마냥 여기저기 걷습니다. 그런데 들판과 산, 그리고 마을로 이어지는 세거리 끝 언덕 위의 집에 다가서기도 전에 갑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참 엄격하셨다고 회상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한눈을 파는 것은 사내답지 못한 태도라는 꾸중의 말씀이 들립니다. '두리번거림'은 길을 걷는 예의가 아님을 터득한 것이 그 가르침 때문이라는 저린 기억이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집도 없습니다. 그 자라던 집에 이

르던 길도 없습니다. 늙은이는 서둘러 아버지의 흔적이 덜한 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가난해 끼니도 잇지 못하던 친구, 지금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산 밑에 살던 아이가 그리워집니다. 늙은이는 애써 그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도, 집도, 산도, 물길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움 안에만 실재하는 길이 있을 뿐 걸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없습니다. 길의 사라짐, 늙은이는 참 슬픈 상실이라고 느낍니다. 이를 수 있는 길의 잃음은 잊을 수 없는 그 친구의 잃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잃음은 그 친구를 그리워하던 나 자신의 잃음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늙은이는 늙음을 곱씹습니다. 늙음이란 길의 상실이고, 그 길을 통해 내가 지녔던 모든 것이 그 길과 더불어 한꺼번에 무산霧散되는 것이라는 터득이 조금은 아픕니다. 그래도 여전히 낯익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동네 안으로 들어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살구나무가 있던 방앗간 모퉁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길을 잃습니다. 기억 속의 그 무엇도 거기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도 방앗간도, 방앗간 옆 개울물도 없습니다. 어둠이 삼킨 것이라고 자위하고 싶은데, 해가 나도 그것들이 없을 것은 빤하다는 예감이 늙은이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서 호롱불을 든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님입니다. 늙은이는 누님을 만납니다. 그랬습니다. 늙은이는 칠흑 같은 밤이 두려웠습니다. 뒷간에 가려면 더했습니다. 누님은 그 아우를 위해 없는 손재주를 다 부려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백지로 틀을 둘러싼, 들고 다닐 수 있는 석유 등잔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등을 켜들고 뒷간에 갔을 뿐만 아니라 밤마실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등불이 길을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비추면 없던 길도 나타납니다. 늙은이는 그 '신기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반가움에 누님을 부르려는데 손에 손전등을 든 웬 젊은이가 늙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늙은이는 허탈해집니다. 누님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솟는데다 손전등을 들고 지나간 젊은이의 외면이 지독한 소외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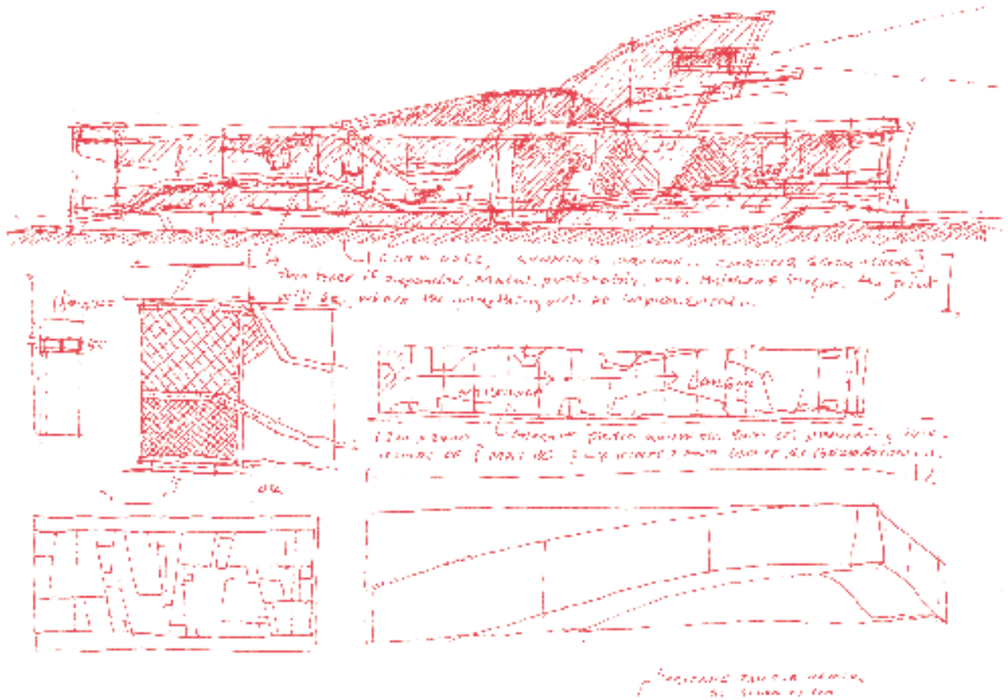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해가 뜨면 만물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어둠을 겪는 일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져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도, 언제나 사람 사는 세상이면 다 그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불을 켜고 그 불빛으로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길을 밝히면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각기 불을 밝히기는 해도 같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는 새삼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불을 켜고 제 길을 걸을 뿐입니다. 같은 길 위에 무수한 등의 행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그 등불들이 길 위의 걸음을 서로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 모두 똑같은 등을 들어야 한다는 외침도 없지 않고, 그러한 행렬이 길을 메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힘의 작희作戱'일 뿐 더불어 길을 밝히면서 함께 걷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늙은 사나이는 동네에서 나와 아까 차를 세워놓은 여인숙을 향해 어두워진 희미한 들판 길을 홀로 걷습니다. 두 냇물이 모이던 여울목을 막아 만든 저수지 둑이 어둠 속에서 괴물같이 막아섭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그 여울목을 건너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물에 길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름이면 괜찮았습니다. 바닥까지 다 얼지도 않고 물이 꽤 많아 발을 벗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던 겨울은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 물을 건너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길 걷기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저수지 둑 옆으로 길게 뻗은 시멘트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합니다. 길이 보입니다. 발을 벗을 까닭도 없고 찬 물로 발목이 끊어지듯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시멘트 길을 걸으며 늙은이는 세상이 좋아졌다고, 참으로 좋아진 거라고, 그렇게 다짐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한 사내아이가 한 계집아이를 만났던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늙은이는 그 초입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옮겨 산언덕을 오릅니다. 숨이 목에 찹니다.
"그래도 집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을 것 아냐?"
늙은이는 여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나는 바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늙은이는 남자의 소리도 듣습니다.
산 위에 이르러 늙은이는 한 묘지 앞에 있는 비명碑銘을 읽습니다.

아가와 꽃
새와 노래
시와 가을을 사랑하시던 어머님
여기 고이 잠드시다

늙은이는 숨을 몰아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끝에서 시작한 가느다란 길이 이쪽 공원묘지 쪽을 향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 많이 서로 다른 길을 홀로 걸어왔는데, 참 긴 길을, 그것도 견딜 수 없이 거칠고 험한 길을, 그러면서도 자지러지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아직 얼마나 더 긴 길을 다시 홀로 걸어야 하나 하고 늙은이는 생각합니다.
"나는 늘 행복했어! 들꽃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새소리도 듣고…. 가끔 뱀이 지나가는 것도 보았지만…."
여자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늙은 사나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그래! 아직 우리 같이 가자. 신설동 가는 길 걷듯이!"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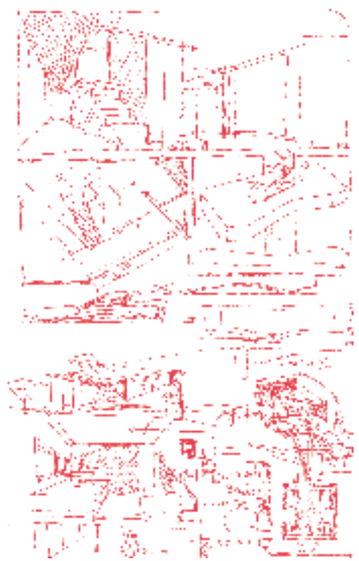
건축가 문훈의 에스마할 프로젝트

길을 걷다, 집을 짓다

House Built upon a Winding Road of Contemplation

걷는다는 것은 때로 철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 목적 없는 서성거림 속에서 누군가는 예술적 영감을 얻고 창작의 첫 단추를 꿴다. 건축가 문훈은 걸으면서 체득한 관념과 상상으로 그가 설계한 공간을 채운다. 그가 자신의 에스마할S_Mahal 프로젝트와 함께 건축과 길에 대한 상념을 풀어놓는다.

글 | 문훈 건축가. 미국 MIT 건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 '문훈발전소'라는 설계사무소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도발적인 상상력과 통속적인 이미지, 그리고 기호학적 표현이 가득해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건축계의 이단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2005년 상상사진관으로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다.



01

01 에스마할 프로젝트의 드로잉들. 일반 회화의 드로잉이 예술적 해석과 묘사를 중시한다면, 건축 드로잉은 '의도를 담은 메시지', 즉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와 설계 방향을 중시한다. 끊기지 않는 선들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감을 드러내고, 크로키 스타일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여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02 집의 테두리처럼 보이는 순환 발코니. 이 집의 주인과 반려동물들의 산책로이자 플레이 트랙이다. © 김용관

내 생애의 길들

길이 없는 곳에 발을 내딛기보다는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걸음을 향하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게다. 하지만 때론 수북하게 눈 쌓인 미답의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새로운 길의 창시자가 되기도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어 다녔던 강원도 산골 유치원 시절이 떠오른다. 유치원까지 거리는 족히 2킬로미터가 넘었고, 소풍이라도 가는 날에는 4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먼 길이었지만, 그 길은 언제나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온갖 유혹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설탕과 소다를 넣어 불에 달궈 만드는 '달고나'를 팔던 가게에는 아주 값싼 어묵과 오렌지색 쫄쫄이도 진열되어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면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가게도 두 군데나 있었다. 학교를 왕복하는 길은 언제나 재미있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사춘기를 보낸 호주 태즈메이니아Tasmania 섬의 작은 도시의 길들은 엄청나게 큰 가로수들이 도열해 있고 길 주위로 잔디가 그림처럼 덮여 있었다. 그 낯선 이국의 길 위에서 깊은 향수를 느끼곤 했지만, 한편으론 무척 그윽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체육시간이 되면 이따금 5킬로미터 마라톤을 했는데, 그 코스에는 더웬트Derwent 강가와 주변 마을을 통과하는 길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막바지에 이르면 길도 풍경도 사라지고 오직 숨이 넘어갈 듯한 가쁜 숨소리와 폭발할 듯한 심장소리만이 들리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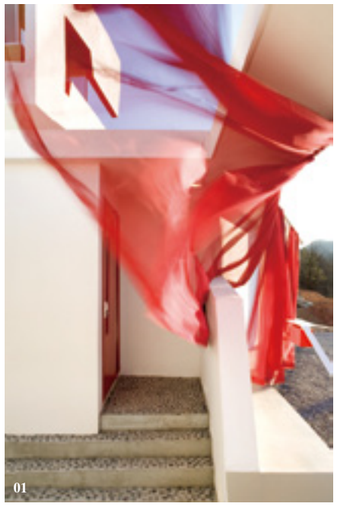
주말이 되면 수채화 물품을 챙겨 무조건 길을 나섰다. 태즈메이니아 섬 구석구석의 길들을 돌아다니다 때론 쉽게, 때론 간신히 그림 그릴 장소를 찾았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로움, 걱정, 희망, 두려움, 기쁨 등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도화지와 나, 그리고 붓만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마저 가뭇없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곤 했다. 그러다 서른세 살 되던 해에 한국에 돌아와 설계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나의 주 산책로는 양재천변이 되었다. 산책을 할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된다. 숨이 찰 만큼 빠른 걸음이 아니기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어떤 생각은 누르려 하면 더욱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생각은 시작과 동시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나는 빙글빙글 맴도는 길이 좋다. 목적 없는 서성거림이 나에게는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히 불안해하거나 방황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한 생각과 몸의 습관들이 어느덧 내가 설계하는 공간에도 실재한다. 집 주위를 두른 길들, 맴도는 긴 툇마루들, 혹은 순환 발코니들, 그것을 뭐라고 부르던 간에 말이다.

01~02 순환하듯 집을 두른 발코니는 좋았으나,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2.8미터 높이의 발코니에 커튼 레일을 설치하고 빨간 방수천을 둘렀다. 바람이 불면 커튼이 드라마틱하게 휘날린다. © 김용관

03 철근 구조물로 공중에 띄운 기도실. 기도실 밑 부분의 등들은 복두칠성을 흉내 내려 한 것이다. © 김용관


01

02

03

01 1F

02 2F

03

01~03 에스마할 프로젝트의 도면들. 이 집의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집 전체를 두른 순환 발코니와 전망대나 정자처럼 보이는 기도실이다.

집 주위에 길을 두르다

개인주택 에스마할은 길에서 습득한 관념과 습관이 충실히 반영된 프로젝트였다. 사실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의 소통이 언제나 여의한 것은 아니다. 에스마할이 지금 모습으로 축조될 수 있었던 건, 건축주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등학교 때 『주역周易』을 늘 품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 자그마한 체격의 늘 서성이던 친구였다.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의사가 된 친구는 아내와 장인어른과 함께 살 집을 지어달라며 중정中庭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마당, 그리고 기도실을 요구했다.

에스마할 프로젝트가 완성된 양평 대심리의 땅은 물과 논, 숲과 축사가 적당히 어우러진 곳이었다. 예산은 넉넉하지 못했다. 하지만 각 실에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하나를 더하여 일곱 개의 중정을 만들었고, 친구가 꿈꾸는 인도의 바라나시Varanasi 강변과는 사뭇 다르지만 풀장으로도 사용되는 소나라시Sonarasi*를 만들었고, 룸살롱의 추억과 기도에 대한 집착이 뒤섞인 기도실Ssalon de Sson을 완성했다. 집 위로 전망대처럼 솟은 기도실과 더불어 이 집의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집 주위에 둘러진 순환 발코니다. 나는 이 집의 위쪽, 그리고 땅과 맞닿은 아래쪽에 집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 발코니를 만들었다. 이 발코니는 집을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조형적으로 집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도 하며 액자처럼 바깥 풍경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능은 서성거리기 좋아하는 집주인과 집주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일종의 산책로이자 플레이 트랙Play Track이다. 이 순환 발코니를 외부와 경계 짓기 위해 처음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마감재를 고려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다른 아이디어가 요구되었고, 그로 인해 방수 천으로 된 붉은 커튼을 선택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부드러운 벽체가 펄럭일 때면 집이 진정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발코니를 거닐 때 바람결에 내 몸에 살랑살랑 부딪쳐오는 벽체는 묘한 감동을 주었다. 몇 주 후 강풍이 불었을 때, 그 붉은 커튼은 산발한 머리카락처럼 미친 듯이 펄럭거렸고, 그 심란한 광경을 보다 못한 친구의 장모와 아내가 결국 인부를 불러 이틀에 걸쳐 그 커튼을 모두 떼어내었다. 친구와 나는 아직도 그 사라진 날개(단언컨대 그 커튼은 단지 가리개가 아니라 진정 '날개'였다)를 생각하며 아쉬움을 표하곤 한다.

*Sonarasi : 건축주의 성씨인 '손'과 '바라나시'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시는 걷는다, 네 종류의 리듬으로

방황, 고행, 산책, 행진

Four Ways to Walk with a Poem

© 김도형

걸어 들어가기

인간은 걷고 시도 걷는다. 그러나 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걷기가 아니다. 걷기를 물리학적으로 정의한다면 '한 공간(출발점)에서 다른 공간(도착점)으로의 이동' 정도가 될 것이다. 즉 걷기의 목표는 도착점에 도착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걷기의 물리학적 의미로부터 해방되려면 바로 이 도착(점)이라는 항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도착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없으면 걷기는 무의미해지는가, 걷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는 없는가, 그 도착점은 반드시 어떤 장소이어야만 하는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일 수는 없는가, 등등. 걷기가 '이동'이라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해방되는 순간 여러 종류의 또 다른 걷기들을 사유할 여지가 생겨난다. 섬세하게 분류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시가 관심을 갖는 네 가지 걷기에 대해서만 짧게 말해 보려고 한다.

글 | 신형철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십 년간 공부했고 2005년 봄부터 문학평론을 쓰기 시작했다.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한편 긴 평론과 짧은 칼럼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평론집 『몰락의 에티카』,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 등을 펴냈다.

방황, 걷기의 심리학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기형도,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중에서,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년

방황의 본질은 그것이 도착(점)이 없는 걷기라는 데 있다. 도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작정 걷는다. 그러나 아무리 먼 곳까지 걸어가도 자기 자신에게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방황의 아이러니다. 마음에서 도망치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인데 내 마음은 늘 나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방황은 청춘의 것이다. 내게 방황의 시인은 기형도다. 1960년생인 그는 1980년대 중후반에 쓴 시들로 유고 시집을 냈고 1990년대에 열광적으로 읽혔으며 이제는 거의 신화가 되었다. 그의 시집을 펼쳐보면, 걷고 있는 상황을 그리지 않은 시에서조차도, 그는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위의 시에서 기형도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의 막막함, 그 막막함 앞에서 "나를 찾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표면에 있는 '자기 부정'과 이면에 있는 '자기 연민'을 높은 감염력을 가진 표현들로 옮겨 적었다. 예나 지금이나 기형도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바이블이다. 바이블의 역할이 그렇듯이 기형도의 시도 우리로 하여금 나의 방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변명할 수 있게 해주며 그래서 계속 더 방황할 수 있게 해준다.

고행, 걷기의 종교학

슬픔은 왜 독인가/ 희망은 어찌하여 광기인가// 뺨 때리는 눈보라 속에서 흩어진 백만 대열을 그리는/ 나는 죄짓지 않으면 알 수 없는가// 가면 뒤에 있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앞에 꼭 한 길이 있었고, 벼랑으로 가는 길도 있음을// 마침내 모든 길을 끊는 눈보라, 저녁 눈보라,// 다시 처음부터 걸어오라, 말한다

황지우, 「눈보라」 중에서, 『게 눈 속의 연꽃』, 문학과지성사, 1990년

방황에는 목표가 없지만 고행에는 있다. '절대적인 것'에 도달하기 혹은 '절대자'와 만나기. 성지에 도착해서 신성을 느낄 수도 있겠고 실제로 신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절대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들 하니, 그렇다면 결국 고행은 한없이 '멀리' 떠나서 결국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걷기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 무엇이 있나. 여태 몰랐던 '진정한 나'가 있거나, 오히려 '나'라는 실체 따위는 없다는 깨달음이 있거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자기계발서나 명상서적을 펼치면 어디에나 나오는 이런 얘기는 따분하다. 그런 종류의 경험은 그것이 진짜라면 말로 옮길 수 없고, 말로 옮겨서 이해되는 것이라면 애초 자기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시는 이 딜레마 위를 마술적으로 걸어간다. 1987년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패배하자 황지우는 자발적 유배의 길을 떠났고 그 고행의 길에서 눈보라를 만났으며 이윽고 깨달았다. "가면 뒤에 있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후회하며 되돌아볼 때 보이는 길, 저 길로 갔어야 했다며 후회하게 하는 그런 길은 환각이라는 것을, 길은 언제나 앞에 있으며, 비록 그 길이 벼랑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처음부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산책, 걷기의 사회학

만약 숲 속이라면/ 독충이나 웅덩이라도 숨어 있지 않을까 조심할 텐데// 여기는 내게 자명한 세계/ 낙엽 더미 아래는 단단한, 보도블록// 보도블록과 나 사이에서/ 자명하고도 자명할 뿐인 금빛 낙엽들/ 나는 자명함을/ 퍽! 퍽! 걷어차며 걷는다// 내 발바닥 아래/ 누군가가 발바닥을/ 맞대고 걷는 듯하다.

황인숙, 「자명한 산책」 중에서, 『자명한 산책』, 문학과지성사, 2003년

산책에도 역시 도착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책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때 끝난다. 대신 산책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 느리게 걸을 줄 아는 자만이 '산책가'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있다(산책은 기술이다.). 느리게 걸을수록 주변을 더 완전히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책가는 한 장소를 천천히 깊게 음미하는 '눈의 미식가'다."(정수복, 『파리를 생각한다』, 문학과지성사, 2009년, 83쪽) 걷기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도 특히 산책은 예로부터 시인들이 가장 사랑해온 것이었다. 시골길을 걷건 대도시를 걷건 그 나름대로 다 산책이다. 방랑과 고행의 성격도 얼마간 갖지만 역시 본질적으로는 산책에 해당되는 낭만주의자의 도보주의Pedestrianism는 시골길을 걷는 것이었고, 19세기 중반에 파리에 아케이드(파사주)가 생기면서 시작된 모더니스트들의 산책은 대도시를 걷는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시인들의 산책에도 이제는 변화가 생긴 것일까. 시인 황인숙은 세계가 이젠 너무도 자명해져서 산책의 기쁨을 빼앗겼다 불평하며 이런 멋진 구절을 적었다. "나는 자명함을 퍽! 퍽! 걷어차며 걷는다." 그리고 이 세계와 똑같은 세계가 거울처럼 땅 밑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연은 말 그대로 '자명함을 걷어차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자명한 것의 자명함을 전혀 자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면서 시는 놀라운 어떤 것이 된다.

행진, 걷기의 정치학

지금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광장의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흩어진 지 오래/ 그해 120만 명의 사람 하나하나는/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흩어진 지 오래/ 저마다 돌아가/ 혼자인 누에집에 들어가 있다// 사랑하는 사이버 속에 들어가버렸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뛰쳐나와 소리쳤다// 아 독재가 있어야겠다/ 쿠데타가 있어야겠다

고은, 「광장 이후」 중에서, 『두고 온 시』, 창작과비평사, 2002년

물론 행진은 걷기의 정치적 형식이다. "그들은 걸으면서, 바로 그 걷기를 통해, 투쟁한다. 이처럼 우리는 발로도 투표를 하는 것이다."(크리스토프 라무르Christophe Lamoure, 『걷기의 철학』, 개마고원, 2007년, 41쪽) 1789년 프랑스 혁명, 1968년 유럽 학생 운동, 1987년 한국의 시민항쟁 등등 세계사의 모든 혁명에는 행진이 있었다. 행진에는 목적지가 있지만 목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로 최대한의 분란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하고 주장한다. 즉, 데모Demonstrate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삼보일배'라는 불교 수행법이 정치적 걷기의 형식으로 다시 발명된 것도 기억해 둘 만한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행진은 글쓰기 혹은 말하기에 가까운 걷기다. 광장에서의 행진이 사라지고 모두가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버리자 한 시절의 민주투사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씌어진, "아 독재가 있어야겠다/ 쿠데타가 있어야겠다"와 같은 구절은 고은 특유의 과열된 수사학의 한 사례이자 이 시의 가장 번뜩이는 부분을 만든다. 아직 지금의 정부를 경험하기 전에 발표된 위의 시를 십 년 만에 다시 읽는 일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 시인의 바람은(적어도 '독재'에 대해서만큼은) 역설적이게도 실현돼버렸기 때문이다.

걸어 나오기

네 종류의 걷기에 대해 말했고 그것들을 소재로 한 시들을 소개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분량이다. 걷기에 대해서도 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걷기'라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은 이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그 '건강'에 대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걷는다는 것은 심리학적이고 종교학적이며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걷기라는 소재만으로 우리는 문명사 전체를 다시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짧은 글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미 해낸 저자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레베카 솔닛이 쓴 『걷기의 역사』(김정아 옮김, 민음사, 2003년)와 조지프 A. 아마토가 쓴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2006년)는 성실한 저작이고 번역도 훌륭하다. 남은 길을 이 책들과 함께 걸으시길.

© 김도형

Power Talk

Power Talk 01 - Interview & Innerview 영화감독 임권택을 만나다

Power Talk 02 - Review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 대하여

Power Talk 03 - Road Movies of the World 세계의 로드 무비들

Power Talk 04 - Just One Scene 이 한 장면

책임 편집Guest Editor-in-chief 정성일

"(처음에는)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런 다음) 영화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마침내) 영화를 만들었다. 15년에 걸쳐 임권택 감독에 관한 전작 인터뷰 책을 두 번 만들었다(『한국영화연구 1: 임권택』 『임권택 임권택을 말하다』). 그리고 김기덕 인터뷰와 평론집 『김기덕, 야생 혹은 속죄양』을 만들었다. 영화잡지 <로드쇼>와 <키노>의 편집장을 했으며, <정은임의 영화음악실>에서 3년 반 동안 매주 영화를 소개했다. 또한 월간 <말>에 17년 동안 고정적으로 영화평을 썼으며, <한겨레>와 <씨네21>에 많은 글을 썼다. 그 글 중 일부가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와 『필사의 탐독』이라는 두 권의 영화비평집에 담겨 있다.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시네마디지털서울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다. 그리고 2009년 첫 번째 영화 <카페 느와르>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베니스영화제에 초대되었다. 지금 두 번째 영화를 촬영하고 있으며, 또한 임권택 감독과 김기덕 감독에 대한 새로운 인터뷰집을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에 호기심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오래된 좋은 영화를 그리움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좋은 영화를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세상을 꿈꾼다. 그건 지구라는 별에 온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길의 감독' 임권택의 길과 영화 이야기

나는 오늘도 길을 나서고 싶다

Never Ending Desire to Hit the Road Again

자택 베란다에 놓인 임권택 감독의 디렉터스 체어.

글 | 정성일

사진 | 박정훈 도쿄 비주얼 아트Tokyo Visual Arts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최근 사진 위주 갤러리 류가헌에서 인물 사진전 <between>을 여는 등 전시와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사진 작업들을 풀어놓고 있다.

임권택 감독은 오랜 시간 길 위에서 떠돌며 영화를 완성했다. <만다라>부터 <서편제>와 <개벽>, <취화선>과 <천년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화는 길에서 길로 이어지고 있다. 그 길은 언제 끝날까. 길 위를 정처없이 떠도는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임권택 감독을 만나 '길의 영화'에 대해, '영화 속의 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때이른 출향出鄕

나이 열여덟 살에 집을 떠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51년의 일입니다. 그 소년의 집은 전라남도 장성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 동네에서 큰 유지였고,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많은 친척들이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모두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 중에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자가 되어서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좌우익이 난립을 하던 때였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서슬 퍼런 할아버지 밑에서 기도 펴지 못하면서 살던 그 마을 한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막 돌아온 또래 친척들의 바다 건너 이야기들이 그저 신기하고 새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유교의 무거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여전히 조선시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마을에서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주눅 들어 살아온 아버지에게 지금 도쿄에서 전해진 신문물의 이야기와 혁명이라는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슴 설레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한반도 저 아래 호남 끝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쪽의 군대가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좌우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삐라'와 선동이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상은 전쟁 앞에서 피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친척들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고,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들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기에 아이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거대한 대리전이 벌어졌고, 산에 올라간 부모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 산에서 내려와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빨갱이' 집안을 고발하고, 감시하고, 욕하고, 경찰은 아무 때고 찾아와 신발을 신은 채 방안을 뒤지면서 아직도 산에 있는 친척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고, 소년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빨치산에게 살해당한 부모의 자식들이 아무 죄 없는 소년을 찾아와 분풀이를 하면서 학교 뒷산으로 데려가 매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요, 고향에서는. 도대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 부모님은 그나마 남은 논마지기들을 팔았고, 가세는 기울고, 나로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집을 떠난 거요."

영화감독 임권택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그 날 집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그저 집에서 돈 몇 푼 집어 들고 풍문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던 그 흉흉한 피난 시절, 그저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 상상해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부모님이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밤하늘의 별을 벗 삼아 낯선 길로 떠나던 그 시간. 그 길을 나서서 낯익은 길이 끝나고 이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이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집이라는 데는 일단 자기를 누이고 아주 편안하게 쉬는 데잖아요. 자기 몸을 그 안에 살게 하는 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깥이 안 좋아도 집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해지고 의지처가 되는 곳. 그러려면 거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이 이미 집이 아닌 거요. 그러니 집을 나서게 된 거고, 몸은 고달퍼도 길 위를 떠돌아다니는 게 마음은 편한 거요."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자

임권택 감독은 전라남도 장성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호남 한쪽 끝에서 반대편 영남 끝까지 몇날 며칠 걸려 길을 따라가고 또 갔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이 없고, 반길 곳도 없는 낯선 도시를 찾아가기 위해 발길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임권택 감독은 훗날 이 길을 다시 영화를 찍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길은 그저 세상 어딘가로 그를 이끄는 끝도 없는 삶의 여정이 막 시작되는 언저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길들의 대부분이 구불텅하게 이리저리 곡선을 그리면서 끊어질 듯 이어지고, 그러다가 한 마을이 나타나도 거기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머물 데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방 또 떠나야 하는 여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임권택 감독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두 승려의 만행 길을 따라 떠도는 <만다라>, 떠돌이 소리꾼 가족들의 한이 그들의 예술로 승화되는 <서편제>, 구한말 천도교를 통해 세상을 '개벽'하려다 결국 참형으로 끝난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의 이야기인 <개벽>, 같은 구한말 조선을 떠돌며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자유롭게 살다간 화가 오원吳園 장승업張承業의 일생을 담은 <취화선>, 그리고 장님 소리꾼 누이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결국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수꾼 남동생의 슬픈 이야기 <천년학> 같은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금방 이 말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영화는 길에서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만 같은 길은 다시 그 어딘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이에게 그 말은 그 여정이 그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끝났을 때 임권택 감독은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길이 끝나자 거기 부산이 있었습니다. 아는 이 한 사람 없이 전쟁 북새통에 그렇게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를 떠돌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길을 잃은 자. 그저 이 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길 위에 선 자. 그래서 길에서 두리번거려야 할 때, 이 배고픈 소년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을 환기시키지만, 그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 시절, 동정이란 어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지게를 걸머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험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리가 없는 거요, 하루가 끝나면 양쪽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요. 게다가 그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죽지 하는 심정이었지. 너무 아프고, 희망도 없고 하니 그날 번 돈으로 그냥 술이나 사서 취할 때까지 먹고 잠드는 게 매일이었지요."

열여덟 소년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꿈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신나게 달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은 어김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자 소년을 찾아온 것은 수전증이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열여덟 살에 수전증이 시작되어 벌벌 떠는 소년의 손을. 임권택 감독이 가장 난처해하시는 부탁은 당신께 사인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 이래 지금도 떨리는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펜을 잡아 눌러야만 쓸 수 있는 필치. 처음 임권택 감독의 사인을 보았을 때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획은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가까스로 쓴 것만 같은 그 이름 석 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 글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슬픈 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머물고 싶지만 떠돌 수밖에 없는

"내가 아직 조감독을 할 때였어요. 그때 다들 좋다고 해서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의 <길La Strada>이라는 이탈리아 영화를 보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영화를 두 번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영화는 그냥 내리 두 번을 본 거예요. 나는 누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무어냐고 물으면 이 영화 제목을 대요."

페데리코 펠리니가 1955년에 만든 영화. 거리를 떠돌면서 몸에 두른 쇠사슬을 끊는 구경거리를 선보이며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사내 잠파노와 그 남자를 따라다니는 백치 같은 여자 젤소미나의 슬픈 이야기. 그녀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해준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닷가의 마지막 장면이 사무치게 가슴에 남는 그 영화.

하지만 조감독 임권택이 그 영화에서 본 것은 슬픈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추운 겨울날 한없이 눈 내리는 시골길을 떠돌면서 갈 데 없어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에서 문득 마주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집에 있을 때보다 길에 있을 때 훨씬 안심이 됐어요. 원래는 집에 있을 때 안심이 되는 게 맞는 거요. 그런데 난 집이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닥쳐올 것만 같고. 그런 다음에 집을 떠나고 나니, 이제는 자취방이라는 게, 집에 와봐야 혼자잖아요. 영화를 찍으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어울리기도 하고, 영화라는 게 끝날 때까지 같이 먹고 자는 일이니까. 그러니 자꾸만 나와 앉게 되고, 그래서 영화가 없으면 불안하고, 자꾸 일을 만들고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 내 삶 전체를 그냥 길에서 보내고 만 거예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다루고 있는 길의 모습들이 다른 영화들과 유난히도 다른 이유는 주인공들이 그저 길 위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대부분 길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의 그 과정으로서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다라> 혹은 <서편제>를 보고 있으면 그의 인물들은 그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 위에서 표류하듯이 그렇게 떠돌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어딘가 머물고자 합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 그럼에도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그곳.

"내가 찍지 않은 길의 풍경은 어쨌거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의 진녹색이 있는 풍경이에요. 나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낙엽이 지고 나무의 나신이 드러나고 이런 길이 나한테는 훨씬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임권택 감독은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 계절은 내게 자꾸만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 여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임권택 감독을 뵈었을 때 무심코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내릴 것처럼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영화를 찍어야 할 텐데, 이제 금방 겨울이 올 텐데 말이요, 마치 이때만 오면 길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요."

영화를 찍는 일은 길을 떠도는 일

임권택 감독은 시나리오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종종 그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차에 싣고 이 길 저 길 그저 눈에 차는 길을 찾아서 마치 유랑 길에라도 나선 것처럼 영화를 찍곤 합니다. 영화 현장에서는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편집실에서 장면들이 서로 귀신처럼 붙고 종종 마치 머릿속에 이미 준비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슬그머니 연결되곤 해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미리 그 길을 찾아놓고서 일부러 모른 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놀라움에 가득 차 수군거리곤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서편제>의 그토록 사무치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수많은 장면들은 바로 그렇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찍는 일은 그렇게 길을 떠도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촬영하기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저 막연하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감흥을 만날 때까지 그저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요. 근데 그 감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가 주는 경험과 거기 그렇게 주어진 장소가 서로 마주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의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길이 좋다고 할 때, 그 길은 이미 내가 살아온 삶이 스며들어가 있는 마음의 풍경이 되는 거요."

평생 길을 떠돌면서 영화를 찍은 이 노대가는 길이란 감흥이며, 거기서 보는 세상이란 마음의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 길에서 슬픔을 느끼고, 어쩌면 오늘은 그 길에서 행복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집 앞을 나선 똑같은 길이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는 다른 감흥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거리의 역사는 동시에 당신에게 삶의 시간이 아니던가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삶의 많은 시간을 결국 길 위에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떠돌았지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저 좋은 장소를 찾는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참 이상도 하지,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만 길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장소에서 도무지 감흥이 나지 않아 버스를 타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차창 바깥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배움이랄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에도 의지처를 찾지 못할 때, 그래서 거리를 떠돌 때, 이건 촬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얻어낼 수 없는 내 마음의 행로라는 거예요."

그래서일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영화평론가 중의 한 명은 사토 다다오佐藤忠南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만다라>를 본 후 임권택 감독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어느 봄날 남산의 한 다방에서 그를 만나 기꺼이 경의를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화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의 길이 얼마나 슬픈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아시아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비애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아시아 영화에서 길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란 본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임권택 감독의 가족 사진

길은 숨통이고 숨길이다

"나한테 유럽에서 영화를 찍어보라고 여러 차례 제안이 오긴 했어요. 특히 독일에 나를 좋아하는 제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거기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긴 내가 찍을 데가 아니구나. 특히 스위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가면서, 거기는 그냥 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점점 내게 위화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영화는 자기가 잘 아는 세계, 자기가 살아본 장소, 자기가 그걸 느껴볼 수 있는 데서 찍는 거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알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길이란 뭐겠어요, 바로 그런 장소를 연결하고 이어주고 또 그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숨통 아니겠어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가는 길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숨통이며, 당신이 세상을 숨 쉬는 숨길이라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걸 어쩌면 미처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편안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느꼈을 때 당신은 예술가의 기분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에서 내가 풍경을 잡아낸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걸 낚아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면서 보았던 친숙한 것. 아마 그런 걸 잡아내는 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취화선>을 찍을 때 내가 일부러 주인공이 화가니까 풍경 좋은 데를 찾으러 다니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화가가 그런 걸 찾으러 다닐 리가 없잖아요. 무언가 풍경에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길에서 어느 순간 문득 삶의 향기를 볼 때가 있어요.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거요. 그런 길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길을 애타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애가 타서, 길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만났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쳐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때 정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그 길은 언제 끝날까요, 그 주인공들은 언제 집에 갈까요. 아니, 그들이 정말 집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랜 시간 길 위에서 떠돈 이 대가는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그건 내 자신이 정신적 짐을 내려놓아야 할 거예요. 그동안 내 영화들이 어디서도 짐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있잖아요. <천년학> 같은 데서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옛것이 다시 찾아오고, 그건 이제야 내가 조금씩 그런 편안함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떠돌이였다가 갑자기 살 만해지니까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쯤 와서 편안해지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요. 그저 알게 모르게 내가 지친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젠 좀 쉬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그게 알 수 없는 거요, 그렇게 들어앉으면 또 떠나고 싶어질지. 길이란 게 그런 거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임권택 감독을 조심스레 쳐다보았습니다. 말씀을 끝낸 후 그저 물끄러미 창문 바깥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벌써 그의 다음 영화,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102번째 영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서면 벌써 그곳으로 길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로드 무비 또는 무비 로드

당신에게는 함께 떠날 친구가 있습니까?

Taking a Trip with the Voice of your Companion

<올리브 나무 사이로>
1994년

<사랑을 카피하다>
2010년

이란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의 영화들은 대부분 로드 무비의 외형을 취한다. 하지만 그의 로드 무비는 전형적인 로드 무비의 길을 벗어난다. 길을 떠난 주인공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고, 관객들은 풍경 대신 주인공의 목소리에 이끌려 길을 따라가게 된다. 키아로스타미의 색다르지만 의미심장한 로드 무비를 만나본다.

글 | 우혜경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이론을 공부했다. <장률, 張律> <죽엄의 상자, 더 라이브> 등을 연출했으며, 2012년 제17회 씨네21 영화평론상을 수상했다.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스틸컷 이미지 촬영 | 김도형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지그재그 3부작Zigzag Trilogy'

지진으로 끊어진 도로 앞에서 난감해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몇 년 전 찍었던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Where is the Friend's Home?>의 주인공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길을 떠나온 터이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주인공의 마음은 초조해져만 간다.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And Life Goes on>는 이렇게 시작된다. 감독은 실제로 발생한 1990년 이란 대지진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담는 대신, 극영화의 외형을 빌어 아이들을 찾아가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배우)의 여정으로 풀어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덕을 넘어 주인공의 자동차가 아이들이 사는 마을로 힘들게 진입하려는 순간, 영화는 끝나버린다. 이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그의 다음 영화 <올리브 나무 사이로Through the Olive Trees>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공책을 가져오지 못해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눈물을 뚝뚝 떨구던 네마자데와 그의 공책을 돌려주기 위해 마을을 뛰어다니던 소년 아마드가 5년이나 지나 훌쩍 큰 모습으로 <올리브 나무 사이로>에 스치듯 등장하는 순간, 키아로스타미의 '지그재그 3부작'이라고 알려진 세 편의 영화들을 차례로 따라온 관객들이라면 누구나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마치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들. 페르시아의 양탄자처럼 이어지는 영화들.

도착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 도착하거나

생각해보면 그의 다른 영화들 속에서도 길을 떠난 주인공들은 종종 목적지에 (미처 혹은 끝내) 도착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곤 한다. <사랑을 카피하다Certified Copy>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여주인공(줄리엣 비노쉬Juliette Binoche)은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을 소개해주겠다며,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영국 작가를 자신의 차에 태운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에서 투스카니 관광을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난 근사한 길을 통과하고 나면 카메라는 더 이상 창밖 풍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나누는 이들의 대화도 풍경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 친구의 공책을 돌려주기 위해 낯선 이웃 동네 골목을 그렇게 헤매던 소년은 결국 친구의 집을 찾지 못하며(<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최고령 할머니의 장례의식을 담고자 한적한 가을날의 시골마을로 찾아온 주인공의 여정도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난다(<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The Wind will Carry Us>). 길 위에 멈추어 서서 목적지를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영화가 끝나버릴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키아로스타미의 여정은 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결국, 그의 영화에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 <텐Ten>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제목 그대로 열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상영시간 거의 대부분을 자동차에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운전자인 엄마의 모습과 조수석에 차례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각각의 장에서 주인공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친구를 태워주는가 하면,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여성을 비롯하여 예배소에 가는 할머니까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이들까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열 번에 걸친 각각의 여정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게다가 몇몇 예외적인 장면을 제외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자동차 안에 단단히 고정된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혹은 어떤 장소로 주인공이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 순간 남는 것은 운전하는 주인공과 조수석에 차례로 타는 여러 인물들 사이의 대화뿐이다. 카메라는 자동차와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이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을 '함께' 경험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된다.

<체리 향기>
1997년

그의 로드 무비는 '자동차 영화'다

한 인터뷰에서 키아로스타미는 왜 자동차에 탄 인물들을 자주 찍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꼼짝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다소 의외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이라기보다 대화를 위한 공간에 가깝다. 그의 거의 모든 영화들이 로드 무비의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풍경에 눈을 빼앗기는 대신 속도와 목소리에 이끌려 길을 따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일련의 영화들을 '자동차 영화'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그는 인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동차에 태운다. 그리고 일단 자동차에 올라타면 인물들은 창밖 풍경에 대해서, 혹은 목적지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영화를 보는 이들을 안전벨트에 채워 관객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가 이끄는 목적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 사실 그들의 여행도 끝난다. 그때 길 위에 선 대화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체리 향기The Taste of Cherry>는 자동차 영화로서의 로드 무비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살을 결심한 중년의 남자가 죽고 난 다음 자신을 묻어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중년 남자는 길을 걸어가는 낯선 이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노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적지 않은 돈을 줄 테니 자살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설득한다. 그의 차에 탄 어린 군인, 신학도 청년, 박제사 노인은 죽음을 선택하려는 주인공을 각자의 방식으로 설득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진다. 자살을 만류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선택한 주인공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안에서의 대화에는 이란의 젊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 더 나아가 '삶 혹은 죽음의 선택'이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담긴다.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은 수면제를 먹고 깊게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그는 과연 자살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들과 대화한 다음 잠시 잠을 청하는 것일까? 영화는 대답 대신 놀랍게도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감독과 스태프, 그리고 연기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순간 감독 자신도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관객의 자리로 옮겨 앉게 된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길 위에 선 자동차. 길을 따라가는 자동차 안에서의 대화. 이때 우리는 이야기 공간으로서의 키아로스타미의 자동차가 어쩐지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동차와 극장 모두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일정 시간 동안 머물면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들이나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극장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 관객들의 모습만을 상영시간 내내 담고 있는 <쉬린Shirin>이라는 영화는 어쩌면 그의 로드 무비 중 가장 극단에 서 있는 영화일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이 영화는 영화라는 여행길에 나선 관객들의 표정이나 사소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 길을 떠난다는 것, 혹은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혹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과정 혹은 여행의 과정旅程, 그 자체를 체험하는 행위인 것이다. 너무 흔해 잊기 쉬운 진리.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와 영화를 보러 가십니까. 당신에게는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나설 친구가 있습니까? 키아로스타미의 충고. 자동차는 한 번 앉으면 중간에 일어설 수가 없다.

<쉬린>
2008년

존 포드
<수색자>
195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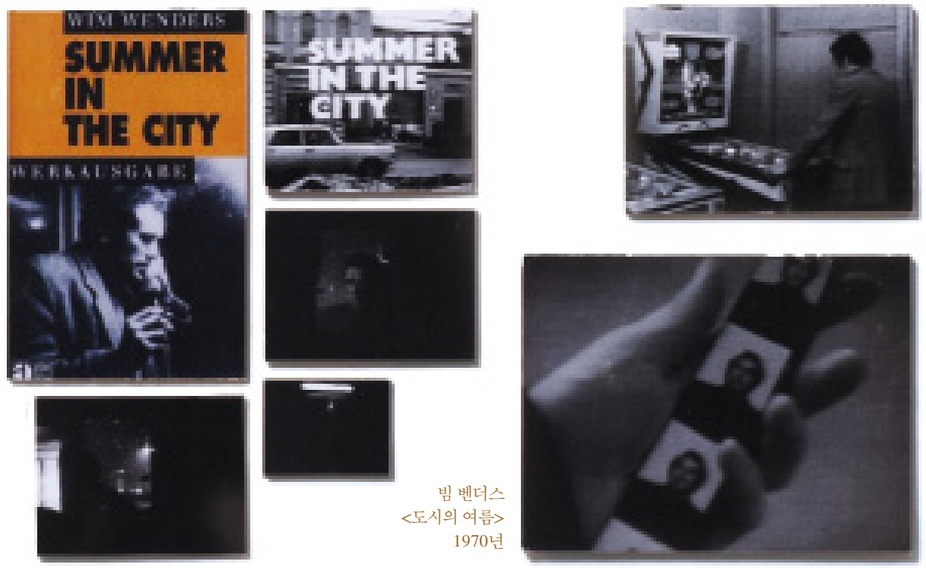
영화 속 미국, 유럽, 아시아의
길을 만나다

All Roads are the Road
Back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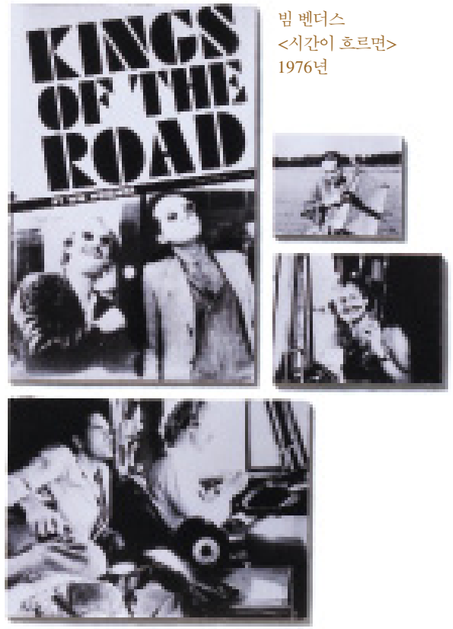
모든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로드 무비가 엄연히 영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길은 전 세계의 많은 영화인들에 의해 즐겨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만큼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영화들은 길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인다. 길을 따라 여행하고 또 여행했던 영화들 속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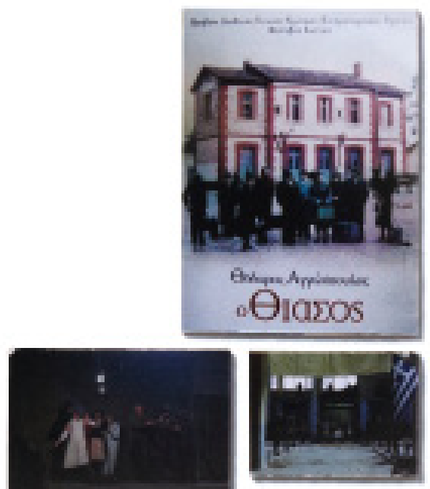
글 | 정성일



빔 벤더스
<도시의 여름>
1970년



빔 벤더스
<시간이 흐르면>
1976년



테오 앙겔로풀로스
<유랑극단>
1975년

미국의 로드 무비,
서쪽으로 멀리, 그리고 다시 집으로

유명한 말. 미국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문화는 세 가지이다. 재즈음악, 야구, 그리고 서부영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이렇게 쓴 다음 재즈에 대해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는 그 중 서부영화에 관해 말할 생각이다. 당신은 서부영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가. 거대한 모뉴먼트 밸리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마차들. 그들을 가로막는 흙먼지 가득한 붉은 강. 때로는 폭풍. 저 멀리서 들리는 인디언들의 북소리. 보안관의 가슴에 달린 별 모양의 배지. 라스트를 장식하는 일대일의 정정당당한 대결. 누가 먼저 총을 뽑을 것인가. 지구상에서 서부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는 "결국 서부영화란 존 포드John Ford가 만든 <역마차Stagecoach>지요."라고 말했다. 존 웨인John Wayne이 마침내 등장한 1939년의 고전적인 서부영화. 그리고 그건 미국의 고전적인 이미지이기도 할 것이다.

모두들 서부영화에 대해서 말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에는 우리들이 서부영화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한다. 1620년 미국에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한 다음 유럽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필요했다. 상상의 공동체. 그들의 (존재하지 않는 단일한) 조상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영웅적이면서 감동적인 전설과도 같은 설화들. 서부영화는 20세기에 들어서서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이 만들어낸 미국의 건국신화였던 셈이다. 이때 나는 서부영화가 결국 미국인들이 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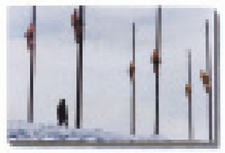
'서부西部, Western'영화라는 말은 얼마나 기묘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을 등에 지고 멀리, 더 멀리. 그들은 이 거대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신대륙이라고 불렀다. 여기를 기회의 땅이라고 명명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을 나섰을 때 그걸 '개척'이라고 불렀다. 낯선 길을 나섰을 때 그 길을 개척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미국인들밖에 없다. 그리고 서부영화는 그걸 신화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 거꾸로 신화가 그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임무는 낯선 길에 나서서 새로운 길을 열고 그곳에 새로운 마을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야. 피의 역사는 서부극을 통해서 황무지를 교회와 목장으로 이루어진 화기애애한 마을로 다시 건설하는 신화가 되었다.

서부영화는 단지 신화로 멈추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영화에서 서부영화의 정신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 전쟁에서 그걸 실현시키고 싶어했다. 공공연하게 미국은 전쟁에 나설 때마다 세계질서의 보안관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의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중동전. 그때 우리는 지구가 미국인들의 신대륙이며, 그들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그 영토는 개척되어야 할 황무지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우주에 새로운 깃발을 꽂을 때조차도 개척이라는 말을 썼다. 전쟁영화와 SF영화들이 사실상 서부영화의 변형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이를테면 <아바타Avatar>야말로 기병대와 인디언들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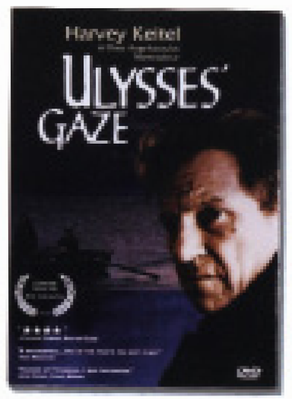
이때 서부영화의 마지막 위대한 고전이라고 불리는 <수색자The Searchers>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인디언에게 붙잡혀간 조카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서부의 사나이 존 웨인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내 번쩍 들어 올리면서 한 대사는 그 후로 수없이 미국영화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집에 가자." 서부영화로 설명되는 모든 미국영화는 결국 이 한 마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나선 모든 서부의 사나이들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은 것이다. 이 대사야말로 길 위에서 역사를 시작한 나라에 어울리는 향수가 아니던가.

존 포드
<역마차>
1939년

테오 앙겔로풀로스
<안개 속의 풍경>
1988년



테오 앙겔로풀로스
<황새의 정지된 비상>
1991년



테오 앙겔로풀로스
<율리시즈의 시선>
1995년

역사에 의해 끊어진 유럽의 길

유럽을 여행하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이상한 순간은 국경을 넘어갈 때였다. 누군가의 차에 실려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유럽의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싶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프랑스 음악 방송이 지지직 소리를 내더니 어느 사이에 이탈리어로 진행되는 방송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아무런 검사도 없이 지나가던 그 순간 지금 막 내가 국경을 통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지도 위에서의 길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진다면 유럽의 길은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선의 연결이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철도는 기차로 그들을 이어주었으며,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에 몸을 싣는 순간 그들을 유목민으로 만들었다. 종종 어떤 도시는 두 개의 나라에 걸쳐 서 있으며, 또 어떤 도시는 역사를 통과하며 두 개의 나라를 오가기도 하였다.

유럽인들은 영화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종류의 예술을 들고 이동하였다. 영화가 처음 태어났던 1895년 12월 27일, 프랑스의 루이 뤼미에르Louis Lumiere와 오귀스트 뤼미에르Auguste Lumiere 형제는 카메라를 들고 역에 들어오는 기차를 찍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지. 그 이후 영화의 상징은 기차가 되었다.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유럽 로드 무비의 계보를 쓸 수도 있다. 혹은 나라별로 길을 따라 여행했던 영화들을 열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지면에서 대신 유럽의 길을 따라 여행하고 또 여행했던 두 사람의 영화를 소개할 생각이다. 첫 번째 이름은 빔 벤더스Wim Wenders이다. 이 독일 감독은 처음에는 독일의 도시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벤더스는 미국영화에 심취하였으며, 존 포드의 서부극을 사랑했다. 그는 역마차 대신 자동차에 올라타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도시를 여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치 길에 관한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영화를 찍어나갔다. 종종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카메라를 폴라로이드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여행이 어디서 문제를 만나는지 알게 되었다. 그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국경이었다(벤더스는 1970년에 첫 번째 영화 <도시의 여름Summer in the City>을 찍었다.). 벤더스의 걸작 <시간이 흐르면Kings of the Road>은 2시간 55분 동안 그 국경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사의 이야기이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여행. 서부영화의 여행이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모험의 길이라면 유럽인의 여행은 결국 역사와 만나는 중단의 여행일 수밖에 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벤더스는 마주쳐야만 했다.

다른 또 한 사람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테오 앙겔로풀로스Theodoros Angelopoulos는 자신이 현자들의 나라, 철학의 대지, 그리고 모든 희곡의 첫 시작이었던 땅 그리스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앙겔로풀로스는 자기가 따라가는 길을 신화의 길목으로 만들었다. <유랑극단The Travelling Players>, 혹은 <안개 속의 풍경Landscape in the Mist>과 <황새의 정지된 비상The Suspended Step of the Stork>, 그리고 어느 영화보다도 <율리시즈의 시선The Gaze of Odysseus>.

어쩌면 앙겔로풀로스 자신은 영화와 함께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스스로 율리시즈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적 인물. 그러나 그 집에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모험. 하지만 현대에서 율리시즈를 기다리는 모험은 피로 물든 유럽 역사의 굴곡이다. 혹은 오로지 노래하는 것만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오르페우스Orpheus의 지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 돌아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야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를 간절하게 부르는 아내의 소리. 역사의 소리.

에세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시작한 빔 벤더스와 반대로 철학과 시를 노래하는 예술가 앙겔로풀로스는 거의 동시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영화를 시작하였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뿐이다. 그들은 유럽인들이었고, 그리고 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만난 것은 역사에 의해서 끊어져버린 유럽의 길이었다.

새로운 중국을 찾아 떠나다

세 개의 나라가 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서로의 역사는 서로 겹치고 혹은 나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문화를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 약탈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길을 따라 이어지고 또 때로는 끊어졌다.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길은 깨우침의 상징이었다. 부처의 길이 그러하였다. 중국 사대 기서 중의 하나인 <서유기西遊記>는 결국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겪는 모험과 거기서 얻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침략이 이어졌고, 또 다른 이민의 역사가 이어졌다.

여기서는 영화에 제한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가까우면서 또한 멀리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 사이의 역사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실상 중국영화가 바깥에서 다시 발견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중국영화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선전영화들이었고, 실제로 이 영화들은 서방세계 영화제에서 거의 상영된 적이 없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黑苗白苗(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론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예술적 자유를 구가하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그 신호탄이 된 영화는 천카이거陳凱歌의 <황토지黃土地, Yellow Earth>였다. 1939년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팔로군 병사가 구전민요를 수집하기 위해 산간벽지의 한 시골마을까지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소녀에게 예안에 가면 사회주의가 실현되어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병사는 떠나고 소녀는 돈에 팔려 시집을 간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소녀는 예안에 가기 위해 강을 건너지만 그 강물은 소녀가 건너기에 너무 넓고 거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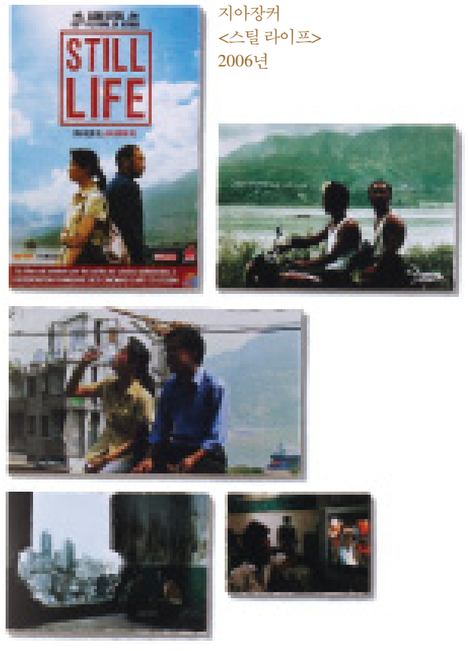
이 영화는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그런 다음 중국의 영화감독들은 한편으로는 베이징에 머물면서 인민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험한 길을 따라떠돌며 새로운 중국을 찾아 나섰다. 말 그대로 '대장정大長程'의 영화들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대장정'은 1934년 국민당의 군대와 싸우면서 인민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마오쩌둥의 교시에 따라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를 서쪽으로 걷기 시작했던 역사적인 행군이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중국영화들은 새로운 중국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인민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중국영화는 그렇게 길을 나섰다. 때로는 거기에 유머를 담았고, 때로는 눈물과 분노를 참으면서 찍었다. 남편의 '거시기'를 걷어찬 마을 촌장을 고발하기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산골마을에서 베이징에 이르는 긴 여행을 떠나는 공리巩俐 주연의 장이모우張藝謀의 걸작 <귀주 이야기秋菊打官司, The Story of Qiu Ju>, 제6세대의 새로운 이름 지아장커賈樟柯가 댐 건설로 인해 강물에 잠기고 있는 절경의 산사三峽에서 사라져가는 중국을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는 <스틸 라이프三峽好人, Still Life>, 왕빙王兵이 사라져가는 철강도시 셴양에서 2년간 살면서 찍어나간 9시간 40분에 이르는 다큐멘터리 <철서구鐵西區, West of the Tracks>. 아주 특별하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의미심장하게도) 베이징에 사는 조선족 감독 장률은 탈북자 어머니와 아들을 몽골까지 따라가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경계>).

중국의 위대한 문호 루쉰魯迅은 이렇게 말했다. "본디 길은 없으면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자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지금은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희망의 길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길에 대해서 이보다 더 현명한 깨우침을 주는 말을 알지 못한다.

왕빙
<철서구>
2003년

천카이거
<황토지>
1984년



지아장커
<스틸 라이프>
2006년

장이모우
<귀주 이야기>
1992년

일본, 길에서 발견한 유토피아

야마다 요지
<남자는 괴로워>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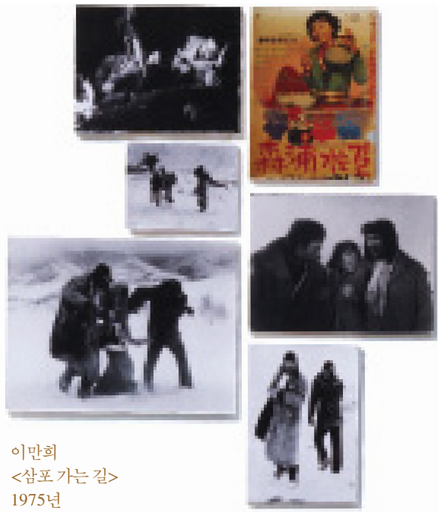
반대로 일본영화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길의 전통에 관한 영화들을 만나기 힘들다. 일본의 위대한 영화감독들, 이를테면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나 미조구치 겐지溝口健二,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나루세 미키오成瀬巳喜男는 길에 관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비평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일본은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와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영화에서는 집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바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했죠. 그런 다음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개의 원자폭탄을 맞았으니까요."

물론 길에 관한 일본영화의 걸작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 寅次郎懇やつれ, Tora-san's Lovesick>는 굉장한 시리즈다. 이 영화는 1969년에 첫 번째 시리즈가 만들어진 이후 1995년 마지막 28편이 만들어질 때까지 매번 일정한 수준 이상의 웃음과 눈물을 담아냈다. 단 한 편의 예외 없이 야마다 요지山田洋次가 감독하고 역시 예외 없이 아츠미 기요시渥美清가 주인공 도라 상을 연기한 이 시리즈는 기요시가 세상을 작고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도라 상은 일본 열도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여행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말 그대로 일본인들을 만난다. 도라 상은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죄책감과 전후 일본의 정신적 붕괴 속에서 선한 일본인들의 세계를 찾아 마치 유토피아를 그려내듯 길을 따라 나선다. 말하자면 이 영화들을 모두 모으면 일본의 (상상적인) 마음의 지도가 되고, 도라 상의 발길은 그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길 안내가 되는 셈이다.

한국, 막혔거나 사라져버린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1987년



이만희
<삼포 가는 길>
1975년

그런 다음 그 사이에서 자기의 역사를 써나간 한국이 있다. 우리들은 당연히 한국의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아마도 가장 먼저 소설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문학 속에서 주인공들은 번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혹은 그 길이 어디선가 끊어져버렸다. 왜 집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도 힘들까. 이제하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이장호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하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돈 많은 집안의 치매 할아버지를 돌보는 간호사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돌아온 이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에 이끌려 한겨울 눈 덮인 길을 나선다. 하지만 그 길은 눈 속에서 자꾸만 지워지고 그들이 가는 길은 어디로 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만 난 길,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없는 길, 휴전선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여기 반대 방향의 대답이 하나 더 있다. 황석영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이만희의 <삼포 가는 길>도 역시 한겨울 길을 따라 여행한다. 술집에서 막 도망쳐나온 작부 백화와 저작거리 두 사내가 따라가는 한겨울의 시골길은 거의 사라져버린 한국의 풍경이다. 그것은 새마을운동과 근대라는 이름으로 거의 때려 부숴버린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향하는 길이다. 눈 내린 마을 저편, 저녁이 다가오자 이 집 저 집에서 밥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쥐불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멀리서 아른거리는 풍경 속을 세 남녀는 걷고 또 걸어간다.

한국영화 속의 길은 둘 중 하나이다. 그건 어디선가 막혀버렸거나 혹은 이미 사라져버린 길이다. 그때 주인공들은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우리들의 역사는 그 길을 끊어버렸고, 서구의 근대는 그 길을 모두 지워버렸다. 하지만 두 길의 공통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점점 지워져가는 기억 속에서 이따금 가까스로 그 길을 떠올릴 뿐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매년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누가 보아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집단적인 이동. 그래도 그걸 해야만 한다. 그걸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인이다. 그때 우리들은 길 위에서 집을 생각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사라져가는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 속의 고향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향수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서편제> Scene No. 41

슬픔을 웃으며 아픔을 삭이며 가는, 삶이라는 길

Feigning Laughter and Swallowing Pain, on the Life-long Path

글 정성일

1992년 11월 18일 오전 9시 20분. 날씨 맑음. 임권택 감독은 그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이끌고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섬 청산도의 한 고갯길에 섰다. 지금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중이다. 시나리오에는 그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써 있을 뿐이다. "신 41. 멀리서 '진도아리랑'을 주고받으며 송화와 유봉이 걸어온다. 동호도 흥이 나서 메고 있던 북을 친다." 임권택 감독은 이미 이 길을 몇 번이고 지나가면서 이상하게도 구불텅하고 또 끊길 듯 이어진 길이 참으로 우리네 인생길과도 닮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런 길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걸 한 번에 찍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지요." 임권택 감독과 벌써 20년을 함께한 정일성 촬영감독은 카메라를 버티어놓고 저 멀리 고갯길 세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사람이 살며는 몇 백 년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게 사세, 문경새재는 웬 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버지와 송화, 남동생 동호는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걸어온다. 첫 번째는 중간에 송화의 치마가 말려 올라가는 통에 엔지가 났다. 두 번째는 필름이 중간에 끊겼다. 세 번째 마침내 오케이가 났다. 중간에 슬그머니 바람도 불어 운치를 더했다. 옛 명창 귀신들이 도운 걸까. "거 참, 이 장면을 보면 흥興과 한恨이 함께 있는 거요. 이게 한국사람들이 모진 세상 견디면서 살아가는 힘인 거요." 5분 40초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이 유명한 장면은 한국영화사의 명장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이 되었다. 슬픈 것도 웃으면서, 아픈 것도 감싸 안으면서 살아가는 세상길. 살아가야 하는 길. 말하자면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는 삶의 길.

미술에 길을 묻다

그림에도 걸어가라, 그것이 인생이다

Metaphor of Life on the Canvas

길은 인간적이다. 본래 자연계에 길이란 없었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몸으로 밀고 나간 자취, 그 인간적 흔적이 길이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기억되고 부단히 다져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 미술에서도 그 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되고 변주되어 나타난

길은 그 길을 필요로 했던 이들의 생과 그 길을 통해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절박한 욕망을 상상하게 한다. 무엇이 그 길을 갈망하게 했을까? 그래서 대지에 난 길들은 순연한 생의 지도로 다가온다. 풍경은 길이 있음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적인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보기도 하지만 읽기도 한다. 나는 화집과 도록을 들춰가며 수많은 그림을 본다. 그것이 직업이고 일이다. 어느 날 문득 그림 안에 그려진 여러 길들을 생각해보았다. 그 길이 무엇인지 읽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어떤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바로 그림일 텐데, 거기에 기생해 나는 또 다른 욕망을 얹어놓는다.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같은 일일 것이다.

길은 순연한 생의 지도다

조선시대의 산수화나 인물 산수화는 언제나 즐겨 감상하는 그림이다. 현대미술의 현란한 작업들을 질리게 보고 온 날이면, 고요하고 소박한 옛 그림이 나를 치유한다. 그 그림 속에는 한결같이 산이나 바다로 난 작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선비나 고사高士의 뒷모습이 있다. 그런가 하면 산 속 작은 집에 홀로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관조하는 선비의 모습도 있다.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 칩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거나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궁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옛 그림 속의 길이나 다리는 또 다른 생의 길에 대한 은유다. 그러하기에 그 그림들은 더없이 매력적이다. 그 속에는 세상을 끊고 물러날 때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대한 단호한 선택이 담겨 있다. 우리 옛 선비들은 자연에서 맑은 성정을 배우는 한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인생을 성숙시키고자 그 같은 그림을 즐겨 그리고 감상하였다. 그림에서 그런 운치 있는 생애를 추구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 전통회화의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그 같은 멋은 죄다 사라져버렸다.

글 | 박영택 성균관대에서 미술교육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10년간의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생활을 거쳐 미술평론가로, 또 경기대 예술학과 교수로 지내며 미술을 바라보는 그만의 시각을 갈고닦고 전수하며 살고 있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얼굴이 말하다』 『수집 미학』 『테마로 보는 한국 현대미술』을 펴냈다.

전통 산수화 속의 유토피아

여기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년이 그린 작은 그림이 있다. 정선이 금강산의 절경 여덟 군데를 그린 화첩 속에 있는 그림이다. 금강산도 화첩에는 정양사, 표훈사, 만폭동, 비로봉, 은선대, 백천교, 낙산사, 삼일포가 담겨 있는데, 이 그림은 바로 낙산사를 그린 것이다. 낙산사 앞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나선 선비들의 행렬을 그린 그림이다. 당대의 명필 이광사李匡師, 1705~1777년가 그림 안에 화제畫題를 썼다. 내용은 이렇다. "참을 찾는 나그네 맘 바삐 누대에 올라 높은 난간 기대이니 안계眼界(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가 길구나. 소낙비 지나갈제 하늘은 멀고 푸른 산 끊어진 곳 바다가 아득하네. 관음굴 터진 곳은 천 년이나 예스럽고 의상대는 높직하여 오월이 시원하네. 저물녘의 물과 바람 안개 모두 불어내니 부상扶桑(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서 솟는 햇살 보기 좋구나. " 가파른 산에 난 작은 길 위에 몇 사람이 모여 있다. 장엄한 해돋이 장면을 보기 위해 그 길을 걸어 올라온 것이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 올라오는 이도 있다. 넓고 깊은 바다와 넘실거리는 파도의 모습이 화면 끝까지 올라와 있다. 그것은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는 이의 시선에 계속해서 따라붙은 바다의 수평선이다.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생성 중이며 활력이 넘친다. 살아서 숨을 쉬며 마냥 뒤척인다. 바다를 보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계의 풍경을 뒤로 하고 가파른 산을 타고 앞으로 밀고 나간다. 그곳까지의 길은 앞선 이들이 만들어놓은 길이고, 동일한 욕망에 의해 가능해진 길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서서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영원히 소진되지 않을 바다의 출렁임을 본다. 그림 속의 선비는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순환과 이치를 새삼 깨닫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오로지 '영원한 지금'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인의 순환적 시간관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서글픔, 투명한 외로움 같은 것을 만난다. 거대한 영원 앞에서 한낱 꿈 같은 찰나적인 생을 살다 소멸될 운명에 처한 이들의 삶에 대한 자각. 그것은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과 자신이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 자연의 무한 영역에 자신을, 주체의 감각과 사고를 열어두는 일이고, 인간이 절대적 주체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성의 타자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 살아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그 깨달음은 바다로 난 가파른 길 위에서, 자연 경관을 조망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전통 산수화는 당대인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을 이해하려는 인식 행위의 소산이었다. 그림 안에 그들이 꿈꾸었던, 바람직한 삶의 유토피아를 가설해보는 일이었다. 그 거대한 생명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란 존재를 자연계와 연결하려는 이 타자성에의 지향은 무척이나 소중한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
<낙산사洛山寺>
정선
종이에 수묵담채
27×38.5cm
18세기
정양사, 표훈사, 만폭동, 비로봉, 은선대, 백천교, 낙산사, 삼일포 등 금강산의 절경 여덟 군데를 담은 정선의 금강산도 화첩 중 낙산사의 모습이다. 낙산사 앞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나선 선비들의 행렬을 담았다. 그림 안의 화제는 당대의 명필 이광사가 쓴 것이다. 개인 소장.

↑
<귀려歸旅>
이상범
종이에 수묵담채
77×196cm
1960년대
평생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던 이상범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의 소박하고 평범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농사와 노동을 위해 반복해서 떠나고 돌아오는 길을 담은 이 그림은 그 길을 오가며 절실한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길을 바라보다

근대는 전통적인 삶과 생의 욕망이 다른 식으로 대체된 시기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꿈꾸었던 생의 욕망에 관한 흔적 역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전통이다. 이상범李象範, 1897~1972년이 그린 <귀려>는 20세기 초의 풍경이다. 충청남도 공주의 산골에서 태어나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는 일평생 자신이 살아온 향토의 야트막한 산등성과 스산한 잡목과 잡풀, 찌그러진 초가지붕, 농부의 모습을 먹과 화선지로 담았다. 수평으로 자리한 구도에는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 단색조로 펼쳐져 있다. 건조한 대기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상단에는 야트막하게 이어진 산 능선이 그려져 있고, 소를 앞세운 남자의 굽은 등이 작은 개울물과 역방향으로 느리게 흘러간다. 하단에는 작은 천이 졸졸거리는 소리를 내며 흐르는 듯 그려져 있다. 작가 특유의 반복적으로 끄적거린 붓질이 마냥 청각적으로 다가온다. 이 그림은 먹고살기 위해 농사와 노동을 하며 반복해서 떠나고 돌아오는 길을 보여준다. 일하러 나가는 길, 귀가하는 길이 겹쳐지고 그 길을 오가며 절실한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들의 순연한 노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범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의 격변을 통과하면서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서민의 시선으로 우리네 자연을 바라보았다.

소박하고 정겨운 길 위에서

박수근朴壽根, 1914~1965년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1950~60년대 우리 모습 가운데 근대화의 변두리에 남아 있는 삶의 정경만을 소재로 택했다. 근대화 공간의 가장 빈한했던 구석들에 대한 신화화인데, 집안일을 꾸려가는 아낙네, 그들이 돌보아야 하는 아이들, 이들의 일터나 놀이터였던 동내 어귀나 길, 냇가, 언덕, 개천가 등이 그것이다. 그 공간은 박수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집, 골목, 마을, 빨래터, 강변, 거리, 시장 등을 즐겨 다루었으며,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착한 이웃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대부분 원경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대상을 보는 작가의 관조적 시점이 엿보인다.

짐을 머리에 인 여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로 들어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있다. 박수근 특유의 화강암 질감과 돌이나 벽의 색감을 찐득하게 머금고 있는 화면에는 소박하고 강직한 선으로 간결하게 대상의 윤곽이 그어져 있다. 행상을 나간 엄마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장에 나간 엄마를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엄마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겨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인 듯도 하다. 커다란 나목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 동네까지의 긴 길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가족이 있다. 무척이나 서정적인 장면이다. 그의 그림은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의 삶을 이토록 '짠하게' 각인시켜준다. 박수근은 짧은 생애 동안 동시대의 삶의 환경과 주변 서민들의 생애를 자신의 화폭에 담담하고 착실하게 담았다. 오로지 그림만을 그렸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당대의 풍경, 그 진실을 소박하게 그려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을,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절실하게 여겼던 것만을 그렸으며, 그것을 화가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하기에 강인하고 근면하며 따뜻하고 선량한 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먼 곳까지 가서 행상을 하거나 장에 물건을 내다판 돈으로 자식들을 길러냈던 모든 어머니들이 두 발로 걸어 다녔던 그 길 말이다.

<길>
박수근
하드보드에 유채
31×18cm
1964년
박수근 특유의 화강암 질감, 그리고 돌과 벽의 색감을 머금고 있는 화면에는 소박하고 강직한 선으로 간결하게 대상의 윤곽이 그려져 있다. 행상을 나갔던 엄마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듯한 뒷모습에서 가난하고 힘겨웠던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다. ©박수근

<피곤하기도…>
노석미
종이에 아크릴
25×19cm
2005년
매일 걸어야 하는 삶의 길을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했다. 등산복 차림을 한 누군가가 산 속 좁고 가파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높고 뾰족한 붉은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길가에 낙석주의보 팻말이 보인다. 그러나 이미 들어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노석미

삶, 걷고 또 걸어야 할 그 길

삶은 내 앞에 자리한 길고 긴 길이다. 물론 그 길이 언제 느닷없이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길이 존재하는 데까지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한다. 그리고 삶을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노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생은 무지막지한 욕망이라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생의 길이란 그 욕망이 그려놓은 길이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하루라는 생의 길을 가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자 여정이지만 무사히 그 길을 돌아와야 하는 게 삶이기도 하다.

노석미는 매일 걸어야 하는 삶의 길을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명도 높은 색채와 단순한 형태, 그리고 제한된 색채, 흥미로운 문구가 결합되어 재미있는 그림이야기를 만들었다. 등산복 차림을 한 작가 자신이 산 속 좁고 가파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하다. 높고 뾰족한 붉은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길가에 낙석주의보 팻말이 서 있다. 그러나 이미 들어선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 그림은 말한다. "피곤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싫다…"라는 문구가 씌어져 있는 하단은 그림 속 인물의 중얼거림, 독백과도 같다. 매일 반복적으로 걸어야 하는 그 길 위에서 피곤해지고 지치기도 하는 것이 삶이다. 그럼에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신 앞에 난 삶이란 길을 계속 걸어야만 한다. 공감이 가는 그림이자 무척이나 슬픈 느낌을 자아내는 그림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는 길이 상징과 은유로, 당대의 삶에 대한 재현으로, 서정적인 고백의 매개로 쓰인 몇 편의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그 길을 통해 새삼 길에 대한 사유를 부풀려보는 한편 내 앞의 삶이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곰곰 생각해보고 있다.

키하르카스와 이디시 음악,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

솔롱고스의 새벽 산책길에 사운드트랙은 흐르고

Promenade of Solongos at Dawn and the Soundtrack in my Mind

마치 영화의 사운드트랙처럼, 가슴 떨리는 기억의 한 자락에는 음악이 흐른다. 마음에 둔 이성과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홀로 길을 걸을 때, 귀에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가슴속에 흐르는 음악을 느낄 수가 있다. 시인 김갑수가 몽골의 어느 산책길에 울려 퍼졌던, 마음속의 사운드트랙에 관한 추억을 고백한다.

아침 6시 정각, 예상 밖으로 그녀가 숙소 앞에 나와 있었다. 약간 놀랐다.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군데. 산자락 쪽을 향하려는 그녀를 반대 방향인 분지 형태의 아래쪽 초지로 이끌었다. 어마어마한 광대무변廣大無邊의 초지가 펼쳐지건만 숙취의 새벽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뭇했다. 양 떼는 우리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잠 없는 양몰이 개 몇 마리가 멀찍이서 뛰어다닌다. 내리막길이 다소 가팔랐는데 손목을 잡은 적이 있었던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풀들은 몹시 젖어 있었고 앉을 곳도 몸을 가릴 곳도 없었다. 서울 소식을 말했을지도, 어쩌면 그녀가 오래 거주했던 러시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에게는 1950년대 비련의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 이미지가 느껴졌다. 표정 깊은 표정.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입 다물고 듣기만 하는 타입도 아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기미가 많았다. 하지만 예뻤다. 유행가 제목처럼 그녀는 아주 예뻤다.

글 | 김갑수 시인, 문화평론가. 1984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시집 『세월의 거지』를 펴냈다. 음악 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삶이 괴로워서 음악을 듣는다』 등을 펴낸 음악 애호가이기도 하다. 현재 YTN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건주 사진가. 디자인하우스 사진기자로 일하며 여행, 인테리어,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을 찍었다. 현재는 독립하여 프레임 스튜디오Frame Studio의 실장으로 있다.

김갑수 시인의 개인 작업실 '줄라이홀'

음악은 기억 속에 스민다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키는 영화 사운드트랙처럼 모든 인상 깊은 기억 속에 음악이 스민다. 그 음악을 떠올리는데, 실은 유쾌해야 할 텐데, 가슴 한켠이 미묘하게 쓰리다. 그때 나는 몽골에 있었다. 어떤 철강회사에서 이른바 '협찬'을 해준 여행길이었다. 국회의원, 교수, 대기업 임원…. 뭐 그런 사람들 십여 명. 하지만 일행 속에서 함께 간 세 친구가 별동대처럼 따로 놀았다. 사진작가 윤, 문화심리학자 김, 그리고 나. 몽골행 두 번째 날 새벽부터 산악 바이크와 사륜지프가 거칠게 달려 도착한 곳이 솔롱고스Solongos 캠프였다. 평생 정보부 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일명 '피스톨최'가 은퇴 후 정주한 여행자 숙소였다. 솔롱고스는 무지개를 뜻하면서 또한 한국을 뜻한다. 평생 외국으로만 떠돌아 고국이 그립다는 피스톨최 부부가 정작 터 잡은 곳이 머나먼 몽골 땅이었던 것이다.

환영만찬으로 어린 염소를 잡아줬다. 날고기, 구운 고기, 삶은 고기, 그리고 정신없이 돌리는 칭기즈 브랜드의 보드카. 취기 속에서 일행 모두가 주책 모드에 돌입했다. 바로 피스톨최 부인에 대한 경쟁적인 예찬이 벌어진 것이다. 찬미의 노래, 예찬의 춤이 펼쳐졌는데 그 밤의 위너가 바로 나였다. 나는 노래도 춤도 서툰 대신 아주 긴 즉흥시를 읊어 그녀를 예찬했다. 아마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온갖 시인의 구절을 마구잡이로 도용했을 것이다. 박장대소와 환호성 속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부인과 다음날 새벽 산책을 함께할 특권을 얻었다. 띄엄띄엄 떨어진 캠프들이라 날밤을 새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아침 정각 6시, 저 멀리 피스톨최 부부 숙소 앞에서 머리를 쓸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이상한 반응이다. 흠칫 놀라고 있는 내 모습은.

'사랑과 자유'를 '길 위에서 홀로'

키하르카스K'jarkas라는 이름의 볼리비아 3인조 형제 그룹이 있다. 차랑고, 삼포냐, 께냐 같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남미 민속악기가 힘차게 울리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애상이 실린다. 솔롱고스 캠프의 아침 산책길에서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곡이 바로 키하르카스의 노래 '사랑과 자유El Amor Y La Libertad' 였다. 리듬은 빠르고 음성은 격하게 울리는데 흡사 정지화면 같은 명상성이 곡 안에 있다.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자와 함께 나온 CD 모음집에서 이 곡을 발견했다. 여행지에서 잠깐 새벽 산책에 동행한 아름다운 남의 부인에게 대체 무슨 심보로 사랑이며 자유를 운위하겠는가만, 있을 수 없는 감정은 아니라고 믿는다. 구속과 속박이 존재해야만 자유를 갈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 그 자체가 곧 자유함이 아니겠는가. 키하르카스의 음악성 대신 열심히 사랑 또는 사람의 자유함을 설파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킥킥 웃었던가 아닌가.

키하르카스
'사랑과 자유'

플라잉 불가 클레츠머 밴드
'길 위에서 홀로'

솔롱고스 산책의 두 번째 사운드트랙은 이디시Yiddish 음악이다. 중동, 정확히는 옛 이스라엘 지역의 고어古語인 이디시 언어로 부르는 민속 음악인데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에 흐르는 노래를 떠올리면 된다. 우리말로 풍각쟁이라고 할까. 거리 음악패를 일컬어 그들을 클레츠머Klezmer라고 한다. 그 후예들이 세계 전역에서 활동한다. 플라잉 불가 클레츠머 밴드Flying Bulgar Klezmer Band도 그 중 하나로 미국에서 활동한다. 대부분의 곡이 떠들썩한 잔치풍이건만 음반마다 한 곡씩 아주 느리고 슬픈 곡이 담기는데 아, 들려주고 싶다. '길 위에서 홀로Aleyn In Veg'라는 곡. 인생은 여행길이고 그것은 고독한 길이고 하지만 숙명과 같다는 것. 통속한 생각일지라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사람을 갈구하건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무리지어 살건만 외롭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모두가 길 위에서 홀로 산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보내야 했던 정보부 요원의 아내에게 이 노래는 얼마나 실감나는 것이었을까.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나 광화문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을 일평생 맴돌이하고 있는 나 역시 '길 위에서 홀로'를 되씹고 있는 판인데….

스타일은 생존 그 자체다

이제 아침 산책길 사운드트랙으로 한 곡만 더 추가하고자 한다. 사랑과 자유가 있었고, 길 위에서 홀로 걷는 고독감이 있었지만 빠진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이 그저 살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다. 어떤 것이 멋스러운지는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겠지만 그 안의 공통항은 바로 '멋'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뜬금없는 이 새벽 산책 역시 같은 욕망이 아니겠는가.

'스타일 잇 테익스Style It Takes'라는 노래가 있다. '그대가 택한 스타일'쯤으로 번역하면 될까.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음악에도 관여했다. 펑크음악의 원조라 할 그룹 벨벳 언더그라운드The Velvet Underground의 프로듀싱을 한 것이다. 이 '벨벳'의 멤버들이 심상치 않아서 보컬 루 리드Lou Reed는 시라큐스대 출신의 시인이기도 하고, 건반과 현을 맡았던 존 케일John Cale은 전통 클래식 음악 전공자다. 워홀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세월이 흐른 후 루 리드와 존 케일이 만나 워홀을 위한 진혼 음반을 만들었다. '송스 포 드렐라Songs for Drella'가 그것인데 그 안에 담긴 절창이 바로 '그대가 택한 스타일'이다. "너는 돈을 취했고 나는 자유를 취했다, 너의 천재성과 나의 평범함이 부딪쳤다…." 노래는 시종일관 '너는 무엇을 나는 무엇을'의 대조로 흐르는데 팝아트 특유의 냉소와 위악성이 깔린다. 그래, 그들의 스타일은 멋졌다. 그 멋짐으로 성공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죽거나 파멸했다. 스타일, 즉 멋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존에서 여분의 몫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그녀에게 이러한 생각이 설득 혹은 납득이 됐을까. 그저 요설이나 말장난처럼 들린 것은 아닐까. 나는 스타일, 멋, 더 나아가 자기 문화의 추구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절박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절박한 어조로 말한다는 것은 좀 웃긴다. 나는 그녀를 웃기는 데 실패했다. 솔롱고스의 아름다운 여주인은 너무 진지하게 내 말을 경청했다. 새벽 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슬프다.

루 리드와 존 케일
'송스 포 드렐라'

바흐 칸타타 140번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레오시 야나체크 현악4중주 제2번
'은밀한 편지'

'은밀한 편지'의 결말

자동차의 거리와 자전거의 거리와 도보의 거리가 다 다르다. 보이는 풍광의 함량이 사뭇 다르다. 걷는 걸음의 느린 속도에 실리는 꽉 찬 음악을 나는 떠올린다. 몽골 어느 분지의 새벽 산책길에서 남의 부인과 공연히 가슴 설레며 걸었을 때의 그 배경음악을 떠올린다. 너무 많은 곡들이 쏟아져 나왔다. 바흐Bach 칸타타 140번의 도입 합창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의 벅차오름이 있었다. 이 칸타타는 반드시 칼 리히터Karl Richter의 지휘본으로 들어야 한다. 레오시 야나체크Leoš Janáček가 노경에 들어 사모하는 여인(그녀 역시 남의 마누라였다.)에게 헌정한 현악사중주 제2번의 제목이 '은밀한 편지Intimate Pages'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제목인데 특히 4악장의 들썩임이 절창이다. 그 기분 알 것 같다. 수많은 슈베르트Schubert 가곡이 떠올랐고, 전혀 뜬금없이 베네수엘라의 보석 솔레다드 브라보Soledad Bravo의 노래 '검은 비둘기Paloma Negra'도 퍼져 나왔다. 걷는 내내 음악, 음악, 음악이었다.

두어 시간의 산책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서성이다 우리를 발견하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남편, 피스톨 명사수라는 피스톨최의 모습이 보였다. 몽골행을 함께했던 친구 김이 나중에 그랬다. "맞아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소설가 함정임의 문탠로드

사람 이상, 사랑 이상, 꿈 이상의 그곳

Moontan Road, Where my Soul Dances to the Moonlight

떠나와 보니 알겠다.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떠나오기 전까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마음의 질풍노도를 고요히 지켜보고 가만히 어루만져주던 곳을. 작가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바람구두를 신은 존재, 여기가 아니라면 그 어디라도를 외치며 기어이 길을 떠나고야 마는 족속.
나는 지금 프라하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두바이 공항에 앉아 있다. 두바이 현재 시간 새벽 4시 반, 한국 시간 8시 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나는 해송들이 울울하게 서 있는 바닷가 언덕의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여행이란 일상의 시간에 마법을 거는 것. 공기도 바람도 숨결처럼 자연스럽던 일상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앞서 이끄는 것. 그리하여 낯설게 만드는 것. 이렇게 떠나와 보니 알겠다.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내가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글 | 함정임 소설가,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이화여대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이야기, 떨어지는 가면』 『버스, 지나가다』 『곡두』 등의 소설집과 『춘하추동』 『내 남자의 책』 등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 권준형

© 권준형

떠나와 보니 알겠다

부산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동쪽의 달맞이 언덕 문탠로드. 달빛을 받으며 해송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내 몸에, 내 혼에 달빛을 새기는 곳.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해벽海壁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와 이른 아침 창가에 와 지저귀고 간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 해안선을 따라 보일 듯 말 듯 나란히 놓여 있는 동해남부선 철길, 가끔은 해질 무렵 철길 가 노송 아래 초로의 사내가 '오, 대니 보이'를 금빛 색소폰으로 불고 있는 곳.
떠나와 보니 알겠다. 내 영혼의 눈이 응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면 두고 온 이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처럼 찾아가는 곳, 먼 곳으로 떠나고 또 먼 곳에서 돌아올 때면 마음 준 무엇이 어떤 빛, 어떤 형상일지 확인하는 곳, 새 작품을 구상하거나, 작품의 첫 문장이 내 몸 어디에선가 쑥 뽑혀 나왔을 때, 그리하여 손끝까지 미세하게 퍼지는 전율에 휩싸였을 때, 몸이 먼저 움직여 찾아가는 곳.
아아, 이렇게 떠나와 보니 알겠다. 그곳은 심하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도무지 어떤 것에도 마음이 맺어지지 않을 때나도 모르게 발길이 흘러가는 곳. 아침이면 해가 바다로부터 떠오르고 해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취를 감추면 그 자리에서 달이 떠오르는 곳. 해송들 사이 어린 나무 한 그루가 파도치는 해안가에 홀로 서 있고, 멀리 다섯 아니 여섯 개의 섬이 보일락 말락 손짓하는 곳.

문탠로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마음으로 또 혼으로 새겨온 내 영혼의 오솔길. 매년 여름과 겨울, 멀리 떠나기 전까지 내 삶의 배경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먼 거리를 이동해 낯선 타지에 도착하는 순간, 막 끝난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곳은 나를 압도한다. 끝이 나도 강하게 여운이 남는 작품들은 대개 주인공만큼이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환경, 곧 공간성이 뛰어나다. 구효서의 『저녁이 아름다운 집』(횡성)이나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워더링 하이츠),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의 『행복Bliss』(만개한 벚꽃을 비추는 달빛과 신비로운 정원),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즈Ulysses』(더블린)나 폴 오스터Paul Auster의 『뉴욕 삼부작New York Trilogy』(뉴욕). 이 작품들의 무대가 되는 장소들은 작가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으로, 작가는 이들을 주인공과 동격으로 작품 속에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평생 여러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이들 장소를 '토포필리아Topophilia'라 부르며, 작가마다 한 곳 이상, 삶과 문학에 자신만의 성소聖所를 갖게 마련이다. 정상적인 삶에서 어긋나 불가항력적으로 유년기를 보낸 어떤 곳, 행복의 유년기에서 쫓겨나 험한 청소년기를 겪어야 했던 어떤 곳, 그리고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적인 삶을 수행하며 작가만의 고유한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어떤 곳.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인 세목들, 세목들마다 주름을 만들며 깊게 스며든 장면들은 산책 중의 회상을 통해 작품 속에 부활하기도 한다. 나의 『환

대』라는 단편소설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발길을, 내 마음을, 내 혼을 앗아간 문탠로드 오솔길의 수많은 풍경과 무드情調가 환각처럼 어른거린다.

해질녘에 숲에 들어서면 언젠가부터 오보에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어두운 숲길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안서는 소리를 따라 떡갈나무 가까이, 그 아래 철길까지 걸어가곤 했다. 그러면 오솔길이 끝나는 나무 아래에 한 초로의 남자가 석양빛에 오보에를 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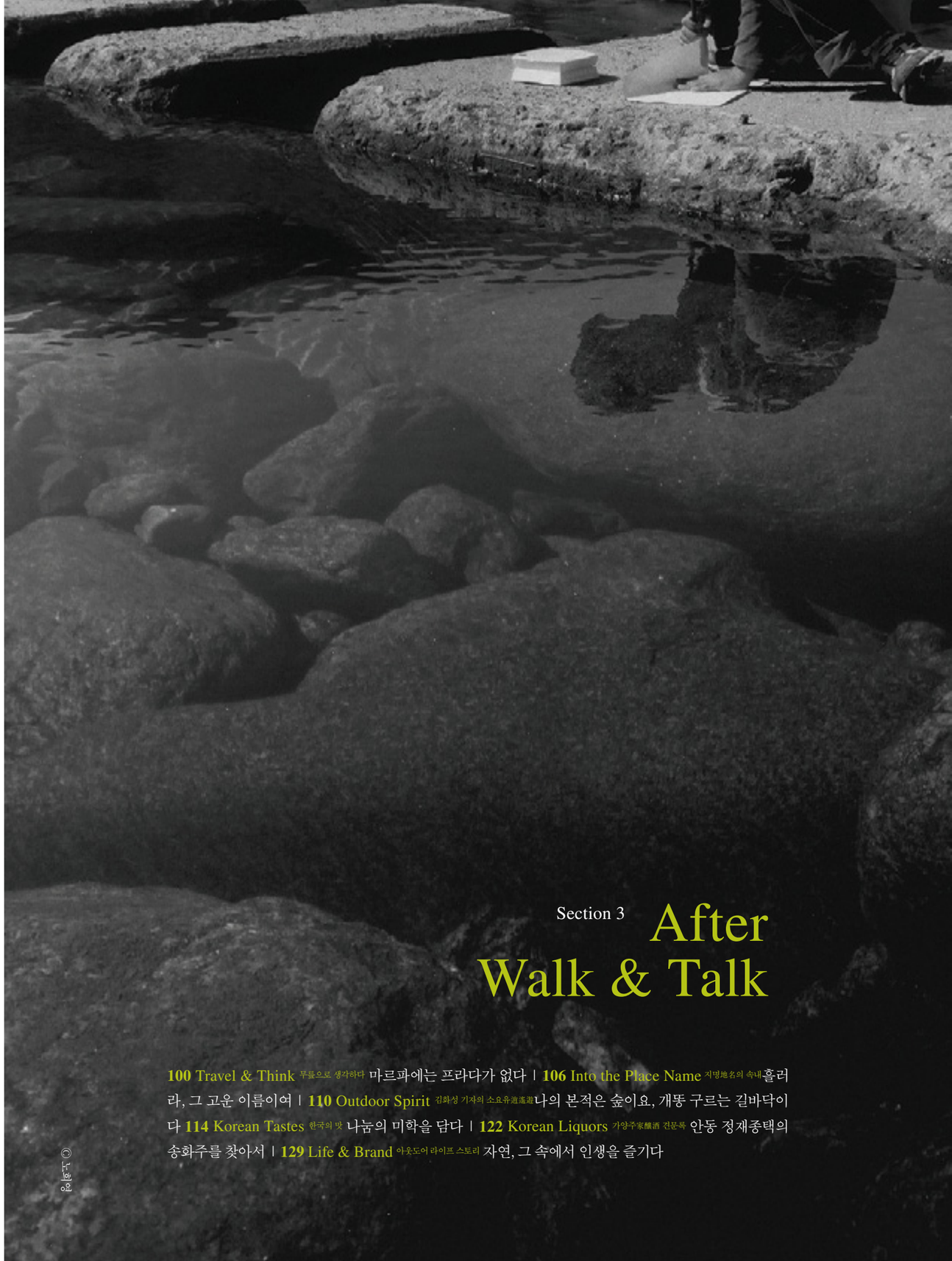
여기가 아닌 저기를 꿈꿀수록, 그리하여 감행할수록, 그것은 무엇보다 여기로 잘 돌아오기 위한 것. 떠나면 떠날수록, 떠나 있는 먼 곳에서 순간순간, 마치 깊은 거울 속의 내부를 들여다보듯, 여기 이곳을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저기를, 저기에서는 여기를. 저기는 무수하지만 여기는 오로지 한 곳, 현재의 공간, 곧 내 삶의 현장이다. 나는 일상 속에서의 예술을 꿈꾸듯, 삶의 현장에서 작품과 휴식을 동시에 도모한다. 서재와 부엌이 공존하고, 여행과 일상이 공존하고,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고, 나와 네가 공존하고, 인간과 우주가 공존하고, 현재와 과거, 과거와 미래,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리하여 영혼과 형식이 공존한다.

내 마음의, 내 작품의 성소

부산 동쪽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문탠로드는 서울에서의 삶을 접고 낯설기만 한 부산으로 삶을 옮겨온 나에게 터를 내준 곳이다. 터만이 아니라 작가에게는 혼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작품을 여럿 잉태시켜준 성소이다. 꽃이 피면 꽃이 피었다고, 꽃이 지면 꽃이 진 대로, 꽃 진 자리에 돋아난 잎사귀들이 푸르다 지쳐 노랗게 또 빨갛게 물들어 현란하면 현란한 대로, 또 꽃피어 질 때처럼 단풍들어 지는 순간까지 내 발길은 그곳으로 향하곤 했다. 청사포를 사이에 두고 어느 날에는 동쪽으로 구덕포를 거쳐 송정 모래해변까지, 어느 날에는 서쪽으로 미포를 거쳐 해운대 모래 해변까지. 이름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걸어가 닿는 포구들을 묶어 '삼포'라 부른다. 삼포를 잇는 달맞이 언덕의 오솔길을 걸으며 나는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을 떠올리기도 하고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을 떠올리기도 한다. 『삼포 가는 길』이 실제 그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무진기행』이 실제 어디인지 또 그곳이 실제 있기나 한지 여운만 남긴 채 끝나는 것처럼 내 발길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저, 파도치는 해안가 오솔길이면 족하다. 한 걸음 한 걸음 풍경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뒤틀린 삶의 곡절들이 순리적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꽉 막힌 작품의 앞길이 조금씩 열리는 흐름을 좇을 뿐이다.

멀리 떠나와 보니 알겠다. 내가 그토록 지칠 줄 모르게 원고를 쓰고, 강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온 다채로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또한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먼 곳까지 떠나와 더 먼 곳으로 떠나려 잠시 공항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내 등을 가만히 밀어준 것, 그것은 사람 이상의, 사랑 이상의, 꿈 이상의 그곳, 내 마음의 성소Soul Place, 달맞이 언덕의 오솔길임을.

© 권준호



© 노환영

Section 3

After Walk & Talk

100 Travel & Think 무릎으로 생각하다 마르파에는 프라다가 없다 | **106** Into the Place Name 지명地名의 속내 흘러라, 그 고운 이름이여 | **110** Outdoor Spirit 김화성 기자의 소요유逍遙遊 나의 본적은 숲이요, 개똥 구르는 길바닥이다 **114** Korean Tastes 한국의 맛 나눔의 미학을 담다 | **122** Korean Liquors 가양주家釀酒 견문록 안동 정재종택의 송화주를 찾아서 | **129** Life & Brand 아웃도어 라이프 스토리 자연, 그 속에서 인생을 즐기다

2005년 설치미술가 마이클 엥그린과 잉거 그래그셋의 설치미술 작품 <프라다 마르파>. 마르파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밸런타인 외곽에 있다.

길의 기억을 좇다

마르파에는 프라다가 없다

There is No Prada in Marfa

마르파Marfa는 미국 텍사스주에 자리한 사막 위의 작은 도시다. 인구는 2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예술 도시로서의 명성은 미국의 그 어느 도시만큼이나 높다. 미국의 미니멀 아티스트인 도널드 저드Donald Judd는 열다섯 개의 건물에 작품을 설치해 이 도시 전체를 자신의 갤러리로 만들었다. 도널드 저드의 흔적을 찾아 사막 위의 이 작은 도시로 길을 떠난다.

글 · 사진 | 박상미 화가, 번역가. 『뉴요커』와 『취향』을 펴냈고, 『이름 뒤에 숨은 사랑』 『앤디 워홀 손안에 넣기』 『어젯밤』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10년 잠정 귀국해 신사동 가로수 길에 세워진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의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난 2년 간 일하였다.

의사들이 주로 '피머Femur'라 부르는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이다. 그 뼈가 부러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한다. 충격이 심한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교통사고로 골절된 나의 오른쪽 대퇴골은 9개월간이나 부러진 상태로 있었다. 수술로 뼈 안에 철심을 넣었으나 뼈는 그대로 부러진 상태였다. 최근의 재수술 이후, 지난 달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마침내 뼈가 붙기 시작했다. 뼈 중간에 거뭇거뭇하던 부분이 하얗게 채워지고 있었다. 꺼멓게 부러졌던 부분이 그렇게 이어지고 보니 뼈가 길다는 것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굉장히 길구나. 긴 뼈구나. 발이 없다면 길이 없었을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내 다리 안에 길이 있었구나, 싶었다.

길은 다리의 꿈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직립하던 순간을 상상하는 건 기막힌 꿈을 꾸는 것만큼이나 감동적이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우아함이 성취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인간이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것은 300~400만 년 전의 일이고 이건 뇌의 발달이나 도구의 사용보다 먼저라고 한다. 아직도 진화학자들 간에 설이 분분한 것을 보면, 인간이 직립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미스터리다. 직립하여 두 발로 걷게 되면 속도나 민첩성이 떨어지고 나무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인간은 허리를 펴고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여기에 해부학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이 엉덩이와 허벅지다.). 두 발 보행으로 인한 득과 실이 있지만, 신기한 것은 걷는다는 행위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한 발이 땅을 디딜 동안 다른 발은 땅에서 발을 떼어 앞으로 나간다. 두 발이 함께 땅을 딛는 것은 아주 순간일 뿐 대부분은 한쪽 발로 서 있는 셈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균형 감각이다. 허리를 펴며 얻은 시야와 균형감으로 인간은 앞으로 나아갔고, 이 나아감과 길은 닮았다. 인간이 허리를 펴는 순간부터 인간의 몸은 길의 가능성을 품은 것이다.

하지만 사실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 길이 다리의 꿈인지 다리가 길의 꿈인지. 길에 대한 기억은 길에 대한 꿈이 낳은 자식이다. 길의 꿈은 벅차지만 길의 기억은 은밀하다. 기억에도 종류가 있다면, 희미한 기억이 있고 생생한 기억이 있고 시끄러운 기억이 있고 덤덤한 기억이 있다. 길에 대한 기억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종류이다. 머릿속에서 호들갑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뭔가 도화선을 건드리면 굉장한 열의를 갖고 되살아난다. 내 몸 속에 길게 난 허벅지 뼈를 본 순간처럼 말이다.

존 챔벌레인의 조각 작품.

"내 유일한 목격자는 텅 빈 하늘뿐"

내가 하루 동안 여행한 가장 긴 길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Austin에서 마르파까지의 길이었던 것 같다. 7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고 순전히 운전을 한 시간만 여덟 시간이 넘었으니까. 당시 내가 했던 여행은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남단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 I-10을 주로 타는 것이었는데, 오스틴에서 마르파까지의 길에서 I-10의 정수를 경험했다. 마르파는 엘패소El Paso에서 3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면 엘패소에서 가지 오스틴에서 가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길 위에 차는 거의 없고, 아무리 과속을 해봐야 잡는 경찰도 없고, 더욱 황당한 것은 주유소조차 없다. 내가 기억하기로 고속도로 초입에 있던 주유소를 빼고는 일곱 시간이 넘도록 길 위에 주유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 잭 케루악Jack Kerouac이 말한 대로 "내 유일한 목격자는 텅 빈 하늘뿐"이었고, 나는 그때 차 안에서 루 리드Lou Reed의 '페일 블루 아이즈Pale Blue Eyes'를 되풀이해서 들었다. 하늘은 나에게 모든 것인 어떤 이의 눈동자처럼 대단하게 느껴졌고, 내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뭔가 없다는 것, 하늘과 길밖에 안 보인다는 건 굉장한 드라마였다.

사막 위의 예술 도시

마르파는 치후아후안Chihuahuan 사막 위에 있는, 인구 2천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1880년 대 초반에 증기 기관차에 필요한 물을 채우기 위한 역으로 개발되었는데, 마르파라는 이름은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i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The Brothers Karamazov』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소설을 끝낸 것은 1880년 겨울이고 마르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시점은 1882년 1월이니까 누군가 번역되지도 않은 러시아의 소설을 읽다가 이름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황당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잘 살펴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의 이름 중에 '표도르의'라는 뜻의 표도라Feodora, 그리고 롱펠로우Longfellow, 에머슨Emerson, 마라톤Marathon(기원전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가 벌어졌던 평원)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 읽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실제로 러시아어로 소설을 읽다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그 책을 좋아하던 사람은 철도 공사를 맡았던 엔지니어의 부인, 한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름부터 매력적인 마르파에 가기로 했던 것은 그곳이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찬, 사막 위의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니멀리스트인 도널드 저드는 그 작은 도시 전체를 자신의 전시관으로 만들었다. 1946년 한국에 파병되는 길에 처음으로 마르파를 발견한 저드는 뉴욕에서 한참 활동하다 1972년 이곳에 건물을 사서 이사했다. 이후 그는 자기 작품의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마르파에 저드의 작품이 설치된 건물은 모두 열다섯 곳이다. 여기에는 전 은행 건물, 전 군대 사무실, 전 군수품 창고, 전 호텔 등 커다란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물들에는 저드 자신의 작품을 포함해 다른 미니멀리스트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어,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인 셈이다. 한 예술가가 세상을 상대로 벌인 일 중 상당히 특별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내 작품엔 공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공간들은 내가 마련한다는 태도로 도시 전체를 바꾼. 1994년 저드가

도널드 저드가 마르파의 옛 군대 창고에 설치한 작품 <무제Untitled>.

갑작스레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빚만 수십억 원이었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공간은 신이 세상을 지각하기 위해 이용한 인체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만 세상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드는 신을 꿈꾼 것일까. 미니멀리즘은 그 본질이 공간 속에서 지각하는 예술이고 특히 저드는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예술 작품의 경험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고 실제로 작품은 움직임에 의해 경험된다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군 기지였던 마르파에는 두 개의 대형 대포 창고가 있는데, 저드는 이 창고에 100개의 알루미늄 육면체 <무제Untitled>를 설치했다. 이 작품은 걷지 않고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는 감상이 불가능하다. 작품이 워낙 크고 넓은 공간에 반복되고 있기에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감상이 불가능한데다가,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육면체들이 시시각각으로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육중한 알루미늄의 육면체가 빛에 반사되어 공기 속에 떠 있는 얇은 필름처럼,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는 정말 감동적이다. 사막의 넓은 공간과 그 눈부시게 하얀 빛을 의식한 듯한 이 작업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작업이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프라다를 만나다

마르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볼 것이 많았다. 저드와 같은 미니멀리스트인 댄 플래빈Dan Flavin이나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의 작품들도 상당했다. 하루 종일 돌아도 보기 힘든 분량인데다 저드의 작품과 가구가 설치된 광경은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에 가까웠다. 조화로운 형태의 물건들이 공간 속에 드물게 배치된 모습도 아름다웠고 자물쇠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다.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카페도 있었고 멕시코인들이 하는 멕시칸 레스토랑도 있었다. 아이스크림 가게와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가 묵었던 호텔, 도시의 역사를 전시한 작은 뮤지엄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프라다 숍은 없었다. <프라다 마르파Prada Marfa>는 또 하나의 설치미술로 설치미술가인 마이클 엠그린Michael Elmgreen과 잉거 드래그셋Ingar Dragset의 작품이다. 2005년 이 작품이 처음 설치될 때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가 직접 전시할 핸드백과 구두를 골라주었으니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진 속에서 사막 위에 서 있는 프라다 숍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라다 마르파>는 이름처럼 마르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르파에서 60킬로미터나 떨어진 밸런타인Valentine이라는 도시의 북서쪽 외곽, 길 한가운데 있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숍을 구경했다.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물 안은 흙먼지와 마른 식물의 줄기 등으로 더러웠고, 핸드백과 구두는 유행이 지나 보였고, 몇 개의 구두는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을 벗어난 어떤 존재였다. 공간과 시간과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건물이고 패션이고 상황이었다. 어떤 오래된 죽음도 이보다 부적절할 수는 없었다. 이 맥락 없음이 연출하는 드라마 또한 굉장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만이 내 다리 밑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듯 뻗어 있었다.

흘러라, 그 고운 이름이여

동강, 아름다운 지명들의 꿰미

Let it Flow, Thy Lovely Name

동강은 아름다운 지명들로 흐른다. 오대천과 조양강이 합류하여 흐르는 길이 65킬로미터의 동강은 정선과 평창, 영월 세 군을 관통하는 사행천으로, 그 촘촘한 결마다 정겹고도 기이하며 고운 지명들이 꿰어져 있다. 이 아름다운 지명들의 꿰미는 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삶의 비경을 아스라하게 보여준다.

글 | 이하석 시인. 1971년 <현대시학>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40여 년간 꾸준하게 창작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990년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영남일보 논설실장을 거쳐 현재 대구문화재단 이사로 있다.

© 이한구

조양강이 동강으로 이름이 바뀌는 어귀에 있는 광하리는 광석마을과 망하마을에서 한 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다. '망하望河'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두고 누군가는 '물을 그리워하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동강변의 그 많은 물을 곁에 두고도 물을 그리워하다니, 어느 시의 제목처럼 낭만적이다. 하지만 사실 그 이름은 절박한 삶과 이어져 있다. 망하마을은 최씨의 중조中祖인 시봉 씨가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한 마을이다. 석회암 지대로 지하수가 솟아나지 않아 이곳의 모든 하천은 건천이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논은 없고 밭뿐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동강의 굽이굽이가 다 사람살이의 우여곡절이니, 거기 붙은 이름들도 그런 삶의 우여곡절과 닿아서 생겨났다.

동강은 옛 광석나루의 흔적을 담은 광석다리 아래에서 굴암리까지, 이어 도깨비굴을 지나 열두절, 우뚜루마을, 무당바우를 거쳐 만지산을 오른편에 끼고 상, 하 굴화마을을 지나 나팔동굴 아래 가리탄으로 흐른다. 우뚜루마을은 농경지가 넓고 비옥해서 붙여진 '윗들'의 이곳 말인데, 한자로 쓰면 상평上坪이라 한다. 무당바우라는 이름은 무당들에 관한 일화에서 비롯됐다. 무당들 몇몇이 이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바위 아래에서 급히 비를 피했으나, 벼락이 쳐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두 바위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때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바위 근처에서 장구와 징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동강은 이어서 아랫범소, 웃범소, 도로소를 거쳐 양지마을 아래로 해서 앞뼝창, 광탄으로 흘러 가수리로 뻗친다.

웃범소는 재름께마을 아래 건너편에 있는 소다. 호랑이가 빠져 죽었다고 해서 '범소'라 한다. 도로소는 양지마을 앞의 소인데, 물이 빙빙 도는 곳이라는 의미다. 앞뼝창은 광탄마을 맞은편 산 절벽이다. '뼝창'이란 가파른 절벽을 뜻한다.

말짝베리와 붉은병을 거쳐 가수리 마을의 중심인 수미마을을 지나면서 강은 순탄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납닥소를 지나 장탄여울을 거쳐 갈미소로 해서 가탄나루에 이른다. 이어서 새털여울을 지나 크게 용틀임하면서 삼형제여울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몸을 튼다. 말짝베리는 붉은병 위쪽 벼랑이다. '베리'나 '병'은 모두 벼랑이라는 뜻이다. 예전 길이 나기 전, 벼랑 위에 큰 발자국이 있어 말짝베리라 했다. 붉은병은 수미 서북쪽 절벽인데, 강물 옆으로 잘려나간 절벽이 붉은빛을 띠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장탄여울은 물길이 길다. 그 미끈한 물길이 사람의 장딴지 같다고 해 이름 붙여졌다. 납닥소는 수미나루 아래에 있는 소인데, 고한 사북에서 흘러내리는 지장천의 물줄기와 동강이 만나는 곳으로 너른 소가 됐다는 의미에서 납닥소라 한다. 수미나루는 강 건너편 북대마을로 건너가는 나루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에 섶다리가 놓여 있어 꽤 볼만했다. 섶다리는 늦가을에 강에다 Y자형 나무들을 엮어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얹어 만든 다리인데, 겨울 동안 이용하고 이듬해 홍수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철선으로 강을 건넜으며, 가을에 다시 짓고는 했다. 지금은 나루터 아래에 시멘트 다리를 놓았다. 수미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동강의 마을에는 수미나 해매처럼 '미'나 '매'가 붙은 지명이 더러 있다. 이 말들이 모두 고구려에서는 물을 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미는 물의 마을이란 뜻이 된다.

전설이 배인 지명들

가수리에서 운치리로 흐르는 동강은 고재뻘을 지나 용바우로 해 지름베리로 흘러 점치나루터로 이어진다. 지름베리는 점치마을 앞 강 건너편에 있던 벼랑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절벽으로 벼랑 아래로 난 길이 너무 미끄러워 지름(기름의 사투리)베리라 한 것이다. 1968년 백운산으로 잠입한 무장간첩을 소탕하기 위해 벼랑을 깎아 작전도로를 내기 전까지, 이 벼랑길은 통로로 요긴하게 쓰였다. 용바우는 용이 바위를 깨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수동나루는 수동에서 번들로 건너가는 나루터다. 이곳에도 과거에는 섶다리가 있었다.

운치리를 지나 연포로 이어지는 덕천리 지역의 동강은 심

동강의 굽이굽이에 만들어진 이름들은 모두 사람살이의 우여곡절과 닿아서 생겨났다. 동강의 정겨운 지명들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다. © 이한구

한 사행천의 곡선이 절묘하게 구불거린다. 나리소와 바리소의 깊은 물울렁거림을 지나 중바닥여울과 소통여울, 가매소로 지어진 절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리소는 소의 형태가 놋쇠로 만든 밥그릇인 바리와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나리소는 소골 동쪽 벼랑으로 굽이도는데, 강변의 기암절벽이 압권이다. '나리'는 날, 즉 흐르는 물인 내나 강을 뜻하는 말이다. 물이 깊고 호젓하여 이 소에는 이무기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소의 절벽 아래에 있는 굴에 큰 물뱀이 살았는데, 봄이면 운치리 점재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이다. 한데 30년 전 읍내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바람에 온 강물이 붉게 변하고 뱀의 살점들이 떠내려갔다고 한다.

이 일대는 소통여울과 가매소, 말씹굴 등이 있으며 소골로 이어진다. 소통여울은 여울이 좁고 긴 것이 소 여물통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가매소는 '큰'이란 뜻의 '감'과 어원이 닿는다고도 한다. 말씹굴이라는 이름은 소골 앞 칠족령 벼랑의 동굴이 말의 음부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소골은 덕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을의 우두머리가 살았던 곳이라 그렇게 불리었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칠족령의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강마을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정감록鄭鑑錄>에서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한 곳으로 보기도 했다.

강은 이후 하방소와 바새, 소사나루를 지나 연포로 이어진다. 하방소는 물굽이가 심해 아름다운 벼랑과 소의 경치를 뽐내고 있다. 고성리 산성 서쪽 망루에서 내려다보면 하방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알게 된다. 바새는 제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모래사장이 있어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연포는 바새 남쪽 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낭떠러지를 '베루', 또는 '벼루'라 하는데, 벼루의 한자어 발음을 따서 연硯자를 쓴 듯하다. 이 마을은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떼꾼들을 상대로 하는 객주집들이 성업했다고 한다.

지명은 삶의 반영이다

평창군 지역의 문희마을을 지나 문산리로 이어지는 동강으로 접어든다. 자갈여울, 암반여울, 홍두깨여울을 지나면 곧장 황새여울이다. 황새여울은 두루니마을 앞에 있다. 물살이 세고 뾰족한 바위가 물길에 있어 황새나 청둥오리 같은 철새들이 자주 날아들기에 붙은 이름이다. 과거에는 이 고비에서 뗏목 사고가 많았다. 바위에 걸리거나 줄이 끊어지면 떼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기 십상이었다.

진탄나루를 지나 쇠목여울을 지나면 문산나루로 이어진다. 문산분교를 지나면 내미리다. 쇠목여울은 영월과 평창, 정선 등 세 군의 경계 지점인데, 옛날 평창 마하리와 정선 신동읍 덕천리에서 오는 소장사들이 건너다니던 여울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라연은 만지 나루터 위에 있다. 강물에 옥순봉 등 세 개의 봉우리三仙岩가 솟아 있어 비경을 이룬다. 이곳에는 어라사터라는 절터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어라사연은 군의 동쪽 거산리에 있다. 조선조 세종世宗 13년에 큰 뱀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뛰어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가를 꿈틀거리며 기어 다니기도 했다. 하루는 물가의 돌무더기 위에 허물을 벗어놓았는데 길이가 수십 척이고 비늘은 동전만 하고, 두 귀가 있었다. 고을 사람들이 비늘을 주워서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권극화權克和를 보내서 증험코자 했다. 극화가 못 가운데 배를 띄우니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 끝내 자취를 알 수 없었다. 그 뒤로도 뱀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강물은 어라연 아래로 된꼬까리여울을 지나, 만지로 해서 섭새로 흘러 영월 삼옥리로 이어진다. 된꼬까리여울은 물굽이가 심하게 치도는 곳에 고깔 모양의 바위가 있어 그렇게 불리었다. '된'은 심하다는 뜻이다. 뗏목이 이 바위에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라 떼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동강에서 가장 험한 여울로 소문이 났다.

지명은 삶의 반영이다. 동강 굽이굽이의 비경을 드러내는 아기자기하고 기이하면서도 정겨운 지명들은 그러하기에 이 지역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비경을 아스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 동강은 아름다운 지명들로 흐른다.

동강의 마을은 수미나 해매처럼 '미'나 '매'자가 붙은 지명이 많다. 이 단어들은 모두 고구려에서 물을 뜻했다고 한다. © 이한구

나의 본적은 숲이요, 개똥 구르는 길바닥이다

My Place of Origin is the Woods, the Road with Dog Turd

글 | 김화성 동아일보 기자. 공식 직함은 스포츠 전문기자이지만 스포츠나 걷기뿐 아니라 글, 술, 음식, 꽃, 나무 등에 두루 해박해 지인들은 그를 '여러 문제 연구소장'이라 부른다. 그의 놀라운 식견은 『책에 취해 놀다』『전주에서 놀다』『길 위에서 놀다』『꽃밥』 등의 수많은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쪼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나무 잎새다.
나의 본적은 푸른 눈을 가진 한 여인의 영원히 맑은 거울이다.
나의 본적은 차원을 넘어 다니지 못하는 독수리다.
나의 본적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나의 본적은 인류의 짚신이고 맨발이다.

-김종삼, 「나의 본적」

가을하늘에선 새물내가 난다. 눈부시게 짙푸르다. 돌을 던지면 '쨍그렁!' 하고 깨질 것 같다. 바람도 고슬고슬하다. 새들이 그 허공을 난다. 텅 빈 한가운데 공중空中. 새들은 그 빈 하늘에서 찧고 까불며 왁자지껄 수다를 떤다. 새들은 공중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다. 허공을 걸어 다니는 보허자步虛子. 똥도 그냥 공중에서 눈다. 날아가면서 퐁! 퐁! 리드미컬하게 날린다. 해바라기 씨 까먹고 풋! 풋! 내뱉는 거나 똑같다. 휴지 그딴 건 전혀 필요 없다. 변기 같은 거야 두말할 필요 없다. 왜 인간들은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끙끙대는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힘을 쓰는가. 새의 항문은 온 세상 허공에 열려 있다. 변기 따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새는 자유다. 허허롭다. '자기의 이유로' 훨훨 날아간다. '새대가리'면 어떻고, '새가슴'이면 또 어떤가. 새들은 단 한 번도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늘, 텅 빈 허공에 '새 획'을 그리며 난다. 하늘에 새 빗금 그으며 날아간다. 그렇다. 자유는 '빈 공간'이 필수다. 짜여진 기획 공간에서의 자유란 불가능하다. 뒤주 속에서 날갯짓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이불 속 활갯짓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바로 그 '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다. 자유를 꿈꾸는 자는 허공을 열망한다. 틈새를 그리워한다.

강물 위로 새 한 마리 유유히 떠오르자
그 아래쪽 허공이 돌연 팽팽해져서
물결이 참지 못하고 일제히 퍼덕거린다
물 속에 숨어 있던 수천의 새 떼들이
젖은 날갯죽지 툭툭 털며 솟구쳐서
한순간 허공을 찢는다. 오오 저 파열음!

-이정환, 「새와 수면」

길은 자유다. 숨통이요 틈새다. 숨 막히는 강호 세상에서 샘물 같은 해방 공간이다. 하지만 남이 만들어놓은 길은 길이 아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하나의 선일 뿐이다. 소백산 자락길, 고창 질마재길, 하동 토지길은 '기획된 틈새'일 뿐이다. 길은 발길 닿는 대로 훠이훠이 가야 제맛이다. 차라리 '잃은 길'이 진짜 길이다. 가던 길을 잃은 순간, 비로소 진짜 길이 나타난다. 길 잃었다고 난리 칠 일 하나도 없다. 그 뻔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호들갑 떨 일 하나도 없다.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눈물 흘릴 일도 전혀 없다. 그런 거라면 동네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면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김삿갓은 왜 조선팔도 구석구석을 그렇게 돌아다녔을까? 기생 황진이黃眞伊는 왜 사대부 양반 남정네에게 집 지워 앞세우고 전국 명산 대첩을 찾아다녔을까? 황진이는 베적삼에 무명치마를 입고, 때로는 절에서 걸식하고, 때로는 몸을 팔아 주린 배를 채웠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은 왜 그 무거운 쇠갓을 머리에 쓰고 전국을 돌아다녔을까? 토정은 배고플 땐 쇠갓으로 솥을 삼아 밥을 지어 먹고, 배부르면 다시 그 쇠갓을 머리에 쓰고 길을 떠났다.
사람은 가슴이 꽉 막히면 길을 떠난다. 뭔가 소리치고 싶을 때 행장을 꾸린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훠이훠이 길을 걷는다. 먹먹한 가슴을 길 위에서 풀어버린다. 실타래처럼 풀어진 구불구불한 길은 그 자체가 자유다. 휘발성이다. 길은 인간의 본적이다. 고향이다. 산길, 골목길, 논두렁길, 밭길, 고샅길, 마실길은 모두 인류의 본적이다. 나는 그 길을 걷는다. 길을 걸으면 마음이 스르르 열린다. 풀잎 하나, 이슬 한 방울에도 감동한다. 목적지를 갖고 걸으면 틀 속에 갇힌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걸어야 자유롭다.
길은 무한 도량이다. 꼭 절집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동안거冬安居니 하안거夏安居니 요란 떨 거 하나도 없다. 길은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다. 부처는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이 숲을 보아라.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숲처럼 열려 있다. 깨달은 자는 주먹을 쥐지 않는다. 깨달은 자는 주먹이 없는 법이다." 악수를 하면 주먹이 펴진다. 길을 걸으면 마음의 주름살이 곧게 다려진다. 밤에 논두렁길을 걸으면

하늘의 별들이 머리에 쏟아진다. 길은 사람을 보살로 만든다. 저절로 부처가 되도록 한다. 길을 걸으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 바람 맞고 눈비에 젖으며 길을 걸으면 나무가 되고 산이 된다. 바람 불어 쓰러진 산 있던가? 눈비 맞아 썩은 돌 있던가?

머리에 취가 날 때면 발을 움직여야 한다. 지끈지끈 머릿속이 쑤시기 시작할 땐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기'가 으뜸이다. 누렁이 앞세우고 논두렁길을 걸어보라. 빈들에 서보라. 구부정한 논둑길은 '아버지의 어깨'처럼 편안하다. 해질녘 막내딸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길을 어슬렁거린다. 가슴에 강 같은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골목마다 구수한 된장국에 매콤한 찌개 냄새. 여기저기 개 짖는 소리, 삐이꺽 대문 여닫는 소리….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다.

걷기는
자유고 해방이다

브르타뉴Bretagne 출신의 작가 피에르 자케 엘리아스Pierre-Jakez Hélias는 농부의 걸음걸이에 감탄한다.

"마을에서 농부는 자신의 속도, 즉 자신의 일상적인 리듬으로 움직인다. 여기저기가 움푹 팬 길,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진 흙길, 초원 등을 걸을 때 그의 걸음걸이는 도시의 보도를 걷는 사람과 다르다. (중략) 도시에서 농부는 방랑자이자 구경꾼이다. 일종의 관광객인 것이다. (중략) 그의 느린 움직임, 무겁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아서 경탄을 자아내는 경제적인 움직임은 그가 일을 하면서 익힌 리듬 덕분에 생긴 것이다."

걷기는 한순간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근육을 써서 '세상의 파도'와 맞서는 것이다. 도시의 새들은 랩처럼 빠른 리듬의 노래를 부르지만, 시골 새들은 민요나 컨트리 송처럼 느린 노래를 부른다. 걷기도 그렇다. 농부들의 걸음걸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느릿느릿 진양조로 걷는다. 도회인들은 총총 빠르게 걷는다. 어디론가 종종걸음으로 끊임없이 오간다.

걷기는 온몸으로 하는 '전면全面 여행'이다. '자유'와 '해방'이다. 비행기 여행은 '점點에서 점으로의 찍기 여행'일 뿐이다. 기차 여행도 '선線에서 선으로의 선상 여행'에 불과하다. 걷기는 주위 경치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힘들면 좀 쉬면서 상큼한 바람으로 온몸을 샤워해도 된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도 누가 뭐라 시비 걸 놈 없다. 내가 시간과 속도의 주인이다. 가는 곳이 길이요, 자유다. 걷기는 땅 위의 모든 것이 내 발걸음을 통해 통째로 온몸에 울려온다.

운문선사雲門禪師는 "깨달은 사람에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중은 중이고 속인은 속인이다. 자유로워지면 일할 때도 행복하고 놀 때도 행복하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죽는 것도 행복하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라고 했다. 그렇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길을 가면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헛된 망상이다. 눈만 뜨면 입에 달고 사는 '사랑'이라는 것도 '똥친 막대기'에 불과하다.

부처는 맨발로 길을 걸었다. 먼지 풀풀 나는 사막을 맨발로 헤맸다.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맨발이었다. 죽어서도 말없이 관 밖으로 맨발을 내밀었다. 예수도 늘 맨발이었다. 산상수훈山上垂訓 때도 맨발로 서서 설교했다. 그는 자신의 맨발보다 제자의 맨발을 먼저 씻겨줬다. 그리고 부르튼 맨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걷기엔 시간이 없다.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다. 해가 뜨면 걷고, 해가 지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잔다. 이슬과 바람 맞으며 시래기가 된다. 그 시래기가 다 풀어져 따뜻한 죽 한 사발이 된다.

자유는 외롭다. 고독하다. 황야의 늑대가 얼음동굴 속에서 홀로 꺼이꺼이 울며, 제 상처를 핥는 것이다. 걷기도 그렇다. 홀로 걸어야 새가 허공을 날 듯 거리낌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 걸으면 관계의 끈에 꽁꽁 얽매이기 십상이다. 엄마와 딸이 함께 걸으면, 걷는 내내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흔하다. 서로 뾰로통한 얼굴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간다. 길을 함께 걷고 난 늙은 부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렇다. 마음껏 자기 이유대로 걷고 싶은데 '같이 걷는 상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새가 허공을 멋대로 날고 싶은데, 발에 자꾸만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자연히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은 상대에게 덤터기로 되돌아간다.

바람은 자유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다. 오로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길은 바람이다. 허공이다. 자유다. 사람은 그 길을 만들며 날아가는 새다. 새는 단 한 번도 옛길을 가지 않는다. 늘 새로운 빗금을 치며 훨훨 날아간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자고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 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 반짝이는 광채입니다
나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햇볕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요한 아침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나는 새들의 날개 받쳐주는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도 울지도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인디언 전래 시, 「나는 천 줄기 바람」

공동체의 음식, 떡

나눔의 미학을 담다

Aesthetics of Sharing on a Plate, *Ttuk*

글 |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1990년대 초반부터 업무 차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향토음식을 맛보기 시작, 그렇게 맛본 음식 이야기를 모아 『소문난 옛날 맛집』 『미각의 제국』 『한국음식문화 박물지』 등의 책을 펴냈다. 앞으로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글을 쓸 작정이다.

스타일링 | 노영희 푸드 스타일리스트. 대학 졸업 후 잡지사 기자로 일하다 뒤늦게 요리와 스타일링에 대한 재능을 깨달았다. 1993년부터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전업, 현재 스튜디오 푸디Studio Foodie와 한식 레스토랑 품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 박건주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의 음식에는 한국인의 문화와 사상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떡은 공동체의 음식으로서 설과 잔치 등 주요 행사 때마다 빠지는 법이 없었다. 밥보다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떡을 음식이라는 일상이 아닌 인문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밥은 담장을 넘지 않지만, 떡은 담장을 넘는다

2012년 현재 한민족의 주식은 밥이다. 솥에 쌀을 넣고 끓여 익힌 음식이다. 이 밥을 우리 조상들도 주식으로 먹었을까? 그렇지 않다. 조상들이 곡물로 처음 해 먹었던 음식은 죽이었다. 곡물을 대충 갈아 물을 더하고 끓이면 되는, 조리 기술이 단순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창안된 음식은 떡이었을 것이다. 시루에 곡물가루를 안쳐 쪄서 먹었다. 죽, 떡, 밥의 순서로 주식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다. 곡물로 밥을 짓기 위해서는 쇠붙이로 만든 솥이 필요한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쇠붙이가 귀해서 무기를 만드는 데나 쓰였지 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일은 드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삼국시대 유물 가운데 시루가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도 그 이유이다. 또 하나, 도정 기술이 영향을 미쳤다. 쌀이나 보리처럼 겉겨가 알곡에 바짝 붙어 있는 곡물로 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도정하는 기술에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곡물을 돌확에 갈아 거친 가루로 만든 후 끓이거나 찌는 기술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주식 조리법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떡은 주로 쌀 또는 찹쌀로 빚는다. 찹쌀과 비교하여, 쌀을 멥쌀이라고도 한다. 찹쌀은 시루에 찐 후 떡판에 올려 떡메로 쳐서 떡으로 만든다. 쫄깃한 식감이 있어 찰떡이라 한다. 쌀, 즉 멥쌀은 물에 불려서 가루를 낸 후 찌는 것이 일반적이다. 쌀가루에서 쪄낸 상태의 것을 시루떡이라 하고, 이를 다시 치대어 길쭉하게 뽑은 것을 가래떡이라 한다. 송편은 그 빚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 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소를 넣고 모양을 잡은 후 시루에 찐다. 떡은 우리 민족만의 음식은 아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는 떡을 두루 먹는다. 빚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쌀을 가루 내거나 찌는 과정은 거의 같다고 봐야 한다. 서양의 빵과 비교하자면, 곡물가루의 반죽을 구우면 빵, 이를 찌면 떡이라 할 수 있다.

떡은 나눠 먹는 음식이다. 추석과 설 등 명절에 떡을 해서 친지와 나눠 먹고, 백일, 돌, 결혼식, 회갑연에도 떡을 해서 돌린다. 차를 사도 떡을 하고, 이사를 해도 떡을 해 이웃에 돌려야 '예의를 안다.'는 말을 듣는다. 한민족의 머리에 박혀 있는 떡에 대한 관념은 '공동체 음식'인 것이다.

떡이 주식이었을 때, 우리 민족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 공동체는 대체로 혈연 중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가장과 그 직계 자손으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의 '집안' 개념은 없었으며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한 집안'이라 여기고 살았다. 마을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수확물을 나누는 삶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 당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큰 일이었다. 또 조리 기구도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집단으로 취사를 했다. 공동체 사람들이 일정한 때에 다 같이 모여 끼니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그 공동체의 음식이 떡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떡은 '나누는 음식'이라는 관념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밥은 무쇠솥이 일반화된 이후에 먹기 시작한 음식인데, 고려 중기부터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밥은 가족끼리 먹는 음식이라는 관념이 강하다. 밥의 시대에는 공동체 의식이 다소 희박해지면서 가족 의식이 싹텄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밥의 시대, 즉 가족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에 서로 힘을 보태야 하는 일이 많아 예부터 내려

오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시절마다 여러 행사를 벌여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일을 벌였고, 그 행사의 주요 음식으로 떡이 놓였다. 먼 옛날 조상들이 끼니 때마다 모여 다 함께 떡을 먹었던 그때의 유대감을 상기하자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설날 떡국과 추석 송편 외에는 이제 거의 잊혀졌는데, 민요 '떡타령'에 나오는 그때의 공동체 떡은 대충 이랬다.

"정월 대보름 달떡이요 이월 한식 송병松餠이요.
삼월 삼진 쑥떡이로다. 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
사월 팔일 느티떡에 오월 단오 수리취떡
유월 유두에 밀전병이라. 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
칠월 칠석에 수단이요 팔월 가위 오려송편
구월 구일 국화떡이라. 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
시월 상달 무시루떡 동짓달 동짓날 새알시미
섣달에는 골무떡이라. 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 아시아의 전통

한민족을 상징하는 떡을 꼽자면, 그 처음에 떡국이 있다. 새해 첫날 조상에 차례를 올리면서 내는 음식이 떡국이다. 이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하였다.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일까. 설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이다. 요즘은 음력 1월 1일만 설이라 하지만, 원래는 섣달 그믐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를 설이라 하였다. 대보름이 지나면 농사를 시작해야 하니 일종의 춘절로 해석할 수 있다.

새해를 맞는 설 풍습은 동양 각국들이 비슷하다. 오랫동안 서로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경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왔던 민족이라는 데서 생겨난 유사성이 더 많다. 설날 음식도 비슷한데, 떡국도 그 중 하나이다. 일본은 된장이나 가다랭이로 맛을 낸 국물에 찹쌀떡을 넣은 '오조니お雑煮'를 먹고, 중국에서는 쌀로 만든 경단을 국물에 넣은 '탕위앤湯圓'을 먹는다(중국은 남과 북이 조금 다르다. 밀 생산이 많은 북부 지방은 만두를, 쌀을 재배하는 남부 지방에서는 탕위앤을 주로 먹는다.). 이 동양의 떡국들은 평상시에는 잘 먹지 않다가 설날에는 꼭 챙겨 먹는 것이 똑같다. 새해에 복을 부르는 음식이라는 관념도 비슷하다.

동양 삼국의 설날 음식이 다 '떡국'이라는 공통점은 먼 옛날 각 민족의 조상들이 매우 유사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서로 문화 교류가 활발하여 음식이 비슷해진 것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교류할 수 없어도 식재료와 조리 도구가 비슷해 유사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떡국의 역사를 추적해보자. 떡은 식으면 쉬 굳는다. 또 잘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도 있다. 딱딱하게 굳은 떡은 그냥 먹기가 힘들다. 먼 옛날에는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도 없었다. 떡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넣어 데우는 방법이 가장 쉽다. 또 물이 들어가니 양이 늘어나기도 한다. 떡을 저장해두었다가 물에 데워서 국처럼 내놓는 음식, 즉 떡국은 떡이 주식이었을 당시 가장 흔히 먹었던 음식일 수 있는 것이다.

설날의 차례는 새해를 열면서 조상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행사이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제례이며, 이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조상신이 일상에서 즐겨 먹

예전에는 떡국을 병탕餠湯 또는 첨세병添歲甁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뜻이다. 떡국의 흰색은 순수를, 떡을 길게 늘려 가래로 뽑는 것은 무병장수를 상징하며, 가래떡을 엽전처럼 동그랗게 썰어 그 해 필요한 재복이 충분히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설에 떡국을 먹는 것은, 흰색의 음식으로 한 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 만물의 부활과 신생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허균은 광해군 때 팔도의 맛있는 음식을 기록해 펴낸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송편을 봄에 먹는 떡이라고 적었다. 정약용도 봄에 송편을 빚는다는 시를 지었다. 또 조선의 관혼상제를 기록한 『사례의四禮儀』에도 단오에 시루떡이나 송편을 만든다고 했으며, 6월 유두절에 송편을 빚는다는 기록도 있다. 즉 송편은 특별히 추석 때만 만드는 떡이 아니라 정월부터 6월까지 명절을 비롯해 특별한 날이면 빚었던 음식이다.

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이다. 조상신이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유학자 집안에서 익히지 않은 제물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는데, 화식火食 이전 그 머나먼 조상들의 음식이 '전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떡국은 아주 먼 옛날부터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주식으로 먹어, 식재료가 바뀌고 도정 기술과 조리 도구가 발달하여 밥이 주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조상신을 기리거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행사, 그 중에서도 민족 최대의 행사인 설에는 꼭 내어야 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떡국의 유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추석에는 오려송편을 먹었다

설 다음으로 큰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이면 송편을 먹는다. 앞에 옮겨놓은 '떡타령'을 보면 "팔월 가위 오려송편"이라 되어 있다. 가위는 한가위, 즉 보름을 말한다. 그런데 가위의 떡을 그냥 송편이라 하지 않고 오려송편이라 했다. 송편이기는 한데 그 앞에 '오려'가 붙어 있다. 또 "이월 한식에 송병"이라는 떡이 나온다. 이도 송편이다. 멥쌀가루를 익반죽하고 풋콩, 깨,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시루에 솔잎을 켜켜로 깔고 찐 그 떡이다. 그러니까 송편은 반드시 추석에만 먹었던 떡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려송편은 또 무엇일까.

추석을 흔히 한반도의 추수감사절이라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추석 때면 대부분의 곡식과 과일이 익지 않는다. 근대화 초기, 서양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한민족의 명절은 없을지를 생각하다가 추석에다 추수감사절이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추석은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이라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날로 정한 것이라 보면 된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농사도 수확만 남겨놓아 노동에서 잠시 해방되어 놀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떡 빚을 쌀은 아직 거두지 못했는데 달은 휘영청 높이 돋았다. 무슨 수를 쓰든 떡은 빚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오려쌀이다. 덜 익은 벼를 거두어 만든 쌀이 오려쌀이고, 그 오려쌀로 빚은 송편이 오려송편이다.

오려쌀은 올벼의 쌀이란 뜻도 있고, 덜 익은 벼의 쌀이란 뜻도 있다. 올벼는 일찍 거둘 수 있는 극조생종

떡볶이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가래떡에 쇠고기, 미나리, 숙주, 밤, 대추 등을 넣고 간장 양념으로 볶았다. 가래떡이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잡채와 비슷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이 음식에 궁중떡볶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인이 즐겨먹는 떡볶이는 고추장떡볶이다. 이 음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고추장의 역사가 길지 않고 또 고추장을 흔히 쓸 수 있게 된 것이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니 그 즈음에 나타났을 것이다.

의 벼인데, 대부분 찰벼이다. 송편은 멥쌀의 떡이니 이 올벼의 오려쌀로 빚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석에는 덜 익은 벼의 쌀인 오려쌀로 송편을 빚었다는 말이 된다. 덜 익은 나락을 훑어 솥에 쪄서 말린 후 겉겨를 털어낸 쌀을 오려쌀이라 한다. 시골 장날에 가면 찐쌀이라고 파는 그 쌀이 오려쌀이다. 그 오려쌀로 빚은 송편이 오려송편인 것이다. 요즘은 사철 쌀이 넉넉하니 오려송편 빚는 일은 없다. 추석에 맞추어 일찍 수확한 햅쌀로 송편을 빚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난해 거둔 쌀로 송편을 빚는다. 오려쌀은 잊혔지만 송편은 유구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추석은 의미가 있다.

떡볶이,
아시아의 음식으로 나아가다

요즘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떡은 떡볶이이다. 떡볶이라는 이름은 '가래떡을 볶는다.'는 조리법을 담고 있다. 그런데 떡볶이는 냄비에 넣고 끓인다. 조림이나 탕에 가깝다. 제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떡조림'이나 '떡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 가래떡으로 조리하는 또 다른 전통 음식 떡전골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떡전골은 가래떡에 여러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 탕이다. 설날에 먹는 떡국에 그 계통이 닿아 있는 음식이다. 떡전골을 한 그릇에 담으면 떡국이다. 예전에는 떡전골을 떡탕이라 하였고, 떡국도 떡탕이라 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인이 즐겨 먹는 떡볶이는 그 이름과 달리 '볶는 떡볶이'가 아니라 '탕이나 조림의 떡볶이'인 것이다.

애초 떡볶이라는 이름의 음식이 따로 있었다. 가래떡에 여러 채소와 고기를 넣고 간장양념으로 볶는 음식이다. 설날 상차림에 올랐다. 이 떡볶이를 요즘에는 궁중떡볶이라 하는데, 특별히 궁중에서 이를 먹었다는 근거는 없다. 설날 가래떡 전통은 유구한 것이니 먼 옛날부터 왕가, 양반, 상민 할 것 없이 두루 먹었을 것이다.

지금의 '탕이나 조림의 떡볶이'가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일이다. 특히 냄비에 전골처럼 끓이는 떡볶이는 1970년대에 외식 음식이 되었다. 냄비에 떡, 어묵, 당면, 달걀 등이 담긴 떡전골 형태인데도 이를 떡볶이라 부르게 된 것은 그 이름의 '가벼움' 때문일 것이다. 간식으로 먹는 음식을 두고 떡전골이나 떡탕이라 하면 끼니로나 먹는 '무거운 음식'이 되니 이를 회피한 결과인 것이다.

2000년대 말 떡볶이를 세계화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음식이니 세계인도 이를 즐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세계화 여론을 자극하였다. 또 한국음식은 매우 맵다는 세계인의 인식에 부응할 수 있는 음식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떡은 서양인에게 무척 낯선 음식이다. 찐득한 질감의 가래떡을 먹을 수 있는 서양인은 매우 드물다. 떡볶이의 세계화는 기대만큼 잘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떡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민족에게 떡볶이는 매력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여행 온 이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음식이 떡볶이이니 한국을 상징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여길 것이고, 가래떡의 찐득한 질감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조상신을 기리거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행사, 특히 아시아 민족의 최대 행사인 설에 먹었던 떡국의 전통이 이 떡볶이에 담겨 있다고 얘기해주면, 그 맵디매운 가래떡을 먹으며 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안동 정재종택의 송화주를 찾아서

선비처럼 점잖은 그 맛과 향에 취하다

Enraptured in the Taste and Smell, Gentle as a *Seonbi*

오래된 문명에는 반드시 훌륭한 술이 있듯이, 오랜 종가에는 훌륭한 가양주가 있다. 가양주를 마시는 일은 그 가문의 정신을 느껴보는 일이 된다. 안동 정재종택定齋宗宅의 송화주松花酒 또한 류씨 가문의 고매한 정신을 품고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

중세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야사바랭Brillat-Savarin은 "동물은 먹이를 먹고 인간은 요리를 먹는다."고 했는데, 술을 제조해서 마신다는 동물을 지구상에서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으니 술이라는 것은 고도의 인류 문명이 낳은 화학적 액체인 것이 분명하다. 원래 술은 땅과 물의 정령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곡식과 누룩, 물로만 만들어졌으며, 자연과 시간을 통한 숙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경이로운 액체이다. 오늘날 에틸 알코올에 온갖 인공감미료를 넣은 화학적 액체를 술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불행 중 하나이다. 안동 정재종택의 송화주는 국화와 솔잎을 넣어 만드는 가양주라니, "가슴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꽃 한 송이는 우리로 하여금 산맥보다 더 오래 살게 하는 힘을 지닌다."는 존 버거John Peter Berger의 말을 떠올리며 안동으로 향했다.

글 | 최성우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 디종대학에서 문화정책경영학을 전공했다. 맛으로서의 음식이 아닌 문화 현상으로서의 음식을 둘러싼 담론을 펼쳐가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통의동 '보안여관' 대표이자,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 | 이동춘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10년간 사진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한식 및 한옥, 한국의 종가와 선비 문화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하고 있다. 2010년 <한옥, 오래 묵은 오늘> 전을, 지난 5월에는 베를린에서 <선비의 마음과 예禮를 간직한 집, 종가> 전을 열었다.

종가의 자존심, 내림음식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을 계승한 전주 류씨 무실파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의 종가인 안동 정재종택의 대문은 눈 아래 임하호臨河湖가 마치 자신의 혈구穴口인 듯 정확히 임하호를 향해 긴 입 구口자처럼 서 있다. 이 집의 송화주는 도대체 어떤 공기와 호흡하며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며 집 안의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안채 마당에 들어서니 푸른 하늘이 정갈하게 눈에 들어온다. 마당에는 때마침 아랫동네에서 놀러온 6대 종손 류성호 선생의 제수씨가 "아즈뱀, 아즈뱀" 하며 류 종손을 찾는다. 종택 뒷마당에 어여쁜 꽃이 피어 있는데 자신의 집에 몇 주 가져가도 되겠냐며. 미숫가루를 타 가지고 왔단다. "제수씨의 품행같이 맛있다."며 류 종손은 제수씨의 미숫가루를 칭찬했다. "품행같이 맛있다."라니, 참 종갓집다운 표현이다.

종택에서의 가장 큰일은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조상 제사는 고조부모까지 4대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천위不遷位 제사는 말 그대로 대를 넘겨도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신주를 옮기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천위 제사를 지내야 비로소 종택이라 불릴 수 있다. 안동 정재종택에서는 1년에 열세 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봉제사와 접빈객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송화주는 안동 류씨 종택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송화주는 또한 안동 반가의 내림음식들인 서애종가西厓宗家의 중개仲介(유과의 일종), 음식디미방(17세기에 씌어진 조리서)의 중박개와 초만두, 후조당後彫堂의 족편과 약과, 경당종택敬堂宗宅의 건진국수, 지촌종가芝村宗家의 집장과 수란, 안동소주와 더불어 안동 음식의 대표선수 중 하나이다. 쌀을 근간으로 한 한국의 가양주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밑술을 만들지만 집집마다 다른 맛과 향, 색을 내는 것은 곡식, 누룩, 물의 배합 비율뿐 아니라, 우선 종택이라 불리는 고택, 그 안에서도 특별히 술을 담는 장소, 그곳의 공기 흐름, 가마솥을 때는 연료, 밑술을 숙성시키는 옹기, 게다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집안 사람들의 세세한 행동과 손맛(손에 붙어 있는 곰팡이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종손은 누룩의 중요성을 강

조했는데, 술을 만드는 누룩은 그 자체가 생물이라 소중히 보살필수록 건강하게 자란다. 마치 곡식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라듯이,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쌓여갈 때 비로소 좋은 술이 태어나는 것이다.

송화주와 탕평채의 마리아주Mariage

반지르르하게 세월이 묻은 안채 마루바닥 위 정갈한 소반에 삼색 보푸라기, 탕평채, 문어 숙회가 단정하게 차려져 송화주와 함께 놓였다. 송화주는 찹쌀과 멥쌀, 황국(없을 땐 금은화)을 재료로 쓰고, 고두밥에 누룩을 버무려 3일 정도 숙성시켜 밑술을 만들고, 솔잎과 함께 찐 고두밥에 국화를 넣어 버무리고 누룩을 넣어 그 밑술에 첨가하는 이양주二釀酒이다. 숙성에는 30일에서 최대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송화주, 그 맛은 어떨까. 부드러운 탕평채와 곁들인 송화주는 알코올의 날카로운 맛이 전혀 없고, 목넘김이 부드럽고 충만하면서도 탄력이 있어 혀밑으로 꽉 차오르는 밀도감이 뛰어나다. 성숙하면서도 너른 폭이 느껴지고, 희미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잔향이 입안에 맴도는 것이, 점잖은 어른의 맛과 깊이를 지녔다.

송화주와 함께 나온 음식들도 매우 인상적이다. 탕평채는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조선 영조英祖 때의 탕평책蕩平策, 대립적인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 추진한 그 정책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청포묵, 쇠고기, 미나리, 숙주나물, 계란 등 육류와 야채가 골고루 섞이고, 재료의 색 또한 청포묵의 백색에 미나리의 푸른색, 계란 지단의 노란색, 버섯과 고기의 검은색, 고추의 붉은색 등 오방색을 사용한다. 하나의 재료가 돋보이기보다 서로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균형을 가진 음식이 탕평채이다. 이 탕평채의 중심에 청포묵이 있다. 청포묵은 마치 이 모든 재료를 감싸 안은 군주, 임금과 같다. 완벽한 균형을 이룬 재료들과 이를 감싸는 한없는 부드러움. 이것이 탕평채, 바로 영조가 꿈꾸는 세상인 것이다. 송화주를 이 탕평채와 함께하니 아주 그만이다. 보드카에는 캐비어가 어울리고, 데킬라를 마실 땐 라임을 한 입 베어 물고 혀끝으로 소금을 살짝 찍어야 하듯이, 음식에도 궁합, 즉 마리아주가 있다. 송화주와 탕평채의 마리아주는 제법 근사했다. 나중에 서울에서 조금 간이 센 음식을 곁들여 송화주를 마셔봤더니, 음식의 간에 밀려 송화주의 깊은 맛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 류종손이 '보푸럼'이라 부르는 삼색 보푸라기는 또 어떤가. 삼색 보푸라기는 북어포나 육포 등을 강판에 갈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살의 결을 발라낸 후 솜털같이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다. 거친 것에서 살을 발라 부드럽게 만드는 행위가 종택의 정신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 느껴져, 소반 위의 삼색 보푸라기를 한참 바라보았다.

01 오랜 세월의 켜가 느껴지는 바깥채 마루 위에 두 명의 객을 위한 주안상이 차려졌다. **02** 탕평채, 삼색 보푸라기, 삼색전이 차려진 각상에 문어 숙회가 놓인 곁상이 곁들여졌다.

의리義理와 불망不忘, 송화주에 담긴 류씨 가문의 정신

송화주가 그저 목넘김이 부드럽기만 한 술이었다면, 안동 정재종택 류씨 가문의 가풍과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송화주를 조금씩 음미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묵직해져갔다. 송화주의 뒷맛이 주는 이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은 의리와 불망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는 안동 류씨 가문의 정신과 분명 맞닿아 있을 터이다.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전주 류씨 무실파 정재 류치명은 문하에 제자를 600여 명이나 두었던 대학자였다. 정재종택은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뜻을 키우는 사학의 중심이 되어 8년 동안 '협동학교', 요즘으로 치면 기숙학교로 쓰였고, 류 종손의 증조부 류동시柳東

著 선생은 파고다공원의 3.1만세운동을 보고 내려와 협동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안동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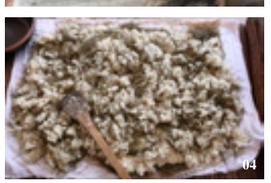
종택을 지키고 있는 6대손 류성호 선생도 한때 서울에서 명망 있던 출판사인 평민사의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당시 평민사의 편집장은 김홍신 씨였고, 편집부차장은 이해찬 씨였으며, 김한길 씨가 대학생 신분으로 출판사를 드나들었다 하니 그 무렵 평민사의 성격, 그리고 류 종손의 성향과 지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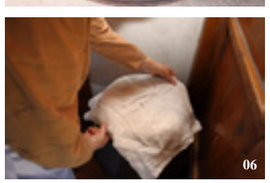
정재종택은 정재 선생의 증조부인 양파陽坡 류관현柳觀鉉 선생이 1732년에 지은 것으로, 원래는 임동면 수곡리에 있었는데 임하댐이 들어서면서 수몰되기 전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류 종손에게 종택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어주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시인 이문재는 '장소'는 공간과 다르고, 공간을 인간화하고 사회화한 곳이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전승되는 곳이라고 했다. 류 종손의 말과 시인 이문재의 말을 이으면, 종택은 고택 명승지나 박제화된 박물관 같은 죽은 '공간'이 아니라 그 가문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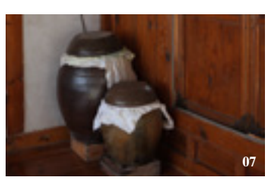
종부 김영한 여사에게 좀 뜬금없지만, 술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단순명료하게 "술은 교류의 수단이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술은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쓰이고, 가문의 젊은이들은 이 제삿술을 통해 술을 배우게 되는데, 제사 때는 삼희음을 하고 절대 어른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지 않을 정도만 마시는 것이 원칙이다. 종부 김영한 여사는 안동의 부유한 가문인 광산 김씨 설월당雪月堂 문중에서 정재 문중으로 시집을 왔는데, 종부가 어려서 겨울에 학교를 갈 때는 아침에 어른들이 술을 한 잔씩 내주었다 한다. 등교하는 어린아이에게 술을 주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의 술이라는 것은 '독'이라는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루의 걸음을 내디디게 하는 '약'과 같은 존재로, 그 술 한 잔이 얼어붙은 몸을 데워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술이란 세상을 지우고 싶을 때 몸 안으로 흘려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 나를 가족이나 가문과 이어주고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교류의 수단인 것이다.

가양주는 아날로그다

1993년 송화주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었지만, 쌀 한 말을 쓰면 일곱 되 정도만 생산될 정도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대량으로 양산되지는 않는다. 접빈과 기제사에 쓸 정도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송화주의 그 농밀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 안타깝다. 송화주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동소주와는 청주와 증류주로 그 제조 방법







01~03 덧술에 넣을 고두밥을 찌고 있다. 이때 솔잎을 함께 넣어서 찐다. **04** 고두밥을 완전히 식혀야 하는데, 여름에는 7~8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05~06** 다 식은 고두밥에 국화를 넣어 버무리고 누룩을 첨가해 밑술이 담긴 독에 넣는다. **07** 이제 시간이 술을 익힐 것이다. 숙성 기간은 날씨와 기온, 또 계절에 따라 30일에서 최대 100일이 걸린다.

도 다르지만 그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다. 안동소주는 불맛이 강하게 앞서서 뒤따르는 뒷맛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송화주는 좀더 깊은 발효 숙성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필자가 마셔본 비슷한 술로는 경주 교동법주와 한산 소곡주가 있는데, 그 깊이나 맛의 디테일은 다 다르다. '인생 뭐 있어, 디테일!'이라지 않은가. 그 디테일의 차이가 술맛의 차이다. 한산 소곡주는 현재 생산자가 많은 술이라 집집마다 생산되는 맛이 달라서 딱히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좀더 싸한 잔향, 후미, 잔미가 있어 송화주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경주 교동법주는 제대로 된 전통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는 귀한 가양주로, 송화주에 비해서는 좀더 단맛이 강조된 경향이 있다.

청주 계열의 송화주는 초봄이나 가을이 숙성에 좋은 계절이며, 기온이 올라가면 보관이 어려워 식초로 변하기 전에 송화소주로 만들어 보관한다는데, 송화소주는 필자도 맛보지 못했다. 안동 정재종택에는 송화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이화주梨花酒를 담그거나 봄이 되면 진달래로 두견주杜鵑酒를 담그기도 한다. 이화주는 유백색의 엄마젖 빛깔 같은 저도수의 술이다. 김영한 종부에 의하면 배꽃이 필 때쯤에 이화주를 만드는데, 쌀을 불린 후 3일 동안 곰팡이를 피우고 건져 가루를 빻아 쌀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오리알만 한 크기의 환으로 만든다. 이후 쌀로 구멍떡을 지은 다음 만들어놓은 누룩에다 엿기름을 섞어 완성한다. 알코올 도수로 치면 3~5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얗고 묽은 고추장과 같은 술이다. 증류주든 청주든 탁주든지 간에 가양주는 만들 때마다 그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종택의 가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맛, 향기, 색깔, 소리, 단맛, 감칠맛, 탄력, 폭, 후미, 잔미, 잡미 등은 산업화의 길을 가야만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테지만, 산업화한다고 해서 가양주의 풍미가 더 좋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들 때마다 미묘하게 술맛에서 차이가 나는, 바로 그 아날로그의 세계, 그것이 가양주의 맛인 것이다.

류 종손은 술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어른이 계신 것이 아닌데도 앞에 놓인 송화주를 석 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그에게 어른은 바로 자신과 조상을 이어주는 집인 정재종택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할 때는 문득 취하고 깰 때는 안개 속을 빠져나오듯 홀연히 깬다는 송화주를 석 잔 마신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큰 쟁반에 붉은 수박을 가득 담아 들고 과수원으로 일하러 나갔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선대 양파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혼돈과 기쁨의 경계에서 술은 우리를 알딸딸하게 한다. 그 경계는 아름답고 안타깝고 애잔하다. 술이 부드럽고 온화한 시대는 태평하고, 술이 날카롭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는 난세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다. 입으로 흘러들어가는 술이라는 액체는 감사와 기쁨을 자아내는 대상이 될 수도, 우리를 깜깜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혼돈의 액체가 될 수도 있다. 송화주같이 한없이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져다주는 술을 마신다면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애감이 저절로 부풀어오르지 않을까. 안동 정재종택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황금빛 잔 속에 피어오르는 2만여 개의 샴페인 기포들처럼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질 듯하다던데, 언젠가는 안동 정재종택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01 정재종택의 주도는 석 잔 이상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류 종손도 먼 데서 온 객들에게 몇 차례 술을 따라주고는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과수원으로 일하러 나갔다. **02**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사랑채는 현재 종택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LIFE & BRAND

—

No. 01

Autumn 2012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성윤 부장의
아웃도어 웰라이프

자연, 그 속에서 인생을 즐기다

어반 스타일에서 캠핑 룩까지

From Urban Style to Camping Look

글 김미연 | 사진 김도형 | 푸드 스타일링 손명희

꽉 막힌 도심을 뚫는 쾌감, 자연 속으로의 질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성윤 부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쉼'을 찾기 위해 바이크를 시작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살기'만 해서는 가슴 떨림을 느끼기 어렵기에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 온몸으로 바이크를 조종하며 원심력과 중력으로부터 얻는 쾌감, 그리고 저마다의 얼굴을 가진 국도길을 달리다 어느 한 곳에서 멈추고 보내는 하룻밤은 보다 자연의 숨결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호사스러운' 여행이 된다.

비즈니스 캐주얼이 곧 아웃도어 의상으로 변하며 일상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아웃도어 룩처럼 그의 삶은 도심의 비즈니스맨에서 어느 순간 땅을 자리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 풍찬노숙風餐露宿으로 유연하게 변한다. 바이크 라이딩을 통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법을 깨닫고 삶의 여유를 되찾았다는 정성윤 부장의 웰라이프Well-Life 아웃도어 스타일을 소개한다.

Business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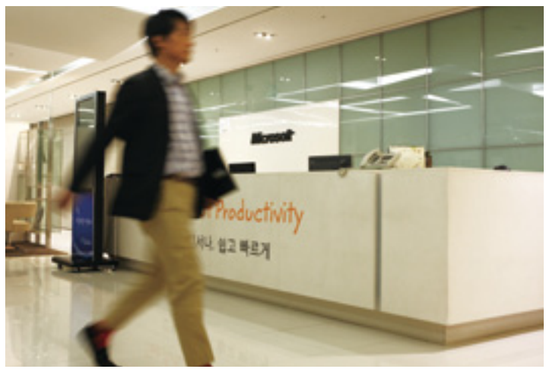
그의 하루는 보호대가 들어 있는 진Jean과 재킷, 그리고 도심용 부츠를 착용하고 바이크에 올라타며 시작된다. 오래 전부터 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만 하다가, 두 해 전 도심 주행에 적합하고ABS 시스템이 잘 장착되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BMW F800R을 만나면서 비로소 바이크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 "집이 있는 분당에서 강남에 있는 회사까지의 출퇴근길은 늘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 옆을 지나는 매뉴얼 바이크를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죠.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을 즐기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길로 곧장 이륜차 학원에 등록해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죠."

매일 다른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업무 특성상, 오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보지만 오후에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외부 미팅이 많다. 그는 이 때도 자주 바이크를 이용한다. 서울 시내에서는 교통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든 30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 그에게 바이크는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세상을 얻는 방법이 되었다. "저는 제가 조종하는 세상을 느끼고 싶어요. 제 손아귀에 잡힌 바이크 핸들을 통해 세상을 얻는 거죠. 온몸으로 조정하는 이륜 바이크야말로 인생 그 자체를 느끼게 해줍니다."

READY
NOW.
상의 파워
클라우드 솔루션
Cloud Solutions
System Center
Microsoft Private Cloud Solutions

Microsoft

FINANCIAL TIMES


Microsoft
Productivity

일상에서 더 멋스러운 아웃도어 룩

퇴근 후 라이딩을 떠나 캠핑까지 이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정성윤 부장의 옷은 출퇴근과 야외 활동에 모두에 적합한, 자유로운 어반 아웃도어 스타일이 많다. 차분하고 세련된 색감으로 무장한 픽퍼포먼스Peak Performance라면 회사에서는 물론 캠핑지에서도 편안하고 멋스러운 선택이 된다.

Brand Guide

PeakPerformance®

북유럽 스타일의 아웃도어, 픽퍼포먼스Peak Performance

2012년 4월 한국에 론칭한 스웨덴 스포츠 아웃도어 픽퍼포먼스는 절제된 절개선과 고급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과 기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북유럽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이다. 아웃도어 · 캐주얼 · 트레이닝 · 골프 라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강남대로의 콘셉트 스토어(02-540-1082)와 현대백화점 목동점(5F)에서 만날 수 있다.

www.peak-performance.co.kr

01 3L고어텍스와 부드러운 감촉의 이탈리언 코튼을 사용한 체이스 재킷. 고어텍스에 캐주얼 디자인을 더한 독특한 제품으로 비오는 날 그 진가를 발휘한다. 픽퍼포먼스
02 빈티지한 무드의 숄더 백. 픽퍼포먼스
03 면 100퍼센트 소재의 베이지 컬러 팬츠. 픽퍼포먼스
04 브라운 컬러의 통가죽 벨트. 픽퍼포먼스
05 필기감이 부드러운 '남국의 캥거루 노트'. 미도리 by 웍앤톡
06 지우개가 달려 있는 탄피 모양 홀더의 펜슬. 미도리 by 웍앤톡
07 브라운 스웨이드 엘보 패치가 덧대어진 레트로풍 스웨터. 픽퍼포먼스
08 베이직한 네이비 컬러의 폴로 셔츠. 픽퍼포먼스
09 이지스 항균 라이닝 처리로 발 냄새를 억제하며 뒤꿈치의 에어 쿠션으로 착화감도 편안한 캐주얼 슈즈. 머렐 by 웍앤톡
10 물결 무늬 스티치와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가 매력적인 초경량 다운 점퍼. 픽퍼포먼스

Weekend —— Bike Riding

토요일 아침 7시. 드디어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다. BMW R1200GS Adventure는 주말 투어와 바이크 캠핑 시 함께하는 그의 동반자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분기점에 있는 화악산의 계곡. 계곡을 따라 길이 나 있어 시원하고, 무엇보다 화악산 터널 가는 길이 꼬불꼬불해 와인딩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바이크를 타고 국도와 지방도로를 달리면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자연과 많이 분리된 공간이지만, 미시령 옛길처럼 구불구불하면서도 멋진 국도길들은 바이크와 함께여서 더욱 즐길 만하죠." 우리나라의 풍경도 좋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바이크 여행은 지난해 11월, 동호회 회원과 함께 5박 6일간 떠난 규슈 바이크 투어였다. "부관페리에 바이크를 싣고 가서 규슈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라이딩을 마치면 료칸에서 노천온천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었죠." 바이크 두 대로 지난 두 해 동안 4만 킬로미터를 달렸다는 바이크 마니아, 정성윤 부장은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고부터는 삶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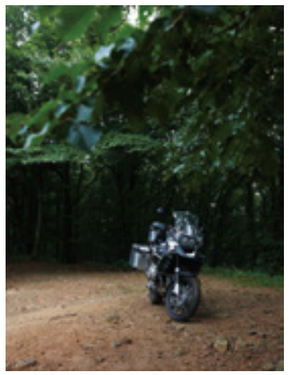
바이크를 처음 시작한다면…
버킷 리스트에만 넣어두지 말고, 바이크를 꼭 타보고 인생을 즐기라는 정성윤 부장. 그가 초보 라이더들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는, 첫째, 라이딩 기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반드시 착용하고 핸들을 잡을 것! 둘째, 풀 페이스 헬멧, 라이딩 부츠와 장갑, 어깨, 척추, 팔꿈치, 엉덩이, 무릎 보호대가 들어간 재킷과 팬츠를 착용할 것! 셋째, 라이딩 스쿨에서 꼭 돈을 내고 전문 강사한테 배우고, 부족한 점은 책을 읽어 보충할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지킨다면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 캠핑을 즐기게 되었다는 그에게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 캠핑은 더없이 소중하다. 시간과 장소만 허락한다면 승용차로 갈 수 없는 먼 오지까지 찾아들 수 있다는 게 바이크 캠핑의 매력. 살고 있는 분당에서 가깝고 BMW R1200GS 같은 바이크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문형산 임도는 그가 자주 찾는 캠핑 장소 중 하나이다. "바이크를 타고 당일 투어를 할 때는 점심을 먹고 금방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캠핑을 떠나면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캠핑 장소를 고를 때에는 식수원이 있는 대신 습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한다. 등산 배낭에 넣었던 내용물을 바이크 수납 공간에 넣어 가면 준비는 끝이다. 텐트, 침낭, 에어매트리스, 그릴, 코펠, 수저, 시에라컵, 편의복, 샌들, 세면도구, 버너, 랜턴, 카메라, 지도 등 꼭 필요한 아이템만을 챙겨간다. 가장 아끼는 캠핑 장비는 몽벨mont-bell 1인용 텐트. "지금껏 국내외 이름 높은 텐트 다섯 개를 사용해 보았지만, 그 중 몽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벼움과 수납의 용이함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죠. 패킹 사이즈 또한 바이크 적재함에 싣고 남을 정도로 작고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그릴에 숯을 피우고 준비해 온 육류, 해산물 등을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바야흐로 바이크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Weekend —— Camping

mont·bell
Jack Wolfskin



mont·bell

기능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한 캠핑 장비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 워앤톡Walk&Talk에서 찾은 캠핑 아이템들. 정성윤 부장은, 첫째 작을수록, 둘째 가벼울수록, 셋째 습기를 잘 배출할수록 좋은 바이크 캠핑 용품이라고 말한다. 가벼운지, 기능은 뛰어난지, 사용법은 간단한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좋은 제품을 고르고 오래 쓰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 특히 몽벨Mont-Bell, 잭울프스킨Jack Wolfskin 등은 가볍고 기능적인데다 디자인도 뛰어나 바이크 캠핑 마니아인 그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의 그리움을 좇아가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캠핑 아이템을 소개한다.

Brand Guide

WALK & TALK

전 세계 톱 브랜드만을 엄선하여 만든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 워앤톡Walk&Talk

워앤톡은 이름 그대로 걷고 이야기하며 즐길 수 있는 모든 아웃도어 활동, 즉 워킹, 하이킹, 트레킹, 캠핑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이다. 옷, 신발, 배낭, 모자, 텐트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위한 기본적인 제품에서부터 각종 소품에 이르기까지, 아웃도어 활동을 보다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 세계 100여 개의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제품 4,000여 종이 준비되어 있다. www.walkntalk.co.kr

01 스터프백 포함, 460그램의 초경량 침낭. 몽벨
02 03 압력 게이지를 통해 원두를 내리는 핸디 커피 머신과 케이스. 핸드프레소 by 워앤톡
04 헤드의 랜턴이 네 개로 분리되는 마이크로퀴드 LED 랜턴. 콜맨 by 워앤톡
05 세면도구, 화장품 등 소소한 물품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수납백. 씨투써밋 by 워앤톡
06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호스형 오미드 가스 버너. 몽벨
07 레드 컬러의 스테인리스 물통. 클린켄틴 by 워앤톡
08 스푼과 포크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 스포크 세트(4개입). 라이트 마이 파이어 by 워앤톡
09 초경량, 초소형 자동 점화 시스템의 가스 랜턴. 몽벨
10 히말라야 등반대 장비에도 포함되는 내구성 강한 물통. 날진 by 워앤톡
11 캠핑 시 빠질 수 없는 바비큐를 위한 콤팩트 사이즈의 파이어 스테이지. 콜맨 by 워앤톡
12 밥, 국, 프라이팬, 접시 등이 콤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2~3인용 코펠. 몽벨
13 캠프 파이어나 바비큐 파티 때 간편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파이어 스틱. 코글란 by 워앤톡
14 마그네슘 봉을 긁어 스파크를 일으키며 점화하는 플린트 스트라이커. 코글란 by 워앤톡

LS네트웍스

PROSPECS

W, Get Slim

슬림해진 W입고 슬림해진 W신고 - 프로스펙스 W

W가 슬림해졌어요. 슬림해진 W트레이닝에 슬림해진 W워킹화를 신고
슬림해진 기분을 느껴보세요. 가을, 연아처럼 수현처럼 Get Slim!

W, Get Slim 이벤트!

워킹화부터 트레이닝복까지
프로스펙스 제품 구매 고객 모두 분께 W레깅스 가격을 2만원 할인해드립니다
기간: 10월 31일까지 (상설점 제외, 홈쇼핑사업 고객) www.prospecs.com

PROSPECS